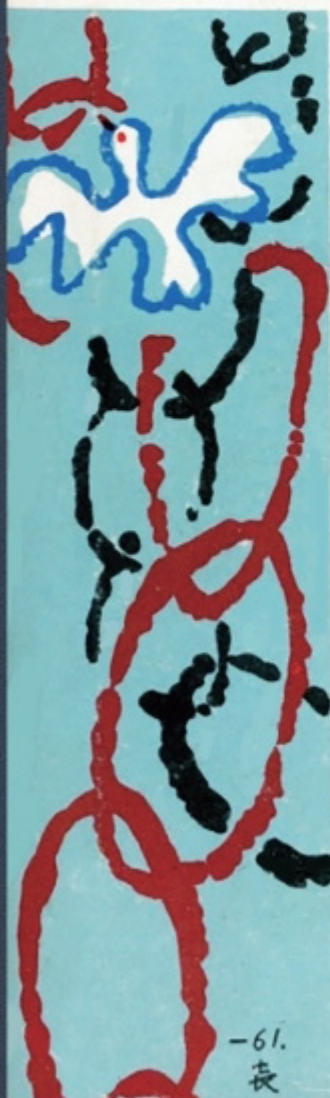


THE COMET

# 코메트

空軍本部政調監室發行  
(號四二八七年四月九日)  
(第三種郵便物取扱認可)



-61.  
表

特輯 自由世界와 共產世界

地下로부러의 詩

特輯 <反共結> 後進地域의 움직임

◇ 東南亞地域 ◇ 中南美地域 ◇ 아프리카地域

人民公司後  
中共의 實情

배고픈 거인

모스 코바의 權力周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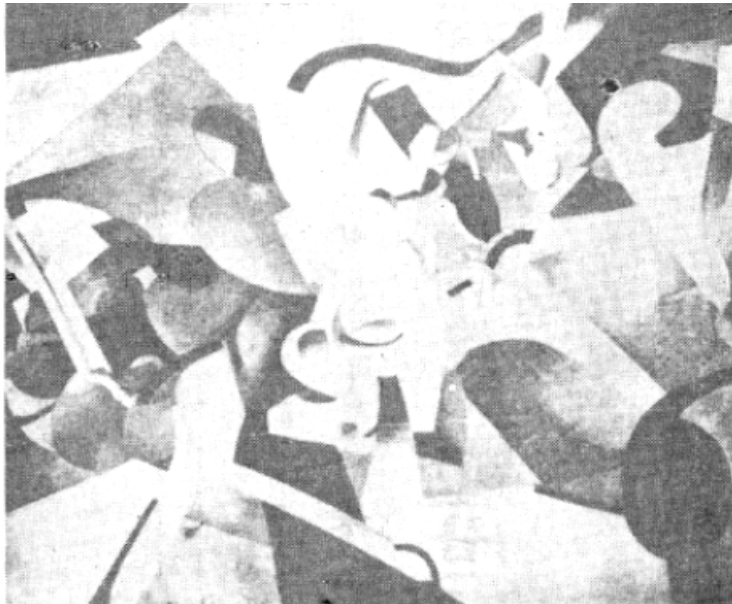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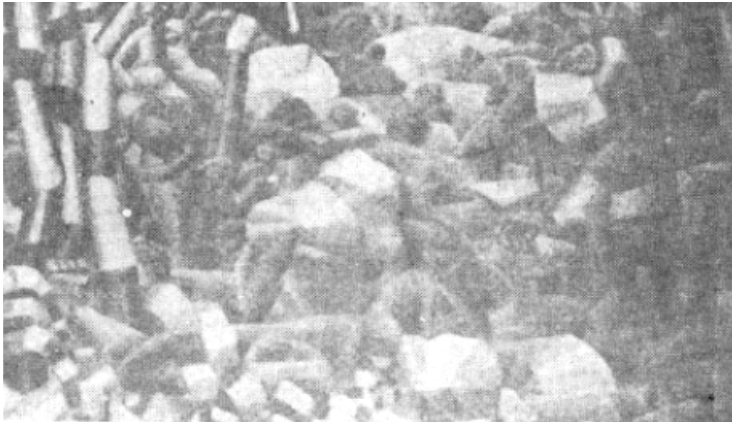
제 49 호

송요찬(宋堯讚) 내각수반은 1월 23일 연초 순시차 공군 본부를 내방하였다.



지난 1월 24일 주한 영국 대사관 공군무관 비숍대령은 본부로 김(金) 참모총장을 예방(禮訪)하였다.





(상) 레쥬의 「숲속의 나체군상」 1910  
(하) 피카비아의 「UDNIE」 1913  
(아메리카 아가씨) -파리 미술관-

##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를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코메트 · 제49호 목차

표지 ..... 이희세(李喜世)

〈현대 미술 감상〉

큐비즘과 그 주변 ..... (목차이면)

화보 { 송요찬(宋堯讚) 내각수반 공군본부 내방(來訪) ..... (표지이면)  
공군 장교 부인회서 위안회  
고아의 아버지 헤스 대령 내한

◇격동의 세계 · 1961년

〈권두언(卷頭言)〉···승공(勝共)의 길 ..... 정 훈감 주정호(朱貞鎬) (2)

특집 자유세계와 공산세계

- 민주국가의 권력구조 ..... 김운태(金雲泰) (34)
- 민주주의의 경제체제와 개인의 지위 ..... 김두희(金斗熙) (53)
- 민주주의의 세계관 ..... 이상조(李相助) (51)
- 공산국가의 권력구조 ..... 한재덕(韓載德) (39)
- 공산주의의 경제체제와 개인의 지위 ..... 김상겸(金相謙) (47)
- 공산치하의 예술 활동 ..... 이철주(李喆周) (53)

미국의 전력과 태세 ..... 권정식(權楨植) (65)

폴란드와 유고의 불화 (하) ..... 에딤 부름크드라치 코비치 (130)

후진 지역에 있어서의 소·중공의 알력 (하) ..... D.S.자고리아 (119)

배고픈 거인 ..... 한인섭 역 (95)

대약진을 부르짖는 중공, 그러나 전대미문의 식량난에 허덕이는 6억의 식구! 그것은 마치 기아와 노동에 지쳐 기동을 못하  
는 거인과 같다.

소련특집

- 소련의 세계 전략 ..... 김창순(金昌順)
- 레닌에서 흐루쇼프까지 ..... 박동운(朴東雲)
- 흐루쇼프의 20년 계획 ..... 유완식(兪完植)
- 소련 집단체제의 이면 ..... 김기점(金基漸)

모스크바 권력 주변 ..... 장세원(張世元) 역 (109)

모스크바 정권은 하나의 피의 숙청이기도 하다. 방금 모스크바는 험흉(險兇)한 공기 속에 쌓여있다.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특집 후진 지역의 움직임

- 〈동남아 지역〉인도차이나 사태와 그 전망 ..... 이기주(李祺周) (4)
- 〈중남미 지역〉자립체제로 살길을 개척 ..... 정태연(鄭泰演) (15)
- 〈아프리카 지역〉 검은 대륙의 각성 ..... 조의철(趙義高) (14)
- 아프리카 정세와 한국의 지위 ..... 김영철(金永哲) (19)

지하로부터의 시(詩)지하로부터의 시(詩) ..... 동완 역 (60)

진리를 탐구하는 인간의 욕구는 철의 장막 뒤에서도 소감(消滅)될 수 없다!

☆민주주의 원리 세미나 ③ ..... 김낙봉 (137)

인간 평등의 원리 (속)

☆공산주의 세미나 ② ..... 이동현 역술 (145)

공산주의의 통치기구

한국 교육의 당면과제 ..... 홍웅선(洪雄善) (29)

★편집 후기 ..... (148)

## 큐비즘과 그 주변

회화예술에 있어서 큐비즘(입체주의)이란 명칭이 나타난 것은 1908년이다. 아포리넬의 말을 빌려 그 성립된 사정을 살펴보면

1908년 가을에 건물을 많이 그린 한 장의 화폭을 본 앙리 마티스는 조소하였다. 이 건물들의 입체적 외관이 마티스를 놀라게 한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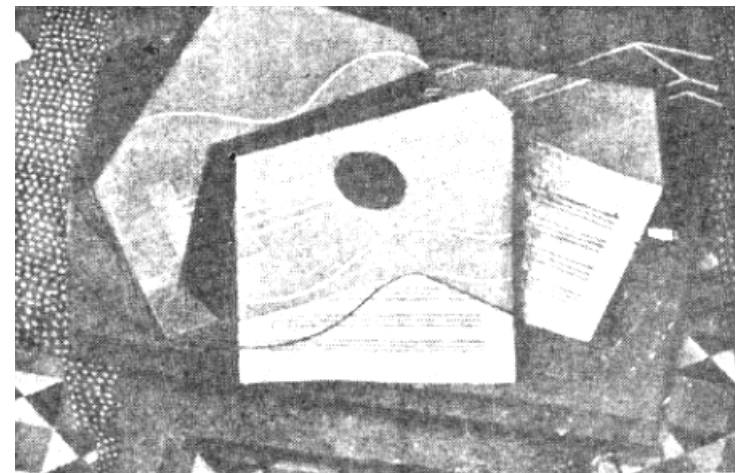
이 새로운 미학은 처음 안드레 도로네이의 정신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 것인데 불원(不遠) 이것이 발아하게 된 가장 중요하고 대단한 작품은 같은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할 대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었다. 1908년에 벌써 앙데팡당 전(展)에 큐비즘의 작품을 출품한 조르주 브라크 양식(良識)에 의해서 굳어진 피카소의 창작은 잔 뻬싼제의 몇 장의 제작에서 완성되었다.

뻬싼제는 1910년에 앙데팡당 전에 큐비즘의 초상화 「그것은 바로 나를 그린 것이다」를 출품한 화상(畫象)이며 또 같은 1910년에 싸론 도오돈누의 심사원에 게 큐비즘을 승인케 한 사람이다.

같은 유파에서 나온 로벤 도로나이, 마리 로랑생, 산 루 포코니에의 작품이 앙데팡당에 출품된 것도 1910년이였다.

큐비즘의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진 「아비뇰의 여인들」이 피카소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1907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큐비즘의 맹아도 여기서 구해진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피카소를 비롯한 동파(同派)의 작품을 처음 이론적으로 지지한 것이 시인 아포리넬이였다. 1911년 큐비즘 제1회전이 앙데팡당에서 열렸는데 대단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인간을 완성의 척도로 삼았던 그리스 이래의 고전적 기초를 타파하고 유클리드 기하학의 3차원성을 넘어서 자유롭고 직관적이며 대담한 다른 하나의 척도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이것을 아포리넬은 4차원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공간 자체이며 인간의 차원이다. 이것이야말로 물체에 조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 피카소의 「아비뇰의 여인들」 1907  
(하) 구리의 「기타가 있는 정물(靜物)」 1915  
-크레라 뮤우라 미술관-

1916년



베트남의 게릴라 병사

# 베를린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동서 베를린 경계의 붕괴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했으며 수많은 피난민이 동독을 필사적으로 탈출해 나오고 있다.



# 라오스

공산주의자들의 마수는 라오스에도 뻗쳐 친공군(親共軍)과 친서방군(親西方軍)에 의한 전투가 격화되고 있다. 라오스공산주의 수반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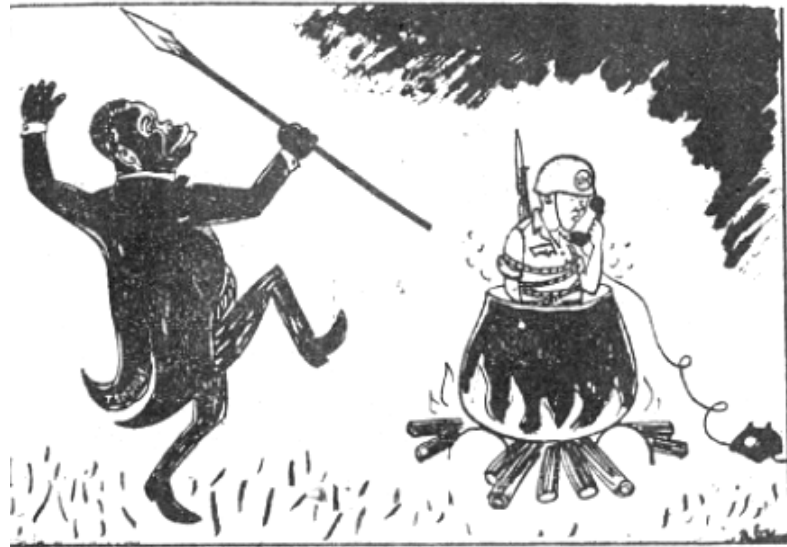




**알  
제  
리**



독립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프랑스군과 FLN군(알제리 임시정부)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되어 온 알제리 사태는 알제리 주둔 프랑스군의 반란으로 사태는 더욱 미묘하여 진바 있고 휴전의 분위기가 성숙하고 있는 이즈음에도 OAS(비밀 군사 조직)에 의한 폭동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베르기의 통치로부터 독립을 획득한 검은 대륙의 콩고는 부족간의 충돌과 백인 학살 소동으로 혼란의 도가니를 연출하여 UN군이 진주함으로써 간신히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콩  
고**







튀  
니  
지

튀니지 북부에 있는 프랑스군의 군항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튀니지-프랑스군 간의 격렬한 무력전이 있었으나 곧 정전(停戰)되었다.



동남아 적화(赤化) 음모의 일단(一端)으로써 고딘디엠 대통령이 영도하는 자유 베트남에는 오랫동안 공산 게릴라가 투입되어 국내 질서를 교란시켜 왔으며 투입되는 공산 게릴라의 규모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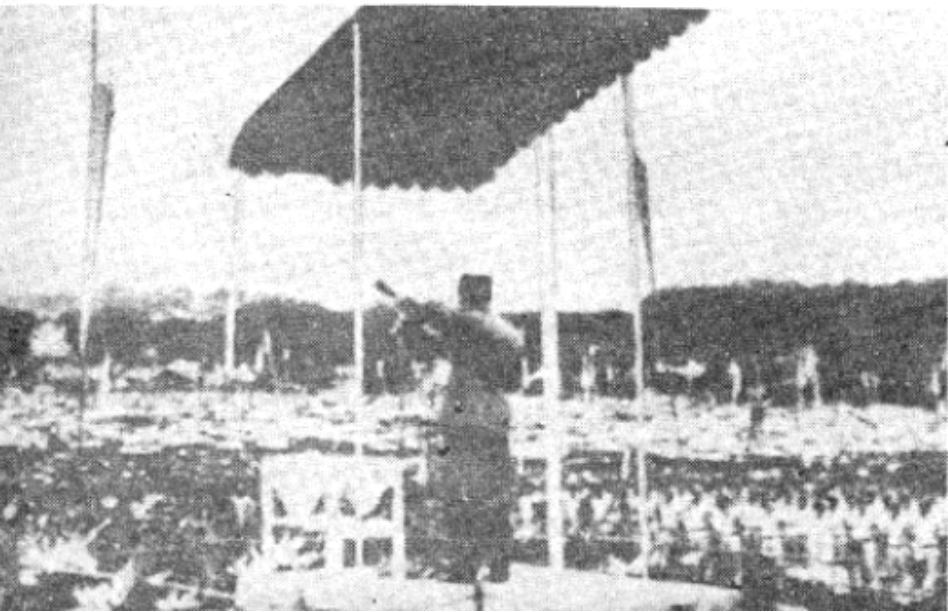
베  
트  
남



“내 모양이 어때! 제국주의자로 보이지 않나?”

# 뉴기니

뉴기니의 영유권을 주장(主張)하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뉴기니를 무력으로 강점(強占)할 것을 호언하고 있어 네덜란드와의 무력 충돌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고아

중립적인 평화주의를 표방해오던 인도차이나는 포르투갈 통치하의 고아에 대한 무력 침략을 감행함으로써 그들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코 메 트

THE COMET

제4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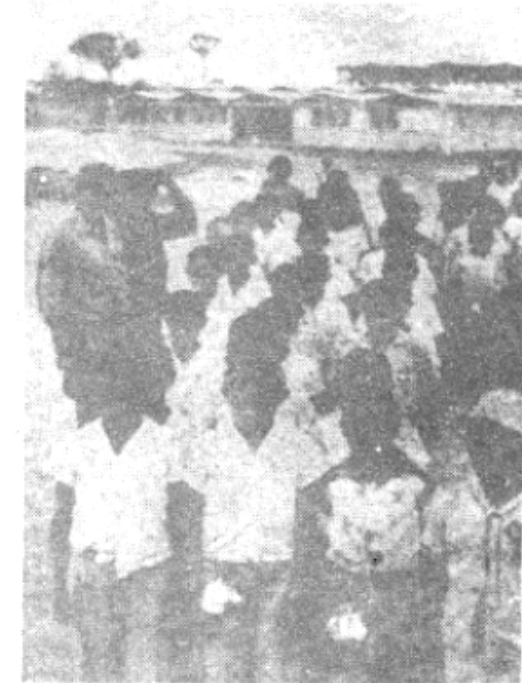
문비(門扉)컷...재건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표지화...어떠한 사슬로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박탈할 수 없다.

-이희세(李喜世)-

공군 본부 정훈감실(正訓監室) 발행  
발행 겸 편집인 공군 대령 주정호  
인쇄처 공군교재창  
인쇄인 공군 대령 김석환

쿠바의 독재자 카스트로의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반(反)카스트로군의 쿠바 공격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동(同) 전투에서 생포된 반(反)카스트로군을 트랙터와 교환하겠다고 제안했던 독재자 카스트로는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스스로 비인도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내었다.



쿠  
바

## 승공(勝共)의 길

정훈감(政訓監) 주정호(朱貞鎬)

자고로 인간의 미덕은 타(他)와 더불어 타협할 줄 알고, 타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신의 주장을 양보할 줄 아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20세기 후반의 찬란한 문화를 결실한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호양정신(互讓精神)과 협조정신, 그리고 휴머니즘을 터전으로 한 미덕의 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인간의 미덕은 그 빛을 잃어가며, 존재 가치마저 부인되어야 할 암담한 현실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싫든 좋든 간에 여하(如何)든 공산주의의 붉은 마수가 그들의 판도를 넓히기에 광분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다.

인류의 양심이 공산주의의 이론을 분석, 비판하여 그 가치를 부인하기에 앞서 이미 그것은 기존 세력으로써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적화(赤化)를 획책(劃策)하는 공산주의의 야망 앞에는 인간의 미덕은 고사하고 일말의 타협이나 휴머니티조차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체험해 왔다.

6·25전란이 바로 그 좋은 예의 하나였다.

따라서 세계 적화의 망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세계 평화의 근본적인 파괴도

불사(不辭)하는 그들이기에 바야흐로 전 세계는 생존이나 멸망이나 하는 역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어느새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권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정복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복당하느냐 하는 생사의 분수령에 선 현실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확실히 〈반공(反共)〉의 단계를 지나 〈승공〉의 영역으로 변모, 강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 승공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막강한 전력과 불가투(不可透)의 정신 무장만이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와의 타협은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다양한 침략전은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6·25전란의 민족적 비극을 겪은 우리이기에 공산주의의 잔악성과 무자비성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힘에는 힘으로, 정신에는 정신으로 그들과 맞서서 필승할 수 있는 전력과 정신력을 배양하는 것만이 요청될 뿐이다.

이것만이 공산주의를 타도하여 자유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고 희망과 번영에 넘치는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승공의 길〉이라 하겠다.

## 세계 후진 지역의 움직임

〈동남아시아〉

### 인도차이나 사태와 그 전망

-선전 없는 전쟁 시대-

이기주(李祺周)

#### 1. 서언

오늘 양대 세력의 역균형(力均衡) 상태를 전면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즉 선언되지 않은 전쟁(Undeclared war) 상태가 인도차이나 반도의 정글과 전지(戰地)에서 간단(間斷)없이 전개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지금까지 평화 공존, 세계 긴장의 완화, 혁명 수출의 반대 등을 구호로 내세워 표면상으로는



평화 애호가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면적으로는 그들의 전통적인 혁명 수출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중국적인 세계정복을 기도해 왔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동남아 정복 음모의 실행은 이미 전중(戰中) 및 전쟁 직후로부터 착수되었는바 당시 그들은 서구의 식민주의에 항거하던 지방민족주의자(Local Nationalists)들과 부화(附和)하여 반식민 독립운동에 가담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영합을 얻고 거기에다 전후(戰後) 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누적된 현상인 저생활 수준, 문맹, 정치인들의 부패, 부정 등 제병적(諸病的) 요소에 편승하여 한편으로는 전복 활동(Subversive Activities)에 의하여 아시아 신생 독립국의 존립을 위협해 왔던 것이다.

1945년~ 46년에 걸친 인도차이나반도 공산 활동, 1948년에 이르러서의 인도·인도네시아 및 미얀마에 있어서의 공산 폭동 그리고 말레이시아·인도차이나·필리핀에 있어서의 공산 게릴라 준동, 1949년의 중공의 본토 정복, 1950년의 한국동란(韓國動亂), 1953년 호찌민(胡志明)군에 의한 베트남 석권 등은 그 두드러진 사례로써 열거될 수 있다.

오늘날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어서의 라오스 사태, 베트남 내전의 악화,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 등도 상기(上記)한 바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과 관련시켜 봄으로써 그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 세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 2. 라오스 사태의 진전과 그 추이

1954년 인도차이나 휴전을 계기로 점증하는 공산 침략의 위협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남아 3개국(필리핀·태국·파키스탄)을 포함한 8개국의 서방 열강(前記) 3개국 이외에 미·영·프·호주·뉴질랜드)이 동남아방위조약기구(SEATO)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방위 동맹 체제가 형성된 직후에 있어서의 동남아 공산세력의 활동은 표면상으로는 잠잠한 것 같이 보였으나 그러한 중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은 동남아공산방위기구로서의 시도의 실력을 그 조약기구의 보호 지역(주) 외곽에서 시험할 기회를 항상 엿보며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금년 정월부터 급속히 악화된 라오스 내전은 그것이 전술(前述)한 바 공산주의자들의 시도에 대한 최초의 공개적인 테스트이며 도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오스의 내전은 3공자(公子)를 중심한 친미, 중립, 친공(親共)의 3정파(正派)가 친서방, 친공의 두 쪽으로 갈리어 서로 항쟁하고 있는 것으로써 그들 배후에는 양대 세력의 조종과 전략 물자의 공급이라는 요인이 개재(介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라오스의 공산당인 파테트 라오와 중립주의자 수반나 푸마의 콩레군이 소련과 중공의 원조를 받아 연합공동전선을 펴고 금년 3월에 이르러서는 라오스 전 영토의 5분의 2 이상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서방 세력이 라오스로부터 구축(驅逐)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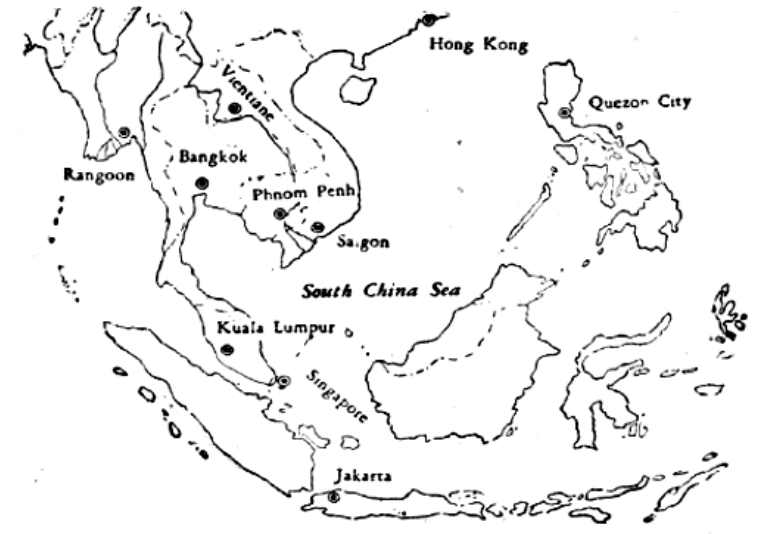
라오스에 대한 우산보호기구로서의 시토 및 금년 정월에 탄생한 케네디 미 행정부가 이 위기를 어떠한 형식으로 처리하는가가 극히 주목되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공산 측에 대하여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강경한 태도를 표시하는 한편, 타면(他面)으로는 라오스 중립화를 제창함으로써 영·프에게도 용납되는 소극적인 해결방안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이와같이 케네디 대통령이 라오스 중립화안을 앞장 세워 공산 측과의 협상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면에는 라오스 내전을 서방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이 개재하였던 것을 생각되었는바, 그것은

첫째, 시토 자체의 조직과 기능상의 결함, 즉 군사조치에 관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주요 회원국인 미·영·프의 이해상반으로 인하여 라오스에 대한 군사행동을 시토의 깃발 아래서는 취할 수 없었다는 점이고,

둘째, 현재 서방측이 라오스의 중립화 내지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가능한 길은 실력으로써 공산세력을 라오스로부터 밀어내는 방법뿐인데 그것은 지금 영·프 등 일부 서방 강대국들이 라오스의 내전 확대를 불원(不願)하고 있고, 또 라오스의 내전 확대는 중공 및 월맹의 보다 큰 무력 개입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서방측은 대규모의 국지전 내지는 전면적인 세계 대전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라오스의 지리적 조건(밀림의 산악도로 교통망의 불비(不備), 연중 6개월 이상의 우기(雨期) 등) 등으로 보아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서방측에게 큰 승산(勝算)이 없을 것이라는 점 등으로써 엮었던 것이다.

상기한 케네디 행정부의 라오스 중립화 제안은 영·프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공의 제의에 의하여 소집된 라오스 문제 해결에



관한 제네바 14개국 회의(5월 16일 개막)에 서방측의 기본 입장으로 천명되었던 바, 이는 분쟁 지점의 중립화라는 공산 측의 전략에도 부합되는 것이어서 라오스의 중립화가 제네바 회의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 같은 전망을 갖게 하였었다.

그러나 공산 측은 라오스 중립화라는 원칙에 대해서만은 서방측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중립화 후에 오는 중립 보장의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는 서방측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복안(腹案)을 갖고 중립 보장에 관한 국제감시위원단(I.C.C.)인도, 캐나다, 폴란드의 3개국으로 구성의 감시활동에 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하자는 주장(거부권 적용)을 고집함으로써 동(同) 제네바 회담을 교착상태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와같이 중립 보장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동서 양측이 라오스 중립화에 합의하지 못했던 이유는 중립화 그 자체에 대한 양측의 복안이 근본적으로 상이했던 때문인데 서방측은 수반나 푸마를 수반(首班)으로 하는 진정한 중립정부를 만들어 좌파 진출을 억제하고, 한편으로는 I.C.C의 유효한 감시활동을 보장케 함으로써 라오스를 공산세력의 침투에 대한 완충지대로 만들자는 것이요,

이와 반대로 공산 측은 이미 수반나 푸마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를 조종할 수 있다는 뱃심과 또 라오스 각 정파를 대표한 연립정부가 수립되는 경우에는 중립 내지 공산정파가 최소한 3분의 2 이상을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I.C.C의 감시활동에 폴란드의 거부권을 적용케 하여 그의 유효한 기능 발휘를 마비케 함으로써 동북부 정글 국경선을 통한 중공 및 베트남의 자유로운 출입과 공작을 가능케 하고 그리하여 시기를 보아 중국적으로는 라오스를 공산화하는 속심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네바 회담의 이러한 교착상태를 틈타 파데트 라오군과 콩레군은 자신들의 휴전약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계속 산발적인 전투로써 정부군을 공격하여 그들의 지배영역을 확대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반 나몬 3파 정치회담과 취리히 3공자 회담 등, 협상에도 응하는 이른바 화(和)·전(戰) 양면의 전법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상기한 기만적 이중전법의 행사로 말미암아 서방측이 의도하던 라오스의 진정한 중립화가 날로 지연되고 협상이 오히려 공산 측의 편법으로 이용됨에 따라 자유진영 일부에서는 라오스의 분단을 라오스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방법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라오스의 지정학적 조건과 현재의 라오스 전선 상황 및 친공파의 세력권 등을 고려할 때,(지도 참조) 분단은 그것이 남북분단이든 또는 현 전선에 따른 분단이든 결과에 있어서는 공산화에로의 가능한 길을 터놓는 잠정적 효과밖에는 없게 될 것이라는 점으로써 하등(何等)의 고려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제네바 14개국 회담이 열린지 7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취리히 3공자 회담에서 3파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한지가 이미 6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수립될 중립정부 수상으로 중립주의자 수반나 푸마가 지명된 지 이미 2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중립화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이 조금도 크게 이루어진바 없이 비엔티안 3공자 회담의 신변보호조치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로써 전체의 대립만 거듭하면서 지금 건계(乾季, 주3)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태의 밑바닥에는 중립연립정부 구성에 따르는 3파간의 각료 비율 문제, 군대 통합 문제, 주도권 장악문제 등에 대한 친미적(親美的) ‘분 움’

정부와 중립·친공정과 간의 이해상반이 그 주원인으로써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베를린 문제, 베트남 사태 및 중공의 유엔 가입 문제 등으로 국제정치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는 동안에 건계(乾季)에 접어든 라오스 내전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며,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떠들어대고 있는 중립 연정이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될 것인지 또는 영영 구성되지 않을 것인지 그 예측을 불허하는 가운데 파데트 라오군과 콩레군에 대한 소련과 중공의 공수(空輸)만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서방측은 지금까지 공산 측의 지연전술에 의한 라오스 영토의 사실상 지배라는 계획에 이용되면서 자체 내의 이해상반으로 인한 공동 조치 행사의 불가능을 노정(露呈)시키면서 라오스를 상실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주1 : 시토는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실현된 인도차이나 휴전 후 새로 탄생한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3개국을 그 조약기구의 보호지역으로 규정하고 해(該)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는 무력에 의한 군사적 보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주2 : 라오스의 2정파는 분 움 공을 수장으로 하는 현재의 라오스 합법정부인 분 움 정부와 중립주의자 수반나 푸마 공을 영도자로 하는 중립주의정파 및 라오스 애국당인 신(新) 라오스 애국당의 당자(黨者)인 수파누 봉 공의 친공정파의 3파임. 중립주의자 수반나 푸마와 친공주의자 수파누 봉은 이복형제의 관계에 있음.

주3 : 라오스의 기후는 1년을 2대별(二大別)해서 우계(雨季)와 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우계는 4월~ 10월까지이며 건계는 11월~ 3월까지로써 우계에는 사실상 모든 군사행동이 불가능하고 건계에 들어섬으로써 실질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태임.

### 3. 베트남 내전의 악화

라오스의 내전 처리가 100여 일간에 걸쳐 제네바에서 입씨름만 거듭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동안에 아시아에 있어서의 동서분쟁의 무대는 베트남으로 옮겨졌다.

1954년의 제네바 휴전협정 이후 일시 미미한 것 같이 보였던 베트남(월남공산당)의 활동이 현저히 표면화된 것은 1959년으로써 당시 불과 3,000명이었던 게릴라가 지금은 1만5천 내지 2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메콩하(河) 하류의 삼각주 일대에 강력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북서의 원격한 산악 정글 지방에는 중앙정부와 맞설만한 일종의 지방자치 조직체를 형성하여 지방주민들

에게 침투하고 있으며, 월평균 500명 이상의 지방유지 경찰 및 관리들을 살해하여(작년 한 해 동안 베트남은 2,000명의 警察, 2,000명의 官吏들을 살해한 바 있음)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더욱이 작년에 착수하였던 아그로빌(Agroville) 계획·게릴라의 출몰과 보합기지(補給基地)를 근절하기위한 조치로서 농민을 집약조직화하는이 정부의 강압적 수단에 의한 강행으로 농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실패로 돌아가자, 베트남은 이것을 그들의 대농민선동(對農民煽動)의 자료로 역이용하였었다.

일반적으로 보아 베트남의 제1전선은 수도 사이공의 서남방인 곡창 삼각주 지대로서 이 지대에는 무수한 수로가 얽혀져 있고 갈대밭이 무성하여 게릴라들의 활동이 용이한 반면에 정부군의 소탕전이 대단히 힘든 입지적 조건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주목할 사실은 이들 삼각주 농민층의 공핍과 군대 지방관헌(地方官憲)에 대한 불만에 채찍질되어 점차 대두하고 있는 반정부교단인 고합교(高合教)와 화호교(和好教)의(주1) 재기(再起) 현상이다.

1955년 베트남 독립 후 정부군에 대등하는 사병을 갖고 있던 고합교는 응오 دن지엠 대통령에 의하여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그 교주가 캄보디아에 망명, 분사(憤死)한 이후로도 종교로서의 명맥만은 유지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바, 베트남 공산당이 이를 이용하여(고합교 좌파는 호찌민의 베트남 민족 연합 전선에 가담한 바 있음)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중계보급기지(中繼補給基地)로부터의 군수 물자 수송에 이들 고합교도들을 수송대원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삼각주 내에서도 그들의 식량 보급과 은닉에 다대(多大)한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화호교도 역시 삼각주의 농민층에서 고합교와 마찬가지로 깊은 뿌리를 박고 있으며, 1955년 당시에도 고합교와 호응해서 정부에 항쟁한 바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도 또한 베트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베트남의 제2전선은 서북방 산악 지대로서 이 정글 지대에 살고 있는 원주민 약 500,000명은 종래 베트남 정부로부터 만족시(蠻族視)되어 왔던 탓으로 정부에 대한 불평과 적의는 상당한 것이었다 한다.

호찌민의 월맹은 이러한 소농민족의 회유에 혈안이 되어 인근 국경선 너머인 라오스에 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들 주민에 대한 선전 공세를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첩자들로 하여금 피부색을 염색케 해서 원주민층에 침투시켜 원주민의 처녀와 결혼을 시키는 수법까지 써서 적화 공작을 하고 있으며, 또한 원주민에

대한 게릴라 조련과 원주민 대대를 편성 중에 있고 그들에 대한 자치구 허

여(許與)를 약속함으로써 17도 휴전선 지방의 장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해방 국민 전선이라는 농민, 노동자, 자본가, 교단(教團), 소수민족에 이르는 일체의 반정부세력을 규합한 어떤 단체를 조직하여 “현(高)정부를 타도하고 과도정부를 만들어 남북통일의 다리를 만들자”는 식의 평화통일론을 주장함으로써 대중의 민심을 교란하려 하고 있다.

이와같이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베트남 사태에 대하여 지난 6월 베트남을 방문한 존슨 미 부통령은 베트남군의 증원과 장비의 개선, 미군사 고문단의 증파(增派) 등 15개 항목에 달하는 군사·경제 원조 계획을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원조 약속이 실현화되기 이전에 베트남 공산당의 게릴라전은 사실상 전쟁 상태로 발전되고 라오스와 접경한 서북부 수개 주(州)는 라오스 전투의 소강으로 인한 파테트 라오의 지배력이 미치게 되는 등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여 고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케네디 행정부는 이미 누차에 걸쳐 베트남 수호 결의를 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처를 스피드 업 하지 못한 결과로 이와같이 베트남 상실의 위기에 당면한 후에 다시 대통령 군사고문인 테일러 장군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미군의 베트남 파병의 필요성 여부와 베트남 사태 전반을 검토케 한 바 있으나 결국 그 결론은 베트남군의 증강을 위한 군원(軍援)과 베트남 폐정(弊政)의 개혁이라는 점에 귀착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의 베트남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일반적으로 금권과 족벌주의로 국민의 신임을 잃고 있다고 하는 현 정부의 단호한 개혁도 필요한 전제요건의 하나이지만 종래 미국의 동남아 정책, 즉 Surplus of fine talks a shortage of decisive actions의 태도를 지양하고 보다 강력한 결의로써 공산주의의 침공에 대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라오스 정세의 현실, 태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인한 캄보디아의 친공 중립적 경향 중공의 세력이 상당한 영향을 뻗치고 있는 미얀마, 서부 뉴기니 분쟁으로 대(對) 공산 접근 정책에 치중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제국(諸國)의 귀추를 내다볼 때, 베트남이 공산 수중으로 들어가느냐 또는 서방진영에 계속 남아 있느냐 하는 문제는 동서 양 진영의 세력권 분포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 4. 태국-캄보디아 국교 단절 사태

전술한 라오스 베트남 사태와는 그 성격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인도차이나반도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또 하나의 사태는 태국-캄보디아 간의 국교 단절 사건이다.

이 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태국 수상이 캄보디아가 인방(隣邦) 침공을 위한 공산 중계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캄보디아를 비난한 데서부터 발단되었으나, 그 원인은 캄보디아가 독립하던 1954년에 발생한 양국 간의 카오 프라 비하른 국경 분쟁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 국경 분쟁 사건으로 인하여 양국 관계는 이래 험악 일로를 걸어오다가 1958년 캄보디아가 중공과 국교를 수립하고 태국과의 국경 분쟁에 중공을 끌어들여 자기의 입장을 유리하게 조작하려고 시도하였고 중공은 또한 캄보디아의 이러한 태도를 이용하여 프놈펜의 대사관을 기지로 좌익계 화교들을 태국에 침투시켜 태국의 화교 집단촌(Chinese community)의 적화 공작을 꾀하였기 때문에 태국은 국경 봉쇄 등으로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바 캄보디아는 이에 동년(同年) 11월 24일 일방적으로 태국과의 단교를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 후 양국 간의 관계는 고(故) 함마술드 씨의 조정으로 정상화되었지만, 캄보디아는 동(同) 국경 분쟁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지금까지 양국 간의 미결 분쟁 문제로 동(同) 재판소에 계속(繫屬)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래 라오스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캄보디아의 시하누크 공은 라오스 사태 비판론을 주창하면서 동남아 중립 완충지대의 설정을 제기하고 또한 라오스와 베트남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제스처를 놓(弄)하면서도, 그 자체의 빈약한 국방력 때문에 자국의 베트남 국경 지방이 베트남 게릴라의 보급 중계지로 이용되고 있어도 그것을 유효히 감시치도 못하는 주제에 그만이 동남아의 유수(有數)한 정치가연(政治家然)하는 태도가 동남아의 실력국이며 오랜 반공국가인 태국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였던 것이다.

막상 국교가 단절되고 태국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캄보디아의 시하누크 공은 「죽음과 공산의 두 가지 길」 중에서 죽음의 길을 강요한다면 차라리 공산의 길을 택하겠다고 호언하고 만약의 경우에는 중공의 파병을 요구하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동으로 나오고 있으며 중공도 이에 성원을 보내고 있는 바, 중공의

이러한 태도는 캄보디아의 대(對) 중공 접근 정책을 그들의 동남아 세력 확장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은 캄보디아의 친공 중립 노선은 최근 베트남과의 국경지구 무력 충돌 사건 이후로 더욱 그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무정견(無定見)한 돌발적 발언으로 동남아 정국의 혼란만을 조장해 오던 시하누크가 앞으로는 또 어떠한 예상외의 수법으로서 현재의 곤경을 타개하려 할 것인지 큰 관심사로 남아 있는 것이다.

#### 5. 결어

전후(戰後) 보잘것없던 동남아 공산세력은 1954년 인도차이나 휴전의 소득으로서 북베트남을 얻고 그 후 6년이 지난 금일에는 라오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베트남을 전복할 실력을 기름으로써 인도차이나 반도를 자유, 중립, 공산의 각 세력권으로 삼분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결구된 연유는 이 지역의 특수성에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지역의 방위(防衛) 공동체로서의 시도가 종이 호랑이(Paper tiger)의 기능밖에는 발휘할 수 없었던 국제정치의 변모에도 있는 것이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아시아 자유인민의 서방 열강에 대한 신뢰의 상실, 회의, 자기들 국가 이익에 영합하는 외교 노선의 채택 및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 자신의 이니시iative에라는 의식을 짚트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발족을 본 동남아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의 결성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도의 개편 문제 및 태국 등의 신축성 있는 외교 정책의 채택 전망 등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ASA는 태국·필리핀·말레이 3국을 가맹국으로 하는 동남아 경제·문화협력기구로서 그 목적은 회원국 간의 협력에 의한 국력 향상으로서 각자의 독립 유지에 이바지하고, 동남아 국제정치상에 있어서 단결된 행동으로 아시아의 발언권을 고양하자는 새로운 의욕을 갖고 있는 기구며 시도의 개편 문제는 종래의 만장일치제를 다수결제로 바꾸어서 그 기능을 정상화하든지(이는 아시아 회원국의 위치 향상) 그렇지 않으면 이미 무력화되고 있는 명목상의 조약 기구를 해체해 버리든지 하자는 강력한 주장인 것이다.

그리고 제일 주목할 사실은 태국과 같은 강력한 반공 국가에서 암시되고 있는 국가 독립 유지를 위한 외교 노선 채택 경향이다. 태국은 지금 동북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오스의 공산화 위협과 태국 영내에서 중공과 파테트 라오의 지원을 받은 공산 폭동 음모의 탄로, 소련인 간첩단의 체포 등등 일련의 사건을 겪음으로써 동남아 공산세력의 침략의 마수가 양성적으로 태국으로 뻗고 있다는 징후를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전술한바 같은 시토의 결함으로 서방 열강의 동남아 정책이 후퇴만 거듭함에 따라 서방과의 동맹 관계에 자신의 보호를 위탁할 수 없다는 새로운 사실에 입각하여 대(對) 아시아 중립국 접근 정책과 조건 없는 소련 원조 수락 태도 등의 중립적 경향을 표면화시킬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바 1962년의 베트남 내전과 라오스 사태는 동남아가 서방 세계의 자유의 문과 공산 세계의 철의 장막의 어느 쪽에도 통할 수 있는 20세기 후반 국제 정치상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외무부 정무국 아주과(亞洲課) 근무)

### 사람 죽이는 붓끝

17세기 말엽 런던에 파트리치라는 사나이가 점치는 역사(曆書)를 팔아서 한 밑천을 톡톡히 잡았다. 그런데 당시 문학자인 에디슨과 스테일이 공동으로 조그마한 잡지를 발간해서 이러한 엉터리 책들을 비난하는 글을 실어 기회를 때마다 두들겼다.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인 스위프트(1667~ 1745)도 이 잡지의 기고가(寄稿家)였는데 그는 미지근한 비평이나 풍자로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비커스태프라는 변명(變名)으로 팸플릿을 발간하여 “파트리치는 1708년 3월 29일 밤 11시 페스트로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

이와 같은 예언에 놀란 파트리치는 그해 역사 출간을 서둘러 세상에 내놓고 “비커스태프라는 무식한 친구는 엉터리 글만 쓰고 있다. 나는 이렇게 아무 탈 없이 건강하다. 여러분 안심하시라.”라고 광고를 냈다.

그러나 3월 29일이 가까워지자 비커스태프는 “이제 바야흐로 파트리치가 죽을 시기가 1분 1초의 착오도 없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공포함으로써 런던 시민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떠들어 댔다. 장의사나 묘지 관리인들까지도 파트리치 가(家)의 기색을 살피러 왔다. 역서는 발매 금지가 되고 거기다 스위프트의 친구들까지 나서서 이곳저곳에 글을 썼다. 이리하여 그날에 파트리치가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나는 건재하다.”라고 광고를 내도 세간에서는 곧이듣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스위프트는 파트리치 씨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내용의 유명한 만가(挽歌)를 인쇄해서 뿌렸다. 이래저래 파트리치는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려 8년 후에 스위프트의 예언대로 3월 29일에 죽었다.

### 동서 일화(逸話)

특집 · 세계 후진 지역의 움직임

### <중남미 지역>

## 자립 체제로 살 길을 개척

-정열의 탱고에서 깨어난 그들-

정태연(鄭泰演)



미국 사람들이 유머를 좋아하고 놀기를 즐기는 국민이라는 것은 직접 미국 땅을 밟아 보면 더욱 더 잘 느끼는 바다. 여흥과 오락 시설이라면 어디 가나 빼놓지 않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국민들이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는 바는 필수품화 하고 있다. 7개의 고개로 이루어졌다는 서부 해안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시에는 이러한 「바」와 나이트클럽이 변화가 골목길마다 즐비하다.

문 앞에는 금발의 나체 사진을 커다랗게 걸어 놓고 자기네 집에서 춤추는 쇼걸이 제일 예쁘고 성적 매력을 느낀다고 제각기 선전을 하고 있다. 대개 해가 지면서부터 문을 열기는 하나 밤 10시·11시가 되기까지는 피아노나 치면서 펍 조용한 가운데 아직 덜 취한 손님들을 접대한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부터는 손님들이 부쩍 늘어 지껄이는 목소리도 차차 커지고 술에 만취한 남녀들이 서로 붙들고들 야단이다. 그 가운데 외기러기 같이 혼자 출입하는 남성들은 술과 노래를 즐기기보다 이러한 장소에 나타나는 여성들에 더 흥미를 갖는다.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술잔을 드노라면 어디선가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 바로 옆에 자리를 정하고 앉아 무엇인가를 기다린다. 어느 한 쪽에서 술을 권하고 또 이것을 받아 들기만 하면 그때부터 정다운 이야기가 시작되어 가게 문을 닫는 새벽 2시경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서로 팔을 끼고 간다는 것이다. 마침 이곳을 여행 중인 어느 한국인 저명인사는 이들의 이와 같은 황홀스런 광경을 보고 자기도 시도했다가 그만 여인에게 술만 실컷 사먹이느라고 엄청나게 돈만 썼을 뿐, 밖으로 나가자니깐 팔짱을 끼기는커녕 “굿 럭”하고 한마디 던지고는 저편 구석 어느 남성에게로 사라지더라는 이야기다.

문 밖에 스트리퍼 나체 사진을 걸어 놓고 손님을 끄는 서부 도시에 비해 뉴욕을 비롯한 동쪽의 대도시에서의 영업 방법은 한결 점잖은 편인 것 같았다. 문밖에 나체 사진을 걸어 놓지도 않았고 간판도 허술하게 붙여 놓아 처음 이 도시를 방문하는 손님에게는 얼핏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일단 문을 열고 들어서면 술 파는 카운터 위에 20여장의 여자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는 것을 본다. 술을 마시면서 “이들이 모두 인기 여배우들이 아니냐?”고 넌지시 물으면 보이는 “아무렴요, 우리 집에서는 한때 미국 최대의 인기를 모은 여배우가 아니면 이런 사진을 걸어 놓지 않습니다. 이들을 대불깁쇼”하며 능청스럽게 대답한다. 물론 그들이 여자배우 사진일리는 만무하다. 손님이 골라 청하는 대로 불러오는 전속 접대부들이다.

× ×

미국사람들은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고 유머러스한 국민들이다. 그러나 한편 미국 국민들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 국민이 없음을 직접 보았다. 아침 8시에 출근하면서부터 일을 시작하면 12시 점심시간까지 쉬지 못한다. 점심시간 한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꼬박 일로 보내야한다. 어쩌다가 친한 벗이 찾아들어도 5분 이상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며 퇴근 시간 후로 미루어 버리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턴퍼시픽이라는 전기회사 사무실을 찾아들었더니 그 큰 사무실에 수십 명의 남녀 직원들이 제각기 타이프라이터를 놓고 사무를 보고 있는데 그 타이프 소리와 또 타이프 치는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안내자 말에 의하면 일에 지쳐 쓰러지는 회사 직원이 1년에도 몇 번씩 있어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한편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들도록 회사 규칙을 새로 세웠다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에 머무를 때 잡아땀던 어느 택시 운전수에게 “하루 몇 시간 일하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24시간을 돌이서 교대하며 일한다.”고 대답한다. “노동법에서 8시간 노동제로 정해 놓지 않았냐?”고 반문했더니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새벽 6시에 나와 저녁 6시에 교대하고 집에 돌아가면 밥 먹기가 무섭게 침대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도 한 달 버는 것으로 식료품값,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월부(月賦)집 값, 그리고 어마어마한 원천과세 등을 제하면 겨우 마누라 향수 한 병 사다주기도 어렵지요.”하며 한탄스럽다는 듯이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50이 넘보이는 영감 운전수가 계속 얘기한 바에 의하면

제2차 대전 시 유럽에 나가 싸우던 군대생활 3년을 빼놓은 26년간을 이 도시에서 이렇게 택시 운전수로 살아왔다는 것이며 매일 10시간 내지 12시간을 운전대와 씨름을 해왔다는 것이다.

덕분에 지금은 성장하여 출가한 세 자녀를 고등학교까지 보냈고, 방 한 칸 없던 자기로서 15,000불짜리 집을 15년 부로 사들여 꾸준히 부어 넣은 결과 앞으로 3년만 더 지불하면 완전한 자기 소유가 되니 뼈아프게 일한 보람을 느낀다고 자못 호뭇한 마음을 표시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가 즐비하고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멀티 밀리언 이어가 월 스트리트에 수없이 웅거(雄居)하여 호사스럽기만 하여 보이는 거부(巨富) 미국은 실로 이들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근면한 일반 국민들이 유지해 나가는 나라라고 느꼈다.

× ×

미국 바로 남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멕시코다. 영화에서 본 기억으로는 커다란 밀짚모자를 쓴 인디언 혼혈아가 적은 나귀를 타고 다니는 나라다. 수도 멕시코 시 거리에는 과연 혼혈 인디언도, 조그마한 나귀도 많다. 그러나 깜작 놀라도록 많은 것은 여인이다. 어느 골목길을 걸어도 여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나라 남녀 인구 비례는 1대7, 그러니까 남자 하나에 여자 일곱 꼴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이 압도적으로 많은 여자들이 모두 소화된다고 하니 알 수 없는 이야기다.

차를 대절하여 백 리 조금 넘는 산 후안 티오티와칸으로 유명한 마야 문화의 유적인 태양피라미드를 보러갔다.

다 털털이가 된 차지만 캐딜락이라고 내세우며 뽐내는 운전수는 영어를 썩 잘하는 외에 국어인 스페인 말과 불어, 독일어, 이태리 등 모두 7개 국어를 한다고 떠들어댄다. 이야기 끝에 가정 사정을 물었더니 부인이 무려 다섯이고 어린아이가 여덟이라고 한다. “그래, 어떻게 그 많은 부인들을 봉양하느냐?”고 캐물었더니 “뭘, 봉양하는데 돈이 필요 있어야지요. 제각기 직장이 있어 벌어들이거든요. 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지만 낮에 우두커니 집에 있기가 싫어 취미로 이렇게 관광 사업을 하지요. 셋째 사람은 헤어지자고 해도 영 말을 안 들어 요새는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만.”

남자가 부족한 이 나라에서는 반강제를 해가며 남자와 사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이다. 이들 멕시코 여인들은 대부분 키가 작달막하고 몸집이 뚱뚱하여 힘이 무척 세어 보인다.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데 힘이 어찌나 센지 그 목소리는 듣는 이의 귀를 뚫는 것 같다. 스페인 다음으로 대중화했다는 투우 시험에 가보면 피둥피둥하던 소가 투우사의 칼에 수없이 찢려 전신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꽃다발을 던지며 날뛰는 것은 모두 여자들이다. 어떠한 전통에서 온 것인지는 모르나 끔찍스런 장면엔 남자이면서도 눈을 가리고

싶은 마당에 신이 나며 흥분하는 이 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정열적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좀 빗나가는 이야기지만 매일 아침 그 털털이 캐딜락을 호텔 앞에 대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그 운전수가 사흘이 지난날 하루 종일 보이지 않기에 동업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폐병이 재발하여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며 펍 걱정하는 빛이었다.

× ×

우리 민족과 같이 몽고족에 속한다는 황색 인디언과 아프리카 주에서 수입해간 흑인과,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 유럽 백인이 혼합되어 이루어 놓은 중남미 여러 나라 국민에게 공통되는 점은 정열적이라는 것이다. 정열을 빼놓고는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정열은 지난날에 있어서는 주로 낭만과 무사주의적인 화평에 쏟아졌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거나 구미(歐美) 대자본의 침투로 자기들 노동력이 착취당하거나 아랑곳없었다. 멕시코 사람들은 투우에만 열중했고, 남쪽 끝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탱고 음악에만 도취 되었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후 세계를 휩쓴 풍조는 이들이 그러한 낭만과 무사주의에서 깨어나 경제적인 자립과 건설을 부르짖는 국민이 되어 버렸다. 그들의 정열은 이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된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나사못 하나까지도 외국에서 사들이던 멕시코는 외국인이 지어 놓고 천년성을 이룬 듯이 독점해온 수만 킬로의 발전, 배전사업을 돌던 그들 손에서 빼앗아 자기네 손으로 움직이도록 했고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손에 들었던 산업권을 거의 자기네 국민 손으로 넘어오게 했다. 남의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점에서는 좀 과격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나 자기의 독립, 자기의 살길을 찾기 위해서는 딴 길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오히려 동정하는 국제 사조 앞에 누구도 큰 반발을 못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벌써 이들은 굉장한 발전을 해놓았다. 브라질은 구미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는 대규모의 신흥 수도 브라질리아 시를 불과 4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위에 세워 놓았다. 세계 유수의 석유의 나라이면서도 늘 거지 나라라고 손가락질 받던 베네수엘라라 불과 5년 사이에 남미 제일가는 공업국으로 발전했다.

남미의 정열이 발전하려는데 집중되었을 때 이렇게 무서운 힘으로 변한 것이다. 이 정열이 또다시 그 옛날 낭만과 무사화평주의로 돌아가지 않는 한 남미는 아마도 세계를 좌우할 힘의 땅으로 변모해갈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느껴지는 바다.

〈필자·한국일보 기자〉

**격언**

- ☆성공하는 사람은 송곳같이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비>
- ☆우수하다고 불리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력의 소유자를 말한다. <에머슨>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정세와 한국의 위치**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김영철(金永哲)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라고 할 만치 이 해에 무려 17개의 독립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탄생하였다. 한 해에 그렇게도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얻은 때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들은 세계의 주시 속에 수 세기 동안의 뼈에 사무치는 쓰라린 식민지로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등장하였다. 과거 이들의 요구와 자유에의 의침은 한낱 부질없는 검둥이의 불평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오늘날 그들의 의침은 마치 지진과도 같이 워싱턴, 런던, 파리, 모스크바 등지에까지 울리게 되었다.

1960년 서아프리카에 있어서의 독립선풍과 그들의 UN 가입은 UN 내의 세력 분포에 대한 일대 변혁을 초래하였으며 아프리카 신생 제국의 진출로 인한 강력한 아이(阿亞)블록의 대두는 마침내 동서 양측으로 하여금 그들의 대(對) UN 정책의 재조정을 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민주·공산 양 진영으로 갈라진 세계에 있어서 아프리카 제국이 어느 편에 가담하느냐에 따라 동서 세력 균형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신생 국가군의 국제사회로의 진출이

대한민국에게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책 수립은 분명히 혁명정부에게 부여된 중대한 과업의 하나라고 보겠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세계에서 한국이 처한 입장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한 국가가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면 한 국가가 그의 진로에 있어서 세계 역사의 흐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현세에 이르러 더욱 더 현저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그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아마도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세계에 있어서 한국이 놓인 위치는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이 나라가 동서 냉전의 전장으로서 등장하게 되자 더욱더 국제정세의 추세와 세계 여론에 의하여 그의 운명이 좌우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말엽까지만 하여도 물론 1894년에서 1895년까지의 청일전쟁, 그리고 1904년에서 1905년까지의 러일전쟁의 당사국들이 한국의 궁극적 지배를 위하여 싸운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나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한국이 국제정세의 추세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졌던 때는 없다. 특히 1950년에 발발된 한국전쟁은 세계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치에 대한 일대 전환점이 되었었다.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더욱더 클로즈업되었으며 세계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한국의 장래를 결정함에 있어 이것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즉 동서 양 대국의 합의 내지는 타협이 도리어 문제 해결에 보다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이렇듯 한국이 세계에서 처한 입장으로 미루어보아 한국의 외교는 한국에게 유리한 국제정세와 세계 여론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과거 10여 년간의 우리나라의 외교는 고립 외교로 일관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위험한 처사이었던가! 유명한 영국의 세계적 역사가인 토인비 교수가 말하기를 “한 국가가 역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 그 국가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며 그러나 만일 한 국가가 역사적 변천에 역행 내지는 은퇴적(隱退的)으로 대할 때 마침내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파묻혀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만일 고립 외교가 계속되었던들 우리는 토인비가 말한 후자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한국이 세계정세의 추세와 세계 여론에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중립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다수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의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우리는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들의 진출로 말미암아 생겨질 가능한 결과를 사전에 생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아프리카의 신생 제국은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를뿐더러 그들의 외교정책에 있어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공산도당들이 결과적으로 한국 전체를 적색화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한국의 문제는 한국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 또는 “남북한에서의 외국 군대의 동시 철수 후의 남북 총선거의 실시”라든가 “남북 협상”이라는 등등의 제안을 쉽게 찬성할 가능성을 이들이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만일 UN 내에서 이들이 공산도배(共產徒輩) 또는 중립 국가군과 한국 문제에 대하여 동조를 한다면 이는 국제정세의 추세와 세계 여론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아프리카의 신생 제국이 UN에서 가지고 있는 한 표는 미국이나 소련의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과 정상적 국교 관계를 수립하고 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자는 진의가 있다고 본다. 만일 한국이 양단(兩斷)되지 않았던들 이에 대한 필요성이 이처럼 시급히 요청되지는 않았을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인의 지상(至上)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국토 통일에 있으며 이것 없이는 사실상 한국의 발전이라든가 번영이란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다. 국토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 자체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강이 필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이것만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으며 위에서 약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정세와 세계 여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 외교의 진로는 바로 이와 같은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견지(見地)에서 볼진대 특히 아프리카의 여러 신생 국가에게 우리들의 주장을 설명하고 납득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업인 것이다.

그러면 고립 외교를 지양하고 적극 외교를 펴야 하는 혁명정부는 어떠한 대(對阿) 정책을 취하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하여 몇 가지 필자의 졸론(拙論)을 적어보기로 하겠다. 먼저 혁명정부가 지난여름 아프리카로 파견한 친선 사절단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일보(第一步)를 내디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모릅으로 인한

오해와 실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제국이 한국을 잘 모르듯이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그리 많지 못함이 사실이다. 가령 어떤 아프리카의 정치가는 한국의 38도선이 마치 백인이 아프리카에 와서 통치의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경계선같이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은 한국 전쟁을 마치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상위(相違)한 부족 간의 투쟁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들에 대한 지식을 더하고 또한 그들에게 한국을 올바르게 소개하고 이해케 하는 사명을 띤 친선 사절단의 파견은 한국과 이들과의 우의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UN 내외에서 그들이 우리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제2단계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 국교 관계를 수립하며 그곳에 우리 공관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나라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더군다나 후진국에 공관을 설치할 필요가 나변(那邊)에 있겠는가고 반대할 인사가 있을지 모르나 만일 있다면 이는 분명히 근시안적 견해이며 세계에 있어서의 한국이 처한 입장을 잘 모르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왜 그곳에 공관을 설치하여야 하느냐 하면 다른 여러 이유를 제쳐놓고 단 한 가지 북괴(北傀)의 아프리카 침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제국은 아직 얼마든지 공산 마수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가 급년 2월 서아프리카의 신생 제국을 순방하였을 때 특히 양단(兩斷)된 나라들 서독·베트남·중화민국 등이 이미 많은 수의 공관을 설치하였음을 보았다. 가령 중화민국은 1960년 1년 사이에 10개 이상의 공관을 아프리카의 신생 제국에 설치하였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동독·북베트남 중공의 침투를 사전에 막고 아프리카 제국의 협조를 얻자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북괴가 중공이나 동독의 그들보다 덜 교활할까? 만일 북괴가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 우리보다 앞선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북괴의 진출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서 우리 공관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만의 이익을 떠나 대국적(大局的)인 견지에서 볼 때 자유진영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도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중요한 것이다. 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의 오랜 식민지로서의 쓰라린 경험으로 인하여 백인에게 대하여는 심리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백인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중공인은 같은

유색 인종이며 백인의 지배를 받던 피압박 민족이라는 것을 내세워 대량 아프리카에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중공의 진출을 제지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단계로서는 활발한 민간 외교의 전개이다. 국가 간의 공식적 관계 외에 국민 대 국민의 우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문화인·언론인·교수 및 학생 또는 기술자 등의 교환을 통하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책자의 발간 및 배포가 또한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경향으로 본다면 한국소개를 목적으로 외국에 보내지는 책자의 대부분은 영어로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위한 것으로는 영·프양국어(兩國語)로 된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제4단계로는 UN에서의 우리 대표국의 활발한 대아(對阿)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도 국제무대에서 숙달하지 못한 아프리카의 외교관들이 공산도당(共產徒黨)들 또는 그들에게 사주된 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간계에 대비하여 아프리카 외교관들에게 우리의 주장과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그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혁명정부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고립 외교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함에 있어 이것의 일환으로서 대아 정책도 과감하여야 할 것임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에는 세계가 마치 두 나라만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았으나 요즘은 대소 맹방(盟邦) 간의 〈상호 의존〉사상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과거와 같은 미국 일변도 외교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을 경원하여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가령 미국을 설득시키기 위하여는 직접적으로 그 나라와 접촉하는 것도 좋을 것이나 또한 미국의 신임을 받는 맹방(盟邦)을 움직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함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대아 정책에 있어서도 동칭(同稱)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아프리카의 신생 제국이 비록 정치적 독립을 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수 세기간 지배를 받아오던 서구 국가들의 영향을 하루아침에 씻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아직도 경제적 또는 기술적면에 있어서는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현금(現今)에 이르러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아 교섭에 있어서도 서구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이(利)를 가져오리라고 믿는 바이다.

〈필자·전(前) 연대정법대학 강사〉

〈아프리카 지역〉

### 검은 대륙의 각성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조의설(趙義高)



지도자 문제는 아프리카에서만 아니고 특히 후진국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라이베리아와 가나는 훨씬 전에 독립하였지만 그 밖의 대부분의 나라는 독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으며 어떤 나라는 몇 달 밖에 되지 않은 나라도 있다. 그야말로 신흥 국가들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지식수준은 매우 뒤떨어져있다.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에서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현재 그들은 우수한 엘리트층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선의의 독재자가 되기도 한다. 지도자는 혹은 국토건설, 지하자원 개발에 필요한 자금 기술 도입에 자주적 입장 혹은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혹은 프랑스 공동체를 탈퇴하여 독립은 되었으나 빈궁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프랑스의 원조를 안 받는다면 그 대신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으로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를 도와주는 나라가 우방이라.”는 의사에서 공산진영이건, 민주진영이건 가리지 않는다. 지나친 평인지는 모르지만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위 권모술수를 쓰는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을 평해서 말하기를 “흑인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을 멸시하는 데에서이고 원래 정치인의 말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듯이 흑인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세계 정치인의 언동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반식민주의 운동으로 살해도 투옥도 많은 학대를 겪어가면서 민족운동을 일으켜 아프리카인으로 구성된 정치단체도 원주민권 보호운동도 생겼고 민족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청년운동도 활발히 일어났다.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이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비약적으로 발전 되었다. 1차 대전에 참가한 아프리카 병사가 20만 명이던 것이 2차 대전에는 50만이 참가하였다. 민족 독립운동의 원인을 따져보면 전쟁 중에 프랑스·벨기에 등 본토는 독일군에게 점령되어 식민지와는 연락은 두절되어 식민주의 국가의 발언권은 대폭 줄어들고 식민지의 발언이 세졌다는 것, 아시아에서도 서유럽의 식민지가 많이 독립 되었다는 것, 유엔이 생겼다는 것들이 원인이 되어 민족 독립운동이 발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례를 든다면 1944년 나이지리아, 카메룬에는 국민회의가 또한 케냐·아프리카인 동맹이, 1946년 프랑스령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민주 동맹, 1947년 골드코스트 통일 회의가 결성되었는데 뒤이어 유력한 민족주의 정당단체가 일어났다.

과거에는 정당 단체가 소수로 조직되었던 것이 2차 대전 뒤에는 대중의 사회 조직으로 되어 전 민족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되었다. 종래와 같은 단일의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를 포섭한 연합체이었다. 1945년 나이지리아·카메룬 국민회의의 규약에 의하면 부족협회, 노동조합, 직업단체, 사교문화단체도 국민회의의 멤버로 되어 있다. 이때 약 180이나 되는 단체가 이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자치에 있으나 결코 완전 독립은 그 다음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프랑스 민중과 아프리카 민중의 자유 결합을 이상으로 하고 자기네의 일은 자기네가 처리할 권리와 장차 본국과의 관계를 자기네의 의사로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매(非賣) 운동, 파업, 데모, 불복종 운동 등의 수단을 취하였다. 1937년 골드코스트에서 코코아 공출 거부 운동 같은 것은 부족장의 지도로 터진 것인데 이런 운동이 점점 전 문화 하여 갔던 것이다.

자치 운동은 민족주의 정당 단체의 지도로 실현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백인이 많이 살지 않는 서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전되었지만 동·남아프리카에서는 특히 백인 정주자가 다수인 케냐, 남북 로데시아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 1912년 남아프리카에서는 인도의 간디의 영향으로 남아프리카·아프리카인 국민회의가 결성되었으나 백인 측에서의 인종 차별의 정책을 막아 내기에 여념이 없을 정도이다. 동아프리카의 케냐, 로데시아 그 밖의 여러 지역에서도 자치와 독립의 전취(戰取)가 눈앞의 일로 보이고 있다. 어쨌든 최근 아프리카의 변동은 격세지감 정도가 아니다.

다음에 아프리카의 지도자 몇을 들어 실정을 파악하기로 한다. 우선 코트디부아르 공화국 대통령 텔렉스 우페 부아니 씨를 든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의 연령의 대부분이 30대, 40대 층인데 금년이 55세로서 늙은 층에 들고 있으나 그는 과거에 민족 독립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하여왔고 지금도 그의 정치력, 그리고 그의 야심을 보면 금후 흑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박력은 결코 젊은

세대에 뒤지키켜닝 앞장을 서서 나가고 있다. 그는 1905년 10월 18일 상아해안에 이쿠에족의 수장가문의 출생으로 그의 부모가 그보다 일찍 난 자식들이 죽는다고 해서 악마가 싫어하는 아프리카말로 우페란 말을 덧붙였는데 이 뜻인 즉 변기라는 것이다. 그는 세네갈의 다카의과대학을 마치고 의사를 지원하여 20세부터 2차 대전 당시까지 의사의 조수로 있었으나 흑인인 까닭에 의사 취급을 못 받았고 여기에서 식민주의에 의한 흑인의 비애를 느꼈다고 한다.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은 1940년부터이며 그 뒤 농민조직에 열렬한 운동을 전개하였고 자신이 농민조합장이 되기도 하였고 1946년부터는 프랑스 국민의회 의원으로 계속하여 당선되었고 드 골 내각에 입각하여 적지 않은 활약도 하였다. 그는 한때 반불운동자로 또는 공산당과의 관계도 깊었다. 1950년경부터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전향하여 대불협력자로 자처하고 점진적으로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그를 칭찬하는 이는 현실주의자라고 하고 그를 욕하는 이는 기회주의자라고 한다. 그의 전향에는 아프리카의 지도권 쟁탈이라는 데에 의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상아해안 부르키나파소, 니제, 베냉 간에 협상회의를 결성하고 심중의 연방적인 공동체안을 일축하고 독립을 목표로 하였다. 그는 판아프리카니즘을 부르짖으며 현재 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드 골 정책에는 적극 협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페 부아니 대통령과 반대의 입장을 취한 이가 기니 대통령 세크 투레 씨이다. 그는 1922년 이슬람교도 빈농가에 태어나 겨우 소학교를 졸업한 뒤 15세에 파업에 참가하여 실직한 이래 노동운동에 전력을 다하였다. 1946년 반식민주의를 표방하고 기니민주당을 결성하였고 프랑스 경찰에 붙잡혀 감옥살이도 하였다. 수도 코나크리 시장에도 당선되었다. 그동안 흑인 아프리카 노동총동맹을 결성하여 서아프리카 제일의 노동운동의 지도자로 되어 이제부터 그의 정치운동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기니 대통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오늘의 투레 대통령의 정책 및 대외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기니 독립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즉 1958년 8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둘러싸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반대투표로 프랑스 공동체에서 떠나 완전 독립의 길을 취하였고 이 길을 택한 것은 아프리카의 프랑스령 중에서는 기니뿐이다. 이때 노기(怒氣)의 드 골 대통령은 7백만 폰드에 해당되는 연간 원조액을 즉시 정지하였다. 미국 측으로서는 원조하여 줄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프랑스와의 감정을 생각하여 별로 손을 대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제 기니는 어디로 가나? 기니는 사경에 빠졌다. 프랑스는 감정에서 기니를 포기하였고 미국은 체면에서 기니를 포기하였다. 이틈에 중공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세력이 1960년부터 적극적으로 침투하여 우호협정, 경제협정 등을 맺고 있다. 소위 전기적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제국에 어떠한 피상적인 문제로 자유진영국이 그 나라를 포기한다면 그 뒤에 따르는 길이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매장량이 5억 톤이라는 보크사이트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시적인 경제가 기니에서 그냥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상당한 액의 입초(入超)를 가져오고 있다. 1958년에는 1천만 달러, 59년 1월까지 8개월간의 입초가 2천 5백만 달러로 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서구와 미국은 대(對) 기니 정책에 과감한 수정안을 세워 보다 더 양자 간에 접근이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황금해안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가나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앙크루마 대통령을 든다. 이 나라는 서아프리카 제국 중에서 가장 일찍부터 유럽문화와 접촉한 나라의 하나이었던 만큼 민족운동이 일어났다. 앙크루마 대통령은 52세로 골드코스트 서단(西端) 해안 한 촌락에서 출생하여 미국의 링컨, 펜실베이니아 두 대학을 마치고 영국의 런던경제대학에서 수학하고 철학박사의 학위를 얻었다. 그는 정열의 인간으로 지성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용변으로도 능히 대중을 압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가나에서는 돈, 우표는 물론이고 신문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그의 초상사진이 범람하고 있다. 교명(校名)에도 그의 이름이 붙어있을 정도로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다. 야당 측에서 무슨 비판을 하면 반역자라는 낙인을 찍고 법적인 수속도 필요 없이 감옥에 가둔다.

그는 아프리카 합중국을 꿈꾸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도층에서 빼낼 수 없는 유명한 존재로 되어 있다. 영(英) 연방에서 탈퇴하여 독립을 지지하고 있거나와 기니와 같은 정세에서 최근에 와서는 소련 측과 결탁하고 자원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는 작년 유엔 제15차 총회에서 “아프리카에 냉전을 가져오지 말라”고 외쳐 당사국 대표의 얼굴을 뜨겁게 하였다 하고 하거나와 이리면서 자기 자신은 소련 측과 경제협정과 우호협정을 맺고 있으니 냉전의 아프리카 도인(導人)은 그 책임소재를 어디에 두어야 될런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해방이란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가져오는데서 그 진정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아프리카가 금후 경제면에 있어 많은 장애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아프리카의 빈곤이 극복될 것이다. 1957년 통계에 의하여 1인당 연소득액을 보면, 미국이 1,460불, 일본이 249불, 콩고가 69불, 케냐가 76불이라고 하며 흑인과 유럽인과의 급료의 차를 보면 콩고에서는 60배, 중앙연방에서는 40배, 케냐(현재 영령(英領))에서는 33배라고 하며 흑인에게는 동전을 주고 백인에게는 은전을 준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지하자원을 전세계 생산량에 비하여 보면 다이아몬드는 90%, 코발트는 61%, 금은 47%(소련 제외), 라듐은 세계생산의 거의 전부를 콩고와 카탕카주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사하라 사막의 석유 생산은 프·미 합작으로 채굴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아프리카 제국에서는 경제건설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문제는 자금과 기술은 불가불 해외에서의 원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의 산업 구조는 단일 재배 단일 산업 즉 모노컬처로 되어 있다. 애급과 수단, 케냐, 가나, 코코아, 코트디부아르는 목재, 카메룬은 커피, 차드는 유류, 라이베리아는 고무, 콩고와 남아(南亞)는 동, 모리셔스와 말라카시는 사탕, 에티오피아는 커피 등 이러한 방법으로 산업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국제적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병적으로 그 반응이 크다. 그러므로 이 불안정을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농업과 광업의 편중에서 공업화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별로 경제면과 결부시켜 본다면 농촌이 90% 이상, 도시 인구가 1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과거 4세기 동안의 통계를 보더라도 인구의 도시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 아프리카 경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 자본의 발달이 제로로 되어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경제 건설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키아벨리적 방법으로도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소위 중립주의로 툭 튀어 나오게 된다. 그들은 미국의 자본을 환영한다. 더구나 미국은 영·프처럼 식민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데서 그러하다. 또한 미국은 석유와 광물 자원 개발에 전력하여 특히 민간 자본이 많이 침투되고 있으며 한편 소련과는 차관 형성을 통하여 막대한 원조액이 아프리카에 들어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려할 때 단순히 아프리카 제국이 유엔에 가입하여 한 표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이거니와 경제면에서 볼 때에도 최근 세계사의 초점은 아프리카에 집중되고 있다.

☆증자(曾子)와 자하(子夏)

자하가 와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증자가 문병을 갔더니 자하가 하는 말이 “잘 오셨요. 감사하외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나마 성현의 공부를 했고 공자(孔子)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그 거룩하신 뜻을 세상에 펴보려고 애썼을 따름이고 별로 지은 죄란 없는데 이렇게 자식을 죽이고 또 눈까지 어두워지니 이것이 다 천명이기는 하나 세상이 원망스럽소이다.”하면서 탄식했다. 이 말을 들은 증자는 “그 무슨 말씀이요? 죄가 없다니. 노형이 마치 공자님 못지않은 성현처럼 자처한 것이 그 첫째의 죄이고, 또 노형의 선친이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집상(執喪) (상주 노릇 하는 것)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노형을 본뜰만한 효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그 둘째의 죄이고, 또 그 상중에는 병이 나지 않던 것이 아들이 죽고는 눈이 어두워진 병이 생겼으니 노형이 얼마나 선친보다 아들을 더 아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어찌 큰 죄가 아니요?”

이 말을 들은 자하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고 무안스런 듯이 “과연 그러하외다.

이런 시골에서 철없는 제자들만 상대하고 있노라니 사람됨이 이렇게 되었는데 가 하오. 모쪼록 이후에도 친구로서 버리지 말고 자주 이렇게 충고해 주시기 바라오.”하면서 자기의 수양부족을 사과하였다.

동서일화

특집 · 세계 후진 지역의 움직임

한국 교육의 당면 과제

홍웅선(洪雄善)



혁명정부의 문교정책으로 표방한 1. 간접 침략 분쇄 2. 인간 개조 3. 빈곤 타파 4. 문화혁신의 사대 실천 방안은 그대로 한국 교육이 당면한 긴급하고도 근본적인 과제로 혁명문교는 오늘의 이 역사적인 단계에 처하여 민족의 숙원인 국토 통일과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방면에 걸친 오늘의 후진성의 극복으로 민족의 항구적인 내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 데 교육의 지표를 두고 혁명문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이에 집약 실천함으로써 혁명과업 완수에 기여하고자 함은 철향(贅言)을 요(要)치 않는 바이다.

혁명문교는 역사적 단계에 처하여 문교활동을 효과적으로 재조직 개편하였고, 인사를 쇄신하여 사도(師道)의 양양(昂揚)과 혁명기풍을 조장하였고, 입학 시험제도의 개선과 학사 자격의 국가고시 실시로 교육에 지역적인 균형과 질적 정화를 기하고 있고, 대학의 정비 강화로 학원의 기업화를 방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촉구하여 명실 공히 사회에 유용한 인물을 양성하여 국가 재건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 다름 아닌 혁명문교의 당면 과제인 것이다.

혁명문교의 교육 활동을 기능에 따라 유별(類別)하면 교육의 내용 지도를 위한 활동과 학교의 설폐(設廢) 및 학생 정원, 재정 등의 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대별(大別)되는데 전자는 지육(知育) 중심의 주입식 교육과 일부 과목에 편중된 입시 준비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정상화로 전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 개조와 빈곤 타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혼을 함양 고취하는 교육 내용의 지도적 활동으로 요약될 것이며 후자는 교육 계획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교 시설, 학생 정원, 학교 재정 등에 걸쳐 우리의 사회 구조 및 산업 구조 나아가 장차 전개될 경제 5개년 계획에 부응하는 합목적 교육의 관리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나라의 교육이 국민의 인격만을 도야(陶冶)하고 전인(全人) 지도에 무능하며

등한하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의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목적에 배치되는 현상으로 막대한 경비와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한 결과가 교육무용론으로 결론지어 진다면 이는 민족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중대한 적신호라 아니 할 수 없다.

혁명정부는 지난날의 교육이 지육(知育) 편중의 주입식 교육으로 흘러 고등 교육을 받은 자일수록 실제 생활에 무능하고 불건전한 사회 기생층적 생활을 영위하는 경향이 깊어가는 실정에 착안하여, 교육 개혁으로 이와 같은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道義)와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일이 현하(現下)의 당면 과제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따라서 혁명정부의 입학시험 제도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을 지역적으로 제한하여 종래, 매년 입학기만 되면 지방학교 학생의 살입적인 도시 집중으로 야기되는 각종의 인습적인 폐단을 일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지방학교 학생의 도시 집중은 도시 특정학교의 시험지육을 연출해서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나아가 권력과 금력(金力)을 충동원한 입학의 부정을 강요하여 필연적으로 학원의 부패를 조장하였음은 물론 심지어는 일부 몰지각한 학원 모리배의 도량(道梁) 등 실로 이러한 학원의 구악은 우리나라 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 고질로서 입학시험 제도의 획기적이고 과감한 개선 없이는 교육 부패의 구제의 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혁명정부는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 입시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각급 학교 입학에 관한 필답고시는 국가 공동 출제에 의하도록 함으로 교육내용의 정상화를 기하려 하였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의 진학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별로 지역을 제한함으로 일부 특정 도시에서의 집중을 방지하였고 대학은 입학 자격의 국가고시제를 규정함으로써 엄격한 정원제와 질적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학생의 명실부합한 지도자적 능력의 보장과 아울러 정부가 매년 방출하는 농어촌 영농자금의 도시 집중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농어촌의 병폐를 최소한도로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 수를 약 145,000명으로 보고 대학생 1인당 연간 40만 원의 학비를 소비한다고 하면 총액 약 580억 원이 되는 셈인데 한국의 농민을 전인구의 70%로 보고 대학생의 농촌 출신을 50%로 잡는다면 무려 농민의 돈 290억 원이 대학을 중심으로 도시에 집중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매년 영농자금으로 300억 원을 살포한다고 해도 그것은 직접 간접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도시에 전입되는 결과가 되어 이것을 막지 않는 한 농촌의 부흥이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는 농촌 출신의 중, 고등학생의 도시 유학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명기하여 둔다. 그러므로 혁명문교가 지향하는 빈곤 타파와 인간 개조 및 농촌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종전의 입학시험 제도의 과감한 개혁은 극히 당연하고 시의에 알맞은 시책이라 할 수 있다.

학사 자격 국가고시도 종전의 대학생 수의 무질서한 양적 팽창에서 연유되는 당연한 귀결인 학사 자격의 질적 저하를 구제하는 비상조치로 서기 1962학년도 졸업생부터 학사 자격 국가고시

제를 적용함으로써 유위유능한 국민 지도자를 사회에 배출하여 국가 재건에 직접 간접으로 역군이 되게 하자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기 1952년 이래 과가(果加)된 90,000여 명의 고등유민의 배출을 이 이상 더 계속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 불안을 그만큼 조장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이들 대학졸업생의 사회적 수요에 의한 양성 계획과 질적 구체 없이는 중대하는 사회 불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이며 따라서 효과적인 사대 문교정책의 구현으로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관건은 무질서하게 팽창한 대학생 수의 현실적인 조정과 실제 사회 수요에 적응하는 능력의 배양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현안의 대학 정비도 이와 같은 일련의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방책으로 이 문제는 사실상 자유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온 속세로 당시에 있어서는 정부의 무능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혁명문교가 국가와 민족의 시대적인 요청에 의하여 착수를 단행한데 불과하다.

따라서 이 대학 정비는 어떠한 논거에서 사고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에선 물론 국가 재건의 종합적인 계획, 즉 우리의 현재 사회 구조 및 산업 구조 나아가 서기 1962년부터 전개되는 경제 5개년 계획 수행에 요청되는 과학적인 인원 수급 계획과 우리나라 산업 인구의 자연 교체 등 극히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인원 소요(所要) 수치를 토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 이념 위에서 대학생 수를 조정하고 명실상부한 사회적 정예 분자를 배출하여 무위무능한 사회의 고등유민이 아니고 유위유능한 국가 재건의 중추적 전위역군을 양성하자는 시책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대학 정비의 효과적인 단행은 곧 해마다 살포하는 막대한 영농자금의 도시집중화를 방지하는 결과가 되어 농어촌의 진흥을 측면으로 보조하여 후진의 근원인 농어촌 사회의 현대화 가능의 증대도 바랄 수 있다는 대학 정비의 국가적 요청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끝으로 교육내용에 관한 것으로 혁명문교의 종합적이고 최종의 과제인 문화 혁명과 인간 개조의 실질적인 토대가 되는 교육과정의 개편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의 일을 고조하여 견고한 주체성과 풍부한 개성의 다양적인 발양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교육과정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한 국가, 한 사회 또는 한 학교의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곧 교육과정 조직의 우열에 있다고 할 정도로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 활동의 지침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5·16혁명이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하며 또한 바람직한 우리의 사회상, 인간상, 그리고 재건하여야 할 종합적인 국가상 등 실로 국민 하나하나의 행동거지의 도덕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시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또는 한 국가로서 현대세계에서 대열을 같이 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에 처하여 이 무겁고 중대한 민족의 역사적 사명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

## 특 집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주는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이야말로 혁명과정 완수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한 국가, 한 사회의 교육이 시대정신을 포착하지 못하고 그 민족의 주체성을 상실한다고 하면 이는 국가의 발전과 민족 보존에 위기를 조장하는 실로 국가와 사회의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목적에 역행하는 중대한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교육을 받음으로 실생활에 무능하고 나태하다면 물론 전부는 안 그렇다 하지만 과거의 교육이 사실상 많은 고등유민을 사회에 배출했고 또 결과적으로 놓여준의 피해를 가져와 빈곤의

극복이 아니라 빈곤을 증대 조장하였으며 숭고한 민족정기와 민족의 얼을 퇴색 약화하는 결과가 은연중에 조성되어 왔다는 일면을 부인할 수 없을진대 우리는 국가 재건의 기본 토대의 구축으로서 교육과정 개혁의 선결을 통감하고 혁명문교는 현행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명백하고 투철한 혁명 의욕을 함양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道義)와 민족정기를 다시 세우는 새 교육과정의 힘과 얼의 역동적인 새 인간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국제민의 재건교육이어야 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건의 역군으로 실천에 능하고 활동에 용감한 힘과 얼의 인간상은 다름 아닌 혁명문교의 최종 목표인 인간 개조에 직결되는 활동으로 새 교육과정은 이 점에 투철 과감하여야 함은 채언을 요치 않는 바이다.

5·16혁명 과업 완수에 교육이 담당하는 분야는 실로 근본적이고 중대하며 전술한 사대 문교정책은 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강렬한 혁명 의욕을 뒷받침하는 현실적이고도 궁극적인 재건교육의 방향을 시사하는 중대한 당면 과제라 하겠다.

초명문교는 상술(上述)한 당면 과업 완수에 총력을 기울여 획기적인 실적을 올렸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 장래 진전의 성과가 클 때 기대되는 바 있어 모두 혁명 과업 수행에 막중한 기여는 물론 민족 백년대계의 초석으로서 교육 재건에 빛나는 성과가 불원재래(不遠齋來)할 것을 확신한다.

〈필자·문교부 학무국장〉

### 격언

- ☆인간의 존중없이 올바른 인사관리란 있을 수 없다.
- ☆범인(凡人)에게 범인(凡人) 이상의 것을 시키는 것이 조직이다. 〈메라 댛지 경〉
- ☆씩어가는 생선은 머리부터 냄새가 난다. 〈터키 격언〉
- ☆사업이란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혁하고 혁신하는 창조적 행위다. 〈드락카〉
- ☆인간이 인간세계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장 자크 루소〉

# 공산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구조  
공산주의 국가의 권력 구조

민주주의 경제 체제와 개인의 지위  
공산주의 경제 체제와 개인의 지위

민주주의 세계관에 대하여  
공산치하의 예술 활동에 대하여

##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구조

김운태(金雲泰)



무릇 조직된 권력 관계는 권력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피라미드적 구성을 이룬다. 이것을 권력 참여에 대한 관심 및 정도에 따라 대별(大別)한다면 (ㄱ)중추 지도부(협의의 권력 핵심-Machtkern) (ㄴ)지도부를 둘러싸고 그것을 직접 보좌하는 행정 막료(Verwaltungsstab) (ㄷ)일상적인 조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적극적 지지자 (ㄹ)비일상적으로만 예컨대 1년 1회의 정당대회의 출석이나 종종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 등 권력에 참여하는 중립자와 무관심한 대중, 그리고 (ㅁ)정치 권력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반항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 구분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화석화할수록 조직 기능은 마비되는 것이다.

중추 지도부는 권력 기구의 운동기의 작용을 하는 가장 능동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중추 지도부와 행정 막료 또는 장치를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은 것이며 국가에 따라 그 구분은 상이한 양상을 정시(明示)하는 것이다. 가령 양대 정당 수립의 영국형 헌제 하에서는 권력의 핵심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보수당 수뇌부와 노동당 중추부의 2개의 핵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제3,4공화국시대에서 보다시피 빈번히 내각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정치가 어쨌든 일관하여 운영되어 온 것은 관료제가 엄존하는데 기인함으로 행정 막료 또는

장치의 상층부가 권력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권력의 핵심은 군부에 이행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2차 대전 후의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무릇 민주국가의 권력 구조에 있어 중추 지도부는 국민의 신임을 토대로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임되는데 본질적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독재국가가 일당 독재인데 반하여 민주국가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상호 경합하여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행정 막료 또는 장치는 중추 지도부를 둘러싸고 그 지도를 가능케 하는 장치로서 관료, 회의, 군부, 교육, 각종 사회집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현대의 소위 행정국가에서는 관료는 방대한 행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강대한 권력 장치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제2차 대전 후의 국제정세는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군대조직을 포함하여 관료제는 일단 성립하면 다른 모든 조직에 비하여 정확 신속 전문화, 문서 등에 관한 정통 지속성 기밀 보지(保持) 통일성, 엄격한 종속 마찰의 감소 능력과 질약 등의 제점(諸點)에서 단연 월등하므로 영속적 성질을 획득하고 가장 견고한 철벽같은 사회 형상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관료제는 단순히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를 관철할 필요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 계획과 행동 통일을 위한 합동적 의식적 활동을 하는데 불가결한 권력 장치이다. 이리하여 관료제는 행정 장치에 그치지 않고 중추 지도부에까지 침투하고 있음은 대륙형의 소위 관료 제국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영·미 등 민주주의 제국(諸國)에 있어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 행정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비추어 볼 때 대통령, 국회 등은 모두 소인(素人)들이다. 따라서 관료제는 본래 권력 장치로서 요청되고 형성된 것이지만 어느새 중추 지도부를 수중에 집어넣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행정 막료는 대체로 직업공무원제의 토대에서 형성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독재국가의 행정 막료는 독재자 또는 독재정당의 정치적 자의에 의하여 임면(任免)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지자는 일상적인 조직 활동에 종사하고 호의를 갖고 있는 적극적 지지자 층으로서 어느 의미에서 지도 역할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정치적 사병들이다. 이들은 명예 충에 금전을 받아가면서 지도부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그들 중에서 유력한 지도자가 배양되어 출현한다. 그라지아(Grazia)에 의하면 미국의 각주에는 수백 명의 적극적 지지자(소위 Politist)가 있고 워싱턴에 만 근 2,500명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관리나 여당원으로서 전체 인구 비율로 보아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니다. 인구 비율에 있어 미국의 2배가 된다는 소련에서도 23대1 정도라고 한다.(A.D.Grazia, The Elements of Political Science 152 pp.90-92)

일반적으로 적극적 지지자와 적극적 반항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지지자도 아니고 반항자도 아닌 호의적 중립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그밖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지지 또는 반항의 동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체로 다만 개인의 개성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선동가형의 개성의 소유자는 모든 정치권력에 대한 만년 야당적 반항자가 되기 쉽고, 이와 반대로 행정가형의 개성의 소유자는 만년 여당형으로서 그때그때의 권력의 지지자가 되기 쉽다. 엄격하고 완고한 가정의 엄친(嚴親) 슬하에서 자라난 소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Complex)형의 개성 소유자 중에는 권력에 대한 반항자 또는 혁명가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지지자도 반항자도 현재 정치권력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고정적 이므로 설득은 물론, 강제 등의 수단에 의하여 영향되는 일이 적다. 물론 정치적 전향과 같이 적극적으로 열렬한 반항자가 돌연히 열광적인 지지자가 되는 예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지와 반항의 열광도는 강직한 성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향자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흐르기 쉬운 것이다.

다음 비밀상적으로만 권력에 참여하는 중립자와 무관심 대중은 극히 그 수가 많고 대부분의 권력 각체는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립자라 하더라도 호의적 중립자와 지지자 또는 적성적(敵性的) 중립자와 반항자 간의 경계는 매우 활동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중립자는 대체로 지지자나 반대자보다도 연약한 성격의 소유자이므로 그들의 호의 또는 적성적(敵性的) 태도도 후자보다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무관심 대중은 그 수가 매우 많으며 여론 조사 등에서 모른다고 대답하는 소위 DK집단(Dont know group)이 이에 속한다. 착잡한 사회 양상에 따라 상위(相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남성보다도, 여성 측이 교육 정도가 높은 사람들보다도 낮은 사람들이, 청장년보다도 기성 노년 세대가, 도시 주민보다도 농촌 주민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보선제(普選制)에 의한 대의기구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현대 정치에 있어서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 대중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 문제 해결을 무책임한 정계의 거물들에게 일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 정치를 위해서는 치명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 정치적 무관심은 개인이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제1차적 사회집단의 기반에 구속된 채 아직 자아를 발현하지 못한 단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전통적이고 산업화되지 않은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전적 형태이다.

또한 정치를 일부 특권 계급의 관여사로 미루고 오불관인(吾不關焉)한 태도라든가 면종복배(面從腹背)의 수동적 저항과 쑥덕 공문을 일삼는 태도라든가 또는 정치는 변화할 수 없고 내부로부터도 변혁할 수 없고 권력이나 권위는 절대적인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 등의 피동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갖는다면, 결국 정치권력을 절대화하고 권위를 신성시하는 위험한 결과를 자초할 것이며 이것은 인간 이성에 대한 불신이요, 비합리적 생활 및 사고방식이 민주주의적 태도나 사고방식이 아니다. 이러한 대중의 행동양식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뿌리박고 있으며 후진 제국(諸國)에서 광범하게 볼 수 있는 전통적 지향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친우 동배 혹은 무지의 타인의

동화력에 의존하거나 또는 마스크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알게 된 동배자(同輩者)의 많은 영향력에 의존하여 행동하는 자주성이 없는 이른 바 타인지향형의 신관 무관심층도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정치 과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력의 민주적 구성에 있어 씨족집단 이익집단 정당조합 등 사회집단의 사회적 세력은 중추 지도부와 대중과의 중간에 자리 잡고 큰 영향을 미친다. 현대 정치 상황에 있어 사회집단이 중요한 정치적 단위로서 대두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화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인한 제1차 사회집단이 족생(簇生)하고 있는 반면에 제2차 사회집단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제2차 사회집단이 더러 있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는 제1차 조직이 엉키어 분파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집단으로서의 권력 구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집단의 동화력은 권력 과정에 있어 반발하고 저항하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하여 이용되는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사실상 사회 내에 제2차적 사회집단이 분출하고 이들이 압력단체(Pressure group)로서 권력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대중의 정치의식을 각성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현대 대의제 민주정치의 활로는 개척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리하여 민주주의 체제 하의 권력구조의 기능은 항상 중추 지도부를 일방의 극으로 하고 사회의 저변을 타방(他方)의 극으로 하는 양극 간에 부단한 권력의 순환이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정치 이념 밑에 정치권력의 정통성의 근거를 인민의 합의에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합의의 표현은 대표 또는 여론의 형식으로 현실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대표의 제도화가 대의제이며 여론의 조직화는 통치기구에 대한 민주통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권력의 중추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중 측의 밑으로부터의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순환형의 지배양식을 취하는 것이 대중의 반응이 가측적(可測的)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배양식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권력은 위로부터 주로 관료기구를 통하여 사회의 저변으로 하강 삼투(滲透)하며 여기서 촉발된 각종 반응은 각양각색의 표현 형태와 행동양식을 취하면서 각기의 통로를 경과해서 상승하여 다시 권력에 통합된다. 이러한 삼투인(滲透人) 통합 집중과 확산의 무한한 반복에서 정치의 동태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밑으로부터의 민의를 합리적인 루트에 실어 실효적인 통로를 걸쳐 표현될수록 이 권력 순환은 가장 정상적인 것이고 정치적 안전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 순환의 기본조건은 권력의 통합과 삼투의 이극(二極)의 힘이 균형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환언(換言)하면 지도력과 국민의 자발성의 균형 또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그 조건 중에도 국민의 동질성,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근대적

행동양식이라든가, 국민의 근대적인 성격 구조가 불가결한 주체적 조건이 될 뿐더러 고도의 생활수준과 대의 관계에도 의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가령 강력한 국제적 냉전 과정에서 대의 위기에 직면하여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성에 절박한 경우에는 권력의 안전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반사작용이 전개될 것이다.

즉 정치권력을 가급 집중 강화하는 방향과 정치력을 가급 국민의 능동적인 자발적 지지에 기초지우고자 하는 2개의 방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2개의 힘을 가장 기술적으로 균형 있게 조종하는데 성공한 국가가 가장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은 민주 제국의 지도의 양상을 비교하더라도 명백한 것이다.

오늘날 미·영·프 등 민주 제국가(諸國家)가 일방에서는 집행권을 강화하고 행정기능의 능률화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강화 확대하는 동시에 권력구조를 가급 널리 민중의 기반위에 구축하고자 노력이 경주되어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정치양식을 취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가령 낡은 가족주의 의식이나 폐쇄적 할거주의 지방벌(地方閥) 혈연적 유대,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참여 의식의 저조, 생활의 위협 등에 의하여 저해되어 과거 민주주의란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본질적으로 약한 정치력밖에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권력순환의 균형이란 하나의 이념형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만 후진적인 국가라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국가의 권력구조에는 그 권력기구의 사회적 타당성이 전통에 토대를 둔 것이건 지도자의 카리스마성에 토대를 둔 것이건 또는 합법성에 토대를 둔 것이건 혹은 전기(前記)한 것의 2가지 또는 3가지를 합한 토대에 선 것이건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 전제조건은 다름 아니라 윤리적 정당성인 것이다. 그것은 이질적으로 말하여 국민의 경제적 생활 보장, 기본적 인권 보장을 막론하고 권력의 행사방식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 권력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및 이상도 또한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다. 무릇 민주주의는 그 자체 목적인 동시에 수단일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도 원리로 하는 정치권력이 계획적으로 지도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필자·동대(東大) 교수〉

### 금언(金言)

- ☆모방으로 위대해진 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사무엘 존슨〉
- ☆실행하지 않는 계획은 바퀴없는 차와 같다. 〈로가우〉
- ☆과학이란 조직된 지식이다. 경험의 조직적 분류이다. 〈조지 헨리 루이스〉

## 공산주의 국가의 권력 구조

한재덕(韓載德)



공산주의 국가의 권력 구조는 그대로 공산독재구조이다. 공산독재란 즉 공산당의 독재이다. 그러므로 공산국가의 권력구조의 골간을 이루는 것은 물론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어떻게 자기의 독재기구로써의 권력구조를 형성하는가? 이것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단순한 것이요, 당식화(黨識化)되어 있는 것이다. 공산당은 오로지 폭력과 날치기 등

비법적(非法的) 수법에 의해서만 권력을 틀어쥐는 것이다. 어떤 공산국가의 공산당이던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국민의 의사반영을 받아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왔다는 예는 하나도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정말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다면 이러한 전율할 비인간 전제도당에게 투표할 하고 권력을 맡길 국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폭력과 날치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부터가 그러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소위 위대한 러시아 사회주의 10월 혁명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그러하였다. 2월 혁명에서 제정(帝政)이 붕괴된 다음 볼셰비키-공산당은 “소비에트” 조직에 의거하여 선거를 실시해 보았으나 참패를 하게 되자 일부 노동자 병사들을 기만, 선동하여 폭력으로써 국회를 쳐부수고 공산독재 레닌 정권을 날치기 식으로 조작한 것이다. 그 나머지의 공산위성국가들은 전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후(戰後)의 혼란기에 생겨난 것인데, 북한을 비롯하여 그 거의 전부가 소련군이 대독(對獨) 또는 대일(對日)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하였던 나라에서 전쟁은 끝났으나 소련군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소련 군정하에서 그 무력의 뒷받침으로 그 나라의 공산주의자를 괴뢰로 내세워 폭력적·무력적 또는 협잡수단으로써 공산정권을 조작한 것이다. 그 가장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우리 조국의 북녘 절반 땅에서 몸소 겪어서 알고 있는 것이다. 중공은 다소 다르다고 하나 중공이 정권을 잡은 것도 몸서리나는 유혈적 수단과 연합전선을 통한 협잡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여하간 그 어느 것도 국민의 의사를 투표나 기타의 방법으로 물은 전례가 없으며 오히려 그 모두가 다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어 억지로 조작된 것이다.

우선 문제는 여기에 있다.

권력을 빼앗아 틀어쥐기 위하여 이러한 폭력과 날치기를 사양치 않은 자들이 한 번 틀어쥐고 그 정치권력을 다시 도로 빼앗기지 않고 언제까지나 유지하고 공고,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흉악한 폭력과 날치기뿐 아니라 그 위에 무슨 짓이라도 꺼리지 않으리라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름의 공산독재를 감행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레닌은 “프롤레타리아는 자기 자신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부르조아지를 타도하고 정권을 빼앗고 그의 혁명적 독재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국가와 혁명』)고 하였고 스탈린은 “당은 아직 독재가 전취(戰取)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독재를 전취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이미 전취된 후에 있어서는 그 독재를 튼튼하게 확대하기 위하여서 프롤레타리아의 손에 있는 무기이다.”(『레닌주의 제문제』)라고 공공연히 토로하였다.

이에 있어 공산 권력 구조란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목적에 가장 상부(相符)하게 꾸며져야 할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도 오늘날 국민을 통치하는데 있어서는 위장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 형태를 모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20세기도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도저히 국민을 속이고 이끌고 나갈 수 없으며 더욱이 자기들의 목적대로 부러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국가에서도 헌법도 만들고 선거도 하고 국회(대개 인민회의라고 한다.)도 만들고 그곳에서 선임(選任)하는 형식으로 행정부(내각)도 사법부도 꾸며낸다. 그래서 그 구조와 체계는 일견 그럴듯하고 번지레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외견상 명분도 서고 또 국민을 통치 구사(驅使)하는데도 그편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만일 정말로 공정한 자유선거를 실시하였다가는, 일상 그들을 중용, 반대하고 있거나 적어도 호의를 안 갖고 있는 국민들에 의하여 그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권력구조는 하루아침에 뒤집어엎어지고 말리라는 것을 또한 그들은 더욱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공산당이 생각해 낸 것이 공산당 또는 공산연합전선(실질적으로 그것은 공산당과 다를 것이 없다.)의 추천입후보자라는 명목으로 공산당 총복을 오직 한 명 지명하는 소위 단일 공동 입후보에 의한 관제선거의 공연이다. 이것은 선거가

아니라 공산당에 의한 임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자들만 모아놓고 개막하는 인민회의(국회)이니 그곳에서는 공산독재자가 내놓은 모든 정책과 안전이 언제나 만장일치로 그리고 일사천리 식으로 진행되고 만장일치로 끝나게 될 것은 보나마나한 일이다. 이 인민회의에서 내각수상(북한의 경우로 보면 김일성(金日成))을 선임한다고 하나 그 실(實) 내각 수상(김일성)은 자기가 임명한 자기 부하(대의원)들에게 의하여 형식적 추대를 받는 거수극(擧手劇)이 여기에서는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행정부 책임자는 자기 권한으로 모든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기관원들을 임명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경우에도 그가 자기에게 가장 충실한 공산당원들을 그 자리에 임명할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물론 때로 독재를 음폐하고 또 관대성을 보이기 위하여 몇 명의 비당원(非黨員) 또는 타당원(他黨員)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 임명되는 비당원이란 그 실 당원보다도 더 충실한 아첨분자들인 것이다.)

이상의 국가정치체제로만 본다면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공산독재의 위장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공산당의 독재체제와 권력기구는 그리 단순하고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한 개의 위장이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 공산독재자들은 인민회의나 심지어 내각 같은 것까지도 내심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다. 김일성 일당은 북한최고인민회의 초대 대의원이 1948년에 선출된 이래 1957년에 제2차 대선거가 있을 때까지 10년간은 심지어 7·27휴전 이후에 있어서는 3년만에 선거를 한다는 헌법조차 무시하고 한 번도 하려하지 않았고 회의도 별로 열려하지 않았다. 그 대신 노동당에서만 당 대회도 열고 중앙 위원회 같은 것은 꼬박꼬박 열여왔다.

문제는 공산당(북한에서는 노동당)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모든 실권을 그것이 쥐고 그것이 글자 그대로 독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또는 다른 모든 국가기관 심지어 군사기관, 경제기관의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장악, 지배, 통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기관 같은 것은 그 (당)하부기구라기 보다는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실지로 조직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당이 정부보다 훨씬 크고 또 높은 것이다.

그래서 국가정책이고 무엇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이 당에서 책정하여 가지고 정부기관이나 기타 모든 부문으로 하여금 이것을 실천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서는 소위 7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최대·최중(最重)의 국책으로 세워져 전 국민을 들볶고 있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지난 9월에 열린던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구체적 숫자까지 책정되었다. 그리하여 벌써 본(本) 정책이요, 국가경제계획인 만큼 소위 최고 인문대회의에서 법령으로서 채택되어야 되는 것이며, 또 앞으로는 그런 형식을 밟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심의 제정하여야 할 최고인민회의는 12월 초 현재 아직 열린다는 소식도 없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이런 형편인 것이다.

**민주주의 경제체제와 개인의 지위**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전제하고 이에서 파생한다. 정치적 자유가 없는 곳에 경제적 자유도 경제적 평등도 있을 수 없다.

김두희(金斗熙)

근대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사상, 이를테면 개인의 존엄, 자유, 평등, 개인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개인의 존엄성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또는 개인주의 같은 것은 개인의 존엄에서 파생된 사상이며, 개인의 존엄을 기초(基調)로 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고 할 때에, 주로 자유, 평등 또는 개인주의를 생각해 온 것은 지금까지 민주주의 생취의 과정이 개인의 자유 또는 평등을 위한 투쟁이라는 형태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존엄성의 실현 또는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개인 또는 개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계급이 다른 개인 계급 또는 국가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인간 이외의 것, 이를테면 도덕, 관습, 법률, 제도, 교육 및 기타의 문화가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인간 생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것들이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 개인에게 목적 달성을 위한 최대의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인 의미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리는 도덕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의미의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회조직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및 기타의 법률이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그러면 공산당이 이러한 공산독재와 그 정책을 관철시키는 구체적 수단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이미 폭력이나 군사·경찰을 토대로 하는 실력을 쥐고 있는 공산당이 제 마음대로 국가기관과 기타 모든 기관의 모든 중요한 자리를 독차지하는 수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괴 내각은 거의 100%가 노동당원이며 수상 김일성은 말할 것도 없고 부수상 8명 중에 7명이 당 간부이다. 다른데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그 당원 간부는 공산당의 정책과 지령과 명령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실현시켜야 되는 것이며 또 실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나 직장에는 당 하부 조직(세포)이 있고 좀 큰 데는 당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당원들뿐 아니라 그 기관이나 직장 전체를 지배, 지도하고 또 독려, 감독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 기관장(예를 들면 국장, 교장, 부대장 또는 공장장, 지배인 등)보다도 그 기관이나 직장의 당 위원장의 위신과 권력이 훨씬 높다. 높다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즉 공산 북한에서 모든 기관이나 직장에는 우두머리가 두 개가 있는데 진짜 우두머리는 당 위원장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김일성 자신이 아주 명확히 실토했고 있다.

“인민위원회(장)들은 해당한 도, 시, 군 당 집행위원회(장)의 통제 밑에 자기 사업을 해야 하며 공장에서는 공장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모든 일이 수행되어야 하겠다. 공장 내에서 최고 기관은 지배인이 아니라 공장 당 위원회(장)이다. 당 위원장과 행정 일꾼과의 관계는 비유해 말하면 배에서 키 잡는 사람과 노 젓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다. 행정 일꾼은 노를 젓고 당 위원장은 뒤에 앉아서 키를 잡고 좌로 우로 하고 지시하면서 방향을 옳게 잡아주어야 배를 곧바로 몰고 갈 수 있다”(김일성 선집 제6권)

공산사회에서 당의 권력이 얼마나 압도적이며 절대적인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공산당의 독재는 이렇게 관철되는 것이다.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라고 한다. 그러나 공산사회의 노동자들이 공산독재에 무슨 관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어렵도 없는 말이다. 그러면 공산당의 독재인가? 백만 하부 당원이 그 독재에 무슨 한마디 발언권이나마 있을 것인가? 그들은 다만 공산 두목들의 독재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고 당 중앙 위원이라는 것도 별 수 없는 것이다. 중앙 위원도 실체는 최고 독재자의 지명이요, 그래서 중앙 위원회 회의도 인민회의와 같이 언제나 만장일치다. 그리고는 소위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명목으로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대개는 10여 명으로(북한에서는 11명) 줄어진 정치 위원들의 과두(寡頭) 독재로 본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특히 북한에서는 정치위원회의 독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은 이 개인독재의 완성을 위하여 자기 수준의 권력을 남용하여 반대파는 물론 비위에 거슬리는 자까지 모조리 숙청해 버리고, 자기 직계와 아첨 부하들로만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고 전제군주보다도 더한 개인 신격화 정책과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공산 북한 권력 구조의 정상(頂上)이다.

〈필자·전 동방통신(東邦通信) 사장〉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받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있다.

평등이라는 것은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권리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등은 또 자유 향유의 평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인간의 존엄성의 확인 내지 실현에 있을 뿐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 이에서 파생된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자유 또는 평등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확인하기 위한 자유 또는 평등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불가결의 요건은 그 사회의 각 성원(成員)이 기본적 자유권을 실제로 향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있어서 사회의 성원 각자가 이것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기본적 자유권에는 양심, 신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結社)의 자유, 재산 사유의 자유 등 이른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치적 평등, 다수결 및 정권 교체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의 확인을 의미하는 시민적 자유권이 정치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 자유권을 국민이 향유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국민 각 개인에게 정치적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듯 정치적 자유는 시민적 자유 즉 기본적 인권의 표현이므로 모든 사회적 자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사회는 정치가 경제사회에 대해서 우위성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것은 정치가 경제 및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경제사회라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적 자유권을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경제사회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경제나 사회주의 경제이나 하는 문제는 민주주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 관계를 이른바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보더라도, 양자의 차이는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에 있다. 즉 양쪽이 모두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지만 전자는 이를 정치적 자유라는 수단으로 실현하려는데 대해서 후자는 이를 폭력혁명에 의하여 실현하려는데 양자 간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전제하고 이에서 파생되는 자유이다.

정치적 자유가 없는 곳에 경제적 자유도, 경제적 평등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곳에 반드시 지금 일반이 자유방임경제라는 의미의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밖에 향유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 즉 경제활동의 자유가 만일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을 침해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존엄성의

확인 내지 실현을 저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는 인간의 물자의 소비를 위하여 형성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생명의 유지,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의식주에 필요한 물자는 물론 그 밖에도 무수한 재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소비와 생산 즉 경제생활은 분업과 교환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소비와 생산의 자유를 말한다. 즉 각 개인이 자신의 필요한 재화를 선택할 자유라던가, 또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재화를 생산할 자유라던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자유, 원칙 및 영리의 자유가 인정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자유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전제로 할 때에 향유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는 역사적으로는 16, 7세기에 있어서의 봉건적 유제(遺制)인 계급적 특권, 독점, 전제군주의 전제적 지배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자유를 쟁취하려는 일반적 경향과 보조를 맞추어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배제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이른바 자본주의적 자유는 이러한 일련의 자유가 확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자유는 그것이 재산의 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양립되는 자유였고 민주주의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경제생활을 규제한 것은 그것이 이른바 수요 공급의 원칙을 통하여 소비와 생산을 규제함으로써였다. 개인의 소비 요구의 표현은 수요로 나타나서 기업의 생산을 자극한다. 그러나 수요는 반드시 개인의 요구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요구가 강하다 하더라도 요구자가 소위 즉 구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할 것 같으면 요구는 요구로 그치고 생산을 자극할 수 있는 수요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비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소득 분배의 평등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만다. 또 한편 기업자의 생산의 자유라는 것은 기업자 자신의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높은 생산 수준이 유지되는 것은 이윤의 기회가 끊임없이 기업자들에게 부여되고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기업자는 생산 수준을 인하할 것이고 이러한 생산 수준의 인하는 곧 고용 수준의 인하를 의미할 것이므로 노동 능력과 노동 의욕을 가진 노동자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일어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비록 법률 상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이 자유를 향유할 수는 없게 된다. 왜냐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평등한

지위에서 임금, 노동의 종류, 노동 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바, 노동 이외에 아무런 생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기업자 측에서 제의하는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여기에서도 형식상으로는 그 계약 조건을 수락할 수도 있고 수락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노동자 측에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의 재산 및 소득 상태에 비추어 볼때에 이 자유는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것은 자살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이러한 상태에 빠질 것 같으면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소비의 자유도 또한 무의미해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경제적 자유는 경제적 평등을 전제로 할 때에만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자유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 평등은 오히려 경제적 자유로 말미암아 점차 불평등화하게 되었다는 모순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자유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자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는데 기업자의 이러한 자유는 경쟁의 자유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기업자들의 결합의 자유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기업자들은 영리를 위하여 거대한 독점을 형성하고 이 독점에 의하여 노동자와 소비 대중을 압박하게 된다. 독점 기업의 생산 삭감 및 가격 인상이 그것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소득의 분배를 불평등화하고 일반 국민 대중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소비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것은 물론이다. 여기에 있어서 국민 대중은 물질(物的) 기초를 상실하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의 확인 또는 실현은 물질 기초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 전체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제사회를 의미하므로 경제적 자유, 경제적 평등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정되어 왔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의 변천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을 저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범위에서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의 우위성의 존재 근거가 있는 것이다. 정치는 수단으로서의 경제생활을 규제하여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목적 실현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자유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와같이 민주주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개인은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인 재산의 사유에 입각한 소비 및 생산 활동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 내지 실현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치에 의하여 그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민주주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의 경제활동의 한계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해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필자·서울문리대(文理大) 교수〉

## 공산주의 경제 체제와 개인의 지위



1. 머리말
2. 공산사회에 착취는 없는가
3. 공산주의는 영원한 피안(彼岸)
4. 노예화는 공산주의의 본질

김상겸(金相謙)

### 1. 머리말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제 사회에 있어서는 자본가에 의한 착취로 빈부의 격차를 격화시켜 그 자체 결정적인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반면 사회주의 사회 내지 공산주의 사회에는 모든 착취의 일소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싹트고 나아가서는 모든 개인이 필요할 만큼 소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자화자찬한다.

이것은 허구적인 광상(狂想)임에 틀림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허구 선전이 때로 광신적인 영합을 받는 일이 없지 않으니 덮어놓고 망나니의 독백으로 무시해 버릴 수도 없다.

이러한 광신적 영합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소아적(小兒的)으로 환멸되거나 마르크스 경제 이론이 지니는 마술에 분별을 갖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예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일이다.

여기에서는 편집자가 지정한 공산주의 경제 체제와 개인의 지위라는 문제에 의탁하여 그들의 선전이나 이론이 지니는 허구를 지적, 논의함으로써 환멸이나 식체(食滯)를 일소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까 하는 것이다.

### 2. 공산사회에 착취는 없는가

마르크스는 자본제 사회에 대한 이론을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착취론으로 엮어 나아갔다. 그는 축적의 원천을 잉여가치에 두고 그것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보다도 더 많이 일해 준 잉여 노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그것을 자본가 계급이 농단하여 축적하기 때문에 자본제 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본의 축적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입각한다고 갈파(喝破)한다.

이 이론을 우선 긍정해두고 공산주의 경제를 들여다보자. 공산주의 경제는 바로 유외(類外)없는 가혹한 착취를 그것도 집단적으로 그리고 조직으로 감행하는 가장 표본적인 경제사회라는 것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한다.

어떠한 사회체제일지라도 밀천 없이 발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생산해서 모두 소비하지 않고 얼마를 여축(餘蓄)해서 다음 생산의 밀천으로 삼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산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이러한 축적을 착취론으로 설명하는 이상(以上)에는 공산주의 사회는 바로 이러한 착취에 의해서 유지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들 자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제 사회에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 경쟁에 의한 추리(追利)라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산주의 경제에는 어떠한 창의성이나 자유 경쟁도 용납되지 않는다. 자본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리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축적이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이 자연스럽게 성취되지만 공산사회에서는 이러한 축적은 인민 개인을 노예화하고 착취를 집단적으로 조직화하여 개인을 궁핍과 억압에 몰아넣는 가운데에서만 비로소 가능케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착취가 아니고 무엇 이겠는가.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소위 노농(勞農) 독재에 의한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는 바로 대중적 착취의 체제이며 소련에 있어서의 과거 스탈리노프 운동이나 중국의 인민공사 운동, 북괴의 천리마 운동은 바로 조직적 착취의 방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 3. 공산주의는 영원한 피안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건설 단계를 지나서 모든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공산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상사회에 대한 이념적 추구는 로버트 오웬을 위시하여 여러 선인들에 의하여 옛날부터 이루어진 일이 있지만 마르크스는 이들 모두를 관념적 이상주의자라고 하고 자기의 소위 유토피아관에 입각한 공산주의야말로 바로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고집한 바 있고 오늘날 이 이론을 추종하고 있는 모든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그대로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론적 근거는 극히 박약하다. 그들의 이론적 근거의 주요 골자는 공산주의 경제는 착취 없는 사회로서 생산력의 담당자로서의 근로인민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급속한 발전을 가져와서 생산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분배하여 소비하여 가는 종래의 경제 질서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욕구하는 바에 따라서 분배하여 부족 없는 소비를 해갈 수 있는 진정한 공산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들 주장에 대하여 착취 문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는 그들의 건설 방법에 관련하여 필요성에 따르는 분배 원칙이 관철될 사회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여 두면 족할 것으로 안다.

사회주의 경제에는 오늘날 우리 경제와 같이 가격 기구를 통한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쟁만한 척도가 없다. 그러나 공산당들은 몇 개년 경제계획이니 생산력 배가(倍加) 운동이니 하여 집산적(集産的)인 건설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것을 인민들에게 강요한다.

이때 우리들 경제와 같은 가격 기구를 갖지 않는 그들로서는 효율적인 계획을 짤 수 있는 척도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 궁리 저리 궁리한 끝에 마르크스가 무기로 삼았던 소위 잉여 가치를 척도로 삼아 합리성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하겠으나 이 잉여 가치라는 것은 노동자가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데까지의 필요한 여러 생활 자료를 그만큼 다시 만드는데 소요되는 노동 시간을 채우고서는 더 많은 일을 한 결과의 잉여 노동 시간에 해당된 가치 분배인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소요된 여러 자료나 새로 생산한 물건들은 노동의 종류와 생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물건들이 주는 효용이 다종(多種), 각색(各色)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생산에 소요된 사회적 추상 운동이라고 발뺌을 했지만 사실상 모든 종류의 노동을 시간으로 그것의 다과(多寡)를 척도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자(近者)의 공산주의 이론가들은 얼마만큼의 생산을 하는데 자금이 얼마만큼 들었느냐 하는 소위 생산기금의 의존도를 내세워 생산성을 알아보고 잉여 가치의 산업부문 간 재배분을 기준해 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떠한 궁여지책도 착취론과 같이 영원한 순환론에 빠져 공산주의 경제를 자승자박할 것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잉여가치설에 의거하는 한 필요 노동을 초과하는 노동에 원천을 둔 잉여가치는 공산주의에 있어서도 여전히 건설의 밀천이 되어야 하는 만큼 총체적인 건설은 진행될지라도 개개인의 소비 생활의 자유로운 신장이란 원칙적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이며 한편 개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가격 기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욕망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는 생산의 기준도 세울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자체의 집단적 체제로서는 궁극적인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을 잡을 수 없으며 그렇듯 개인의 자의성을 용납하는 소위 필요성에 따르는 분배 원칙을 실현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지에서도 불가능한 것이다.

슈페터는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무한한 발전으로 개인들이 더이상 소비할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윤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기적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사멸할 것이나 그러한 소비의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영원한 장애에 속하는 것이며 아마도 그것은 기억할 수 없는 영원일 것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아마도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는 진정한 공산사회라는 것도 기약할 수 없는 영원에 속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비의 포화를 누리기 전에 그 스스로의 체제는 자멸하게 될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 4. 노예화는 공산주의의 본질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그 자체 존립 될 여건이나 이유가 없으면서도 우리 지구상에 출현하고 존속되고 있는 것은 인간성이 전도된 집단들의 강인한 전체주의 조직과 무자비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개인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것은 공산주의가 존속되는 한 영원한 일이 될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히 인간의 존엄성을 간직한 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탈을 쓴 냉혈적인 지배자가 아니면 완전히 공산체제의 도구가 된 주구(走狗) 그리고 집단적 착취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피압박 대중이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자들의 구문(口吻)에 의하면 자본제 사회에는 무산대중이 대량으로 산출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금력에 의한 착취와 피박(被自)이 계속된다고 하지만 바로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일이다. 우리가 사는 자유 애호의 자본제 사회에서는 항상 개인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개인적인 번영이 누적되는 가운데 사회 전체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사유 재산 제도를 말살한 공산주의 경제에서는 개인의 번영이란 용납될 수 없고 그 체제를 조직적으로 제압, 지배하는 공산당과 그 주구(走狗)에 의한 대중의 예속이 계속될 뿐이다. 공산주의 경제에는 개인의 창의에 입각한 자유로운 진취의 길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의 자의적인 계획과 이것의 대중에 대한 강요 이외로 발전시켜갈 방법이 없는 것이며 그렇듯 개인성의 말살에 따르는 노예화만이 불가피한 유일한 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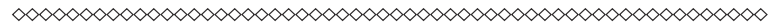
그러므로 개인의 지위란 땅에 뿌려지는 종자와 같이 세상에 나와 공산체제를 위하여서만 가꾸어지고, 결실되나 그 스스로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공산당이 설정해놓은 사회체제에 희생되는 것뿐인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개인은 유토피론적인 육체의 자신은 가지지만 이성적 판단력을 지닌 자아를 간직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이며 그 안에 존엄한 생을 영위하는 개인들의 위치인 것이다. 만약 인간의 존엄성이 그 안에서 싹트고 개인의 위치가 향상되고 자아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그 결실에 대한 자유로운 수확을 용납한다면 공산주의 경제의 제원칙은 붕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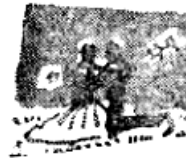
마르크스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하여 유토피론적인 해석을 하였거니와 그것은 정(正)히 오늘날 공산주의 체제 내의 개인에게 꼭 맞는 말이다. 그는 또한 이데올로기는 객관의 산물이라고 하였지만 역시 그들 체제 내에서만 맞는 말이다. 공산 체제는 조직과 억압으로 유지된 객관이며 따라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무생물과 같이 보고 움푹달락도 못하게 묶어놓는다는 것 밖에는 달리 생각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난처한 일은 공산체제의 지배자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객관이라는 것이 전무후무한 것이기 때문에 조직과 억압을 위주로 하는 그들의 지도이념이 기상천외의 광상(妄想)으로 시종(始終)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공산체제 내의 질서 아닌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연대(延大) 교수〉



## 민주주의 세계관



이상조(李相助)

1. 일정한 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세계관을 보통 정치적 이데올로기(Political Ideology)라고 칭하며 그것은 정치의식, 정치이론, 정치원리, 정치상의 주의 등으로 상별(詳別)할 수 있고 혹은 총괄적으로 호칭할 때 정치적 지도 원리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라는 술어는 반드시 정치에 대한 관념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체계나 어떤 사회 체제 혹은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미술 등의 정신적, 문화적, 제형태까지 이데올로기로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라 하면 그 용어 중에 어떤 정치적 색채가 항상 잠재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을 주는 까닭에 흔히 정치에 대한 세계관 또는 관념 형태를 표현하는데 상용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세계관이니 정치적 이데올로기니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견지에서 주장하는 정치이론이나 정치에 대한 의식에서 그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의 또는 주장을 말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세계관이라 한다면 반드시 민주정치에 대한 신념이나 신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이나 대인적 태도에 대한 신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치적 세계관 즉 민주주의적 정치에 대한 의식, 주장, 견해가 주된 내용으로 되는 것을 상례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세계관을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밝혀야 할 것은 민주주의란 대물적(對物的) 관계가 아니라 대인적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 관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코리(Corry)에 의하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첫째, 개인의 인격 존중, 둘째, 개인적 자유, 셋째, 합리성에 있어서의 신조, 넷째, 사회적 평등 대우, 다섯째, 정의, 여섯째, 법치주의, 일곱째, 입헌주의라고 해명하였으며 다니엘 위트(Daniel Wit)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세계관은 ① 인간성에 대한 상대적 성선설(性善說)과 ② 인간의 사회생활을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서 국가와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며 ③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고 ④ 혁명이나 개혁의 권리를 국민이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민주정치는 무엇보다도 ① 자유

선거와 ②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법적 보장 ③ 의사 발현의 자유와 ④ 법치주의 및 ⑤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 보호 ⑥ 입헌주의가 구체적으로 정치상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부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재정치(Dictatorship)의 원리는 ① 인간성에 대한 성악설과 비판주의의 세계관에 입각하고 있으며 ② 국가의 도구로서만 개인주의와 사회를 인정하고 따라서 국가를 위하여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쯤은 희생하여도 좋다는 세계관에 서고 있으며 ③ 자연적 불평등의 원리와 권력통합주의 ④ 복종의 선무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재제는 그 구현방법으로서 ① 개인적 인격의 경시 ② 합리적인 인간성의 부정 ③ 개인을 초월한 사회와 국가로 멸사봉공(滅私奉公)이나 공익 우선의 요구 ④ 지정된 인물의 지배와 신화(神話) ⑤ 자유주의와 평등의 배격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견해에 의하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벤담(Bentham)이 주장하는 사회생활의 이상으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방식임에 틀림없다.

3.

그러나 민주주의의 정치가 성공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의식이 일정한 수준에 달하여야 하며 생활상의 경제적 조건이 어느 정도 안정화해야 하며 교육 수준과 사회적인 질서 관계가 일정한 궤도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의식이 보스(Boss)급, 즉 소수의 유력 분자에 의하여 악이용되거나 기형적으로 전단(專斷)되어 형식화되기 쉬운 뿐 아니라 정치적 부패로 전제 이상의 독점 관료나 유력 분자의 수중에서 최악이 편행(遍行)되기 쉬운 것이다. 또 생활의 안정화가 없는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다. 민주정치는 낭비적이며 산업이 발달되지 못한 곳에서는 항상 민주주의는 소수의 보스에 의하여 독점되어 왔다. 매표(賣票), 매수(買收) 공작이 변행되고 대중은 생활고에 동분서주하는 까닭에 소액의 금품으로 지조를 버리게 되며 애국심은 마비되고 양심은 무기력하게 되어 버린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또 교육수준이 저급하면 민주주의를 올바로 인식하는 자가 적으며 사회적인 질서 관계를 확립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기 쉽다. 그러므로 후진사회일수록 초보적인 조건은 리더십(Leadership)을 확립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비교적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리더십이 확립되어 민주주의는 용이하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리더십이 확립되지 못한 곳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관념이 그릇되게 인식되어 사소한 감정의 대립이 대사를 그르치고 분열과

반목과 대립만이 편재하게 된다. 동료나 후배라도 일단 책임자로서 지명되면 그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리더십이요, 또한 민주사회의 질서인 것이다. 미국인들은 동료라도 일단 책임자가 된다면 정실(情實)을 떠나서 지배와 복종 관계를 질서 있게 지키며 어느 때는 지나치도록 독재를 한다고 하여도 하등(何等) 이의를 부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좀 더 사회가 명랑화하려면은 이 리더십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선결 문제이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건설하는데 첩경(捷徑)이라 하겠다.

〈필자·서울대법대 교수〉



## 공산 치하의 예술 활동

이철주(李喆周)



### 1. 예술 활동의 목적

우리의 생활 감정에서 미를 혐오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를 욕구하는 심정은 비록 그 미가 추악하든 고상하든 또는 인간의 빈부와 연령의 차이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탐미가의 입에서 “나는 애오라지 미를 위해서 사노라.”라는 말이 나오고 예술가는 자기의 전 세애(世涯)를 불멸의 미를 창조하기 위해 바치며 미의 영원성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가는 미의 탐구와 창조를 위해 자연과 사물과 전 역사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어 속에 또는 캔버스 위에 혹은 들맹이에 또는 무대 위에 이것을 재현하려고 정열을 불태우며 그것을 자랑으로 아로새기며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빚어지는 예술 활동에 대해 그 어떤 제약과 제한을 받지 않으며 또 가하려는 압력도 없거나와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자유세계 예술 활동에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 독재 치하의 예술 활동은 엄격한 통제와 제약, 제한 속에서 진행되는 데 상반된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는 예술가들의 활동 임무를 규정한 다음 문구에서 명백히 표현된다. “소련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기초로 되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헌신과 적에 대한 비타협성 사회적 의무의 자각, 노동에의 적극적인 참가, 인간의 공동생활에 대한 기본적 규범의 자발적 준수

동지적인 상호 원조, 사회 질서의 파괴자에 대한 불허용인 것이다.”

(소련 공산당 21차 대회 결정서 중에서)

이러한 원칙을 소련 공산당 제1서기(위원장)이며 소련 수상인 흐루쇼프는 1960년 7월 17일 소련방 인텔리 대표들과 회의석상에서 재차 강조하면서 “모든 소비에트 인민 속에 새로운 공산주의적 모델과 성격을 양성하고……(중략) 새로운 인간의 형성이 당의 가장 긴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고 있는 오늘날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당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활동의 많은 수단 가운데 나는 사람들의 감정과 의식에 예술적, 정서적으로 호소함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갖는 문학과 예술의 의의를 강조하고 싶다.”(코뮤니스트·1960년 7월호)라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예술가들의 기본 임무는 금년 10월에 진행된 소련 공산당 제22차 대회에서 거듭 되풀이되었거니와 이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부터 오늘에 흐르는 일관된 철칙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공산사회의 예술 활동은 인간 생활 감각에서 얻어지는 미의 탐구와 자기 세계 창조란 불가능한 것이다. 오로지 공산주의 건설(침투)과 그 침투 준비를 위한 착취 노동을 위해 소위 가장 적극적인 인간, 영웅적인 인간, 새 인간 창조만이 공산 치하 예술 활동의 목적으로 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한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 2. 예술 활동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대극장)에서 발레 무용이 상연되고 부쿠레슈티 극장에서 합창단이 공연되고 평양 대극장에서 연극이 상연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수한 예술 공연이란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시, 소설, 희곡, 영화, 예술 그 어떤 부문에서도 순수한 의미에서 운명과 자연의 미를 탐구해서 형성된 예술 작품이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작품이든 공산당의 정책과 관계 안 됨이 없으며 모두 공산당의 모델과 성격을 뚜렷이 반영한 것뿐이다.

소련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고취와 공산주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창작된 소설 또는 이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 연극으로 재현하여 공산주의 도덕성과 논리를 강조하는 면에서 불후의 명작이라는 몇 작품을 열거하면 「10월의 레닌」, 「차바예프」 「전투함 포툼킨」(에이젠슈테인 작), 「모(母)」(고리키 작), 「청년 근위대」(게라시모프 감독), 「구역당 비서」(조야), 「러시아 문제」,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오스트롭스키 작) 등 기타 허다하다.

또한 북한 괴뢰에서 상연된 영화, 연극 제목을 볼 것 같으면 연극 「백두산」(조기천(趙基天) 작), 「승냥이」(한운야(韓雲野) 작), 「우리 마을」(신고송(申鼓頌) 작),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크렘린의 종소리」, 「청년 근위대」, 「길은 하나이다」, 「첫 시련」, 「조국 산천에 안개 개인다」, 「백두산이 보인다」, 영화에서도 「소년 빨치산」, 「빨치산 처녀」, 「길은 하나이다」,

「밀림아 이야기 하라」 등 제목만 보더라도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대충 설명해줄 것이다.

북한의 예술 활동은 소련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현재 처하고 있는 주객관적 환경에 의해 김일성(金日成)을 절세의 애국자로 묘사케 하는 것이 첫 자리를 차지한다.

「백두산」, 「조국 산천에 안개 개인다」, 「밀림아 이야기 하라」, 「백두산이 보인다」 이 모든 작품은 과거에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역사적으로 날조하여 김일성을 우상화하는데 바쳐진 작품들이다. 「백두산」은 조기천의 장편 서사시를 각색한 것으로서 이 작품처럼 김일성을 전설적 영웅, 전투적 영웅, 탁월한 민족 해방 투쟁의 영웅으로서 절세의 애국자로 가장케 한 작품은 없다.

이 작품은 분명히 공산주의적인 훌륭한 아이디어와 전형적인 예술적 형상성을 갖는다. 그러나 내용은 완전한 허구와 날조로 충만되었으며 김일성의 과거 성장과는 하등 인연이 없으면서도 모두 의식적으로 꾸며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일성이 1931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여 1938년 당시 중공 8로군의 중대 정치 공작으로서 일제와 전투한 것을 마치 조국 해방을 위한 항일 유격대 투쟁을 한 것처럼 슬쩍 바꿔치고 말았다.

이렇게 역사를 날조하면서도 그를 민족의 태양으로 내세우려는 것은 앞으로의 공산 통일을 몽상해서 공산 독재자로 조작하려는 원대한 야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이 침략적,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착취 노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천리마 시대의 노동 영웅과 집단적 노동을 고취시키는 주제, 셋째, 공산군대의 애국주의 사상과 영웅성의 앙양(昂揚)을 주제로 한 것, 넷째가 기만적인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남한 동포의 투쟁과 참상을 주제로 한 것, 다섯째, 공산당의 국제적 주의를 주제로 한 것 등의 순서로서 작품 창작과 예술 공연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공산 독재 집단은 이러한 예술 활동, 정확히 평가한다면 선전 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단체를 일체 괴뢰가 조직,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 예술 활동 단체란 단 1개도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 괴뢰만 보더라도 영화 제작 기관, 무대 예술 단체, 출판 언론 보도는 일체가 관제단체들인 것이다.

현재 북괴에는 2개의 영화 촬영소, 12개의 중앙 공연 단체, 11개의 도 및 시립 예술단이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이 예술 공연 단체는 일체가 괴뢰 문화성에 행정적으로 소속되고 있으며 이 단체의 공연 활동을 직접 조직, 지도한다. 각 공연 단체는 연간 공연 계획에 의해 레퍼토리를 선정하고 이를 괴뢰 문화성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후 연습에 착수하여 일반 공연에 앞서 시연회를 조직한다.

이 시연회에서 괴뢰 출판지도검열총국의 행정적 검열과 당의 검열을 병행해서 받게 된다.

이 시연회에서 작품 및 예술 형상 등 일체를 심의, 검토한 후 상연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시연회는 주로 무대 형상이 검토 대상이 되지만 이에 앞서 작품 자체의 검열을 우선 받게 된다.

이 작품이 검열 당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작품은 작자가 창작하여 우선적으로 작가 동맹의 합평회를 받아 통과되어야 한다.

즉 창작·합평회·공연 단체에서의 선택도 및 성의 사전 검열·작품 검열·시연회·허가의 순서를 밟게 됨으로 전후 최소한 6회 이상의 검열을 통해서만이 대중 앞에 공연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작품은 작품대로 무수히 개작 및 수정을 가하게 되고 또 공연 단체에서는 단체대로 이 작품에 수정을 가하고 시연회에서는 검열관들의 의견에 의해 또다시 개작 및 수정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최종적으로 공연이 허락되었을 때의 작품은 작자가 시초 창작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작품으로 변하고 오로지 작자의 이름만이 수정을 당하지 않고 남는 형편이다.

그래서 최근년에는 집체적 창작이나 창작 집단의 창작이니 하는 말을 쓰는데 차라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솔직한 것이 될는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조작된 작품에는 반드시 전형적인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 바, 이 주인공은 철두철미한 애당(愛黨), 애국주의자로서 전투 영웅, 노동 영웅, 모범 농민, 모범 기술자로 되어야하며 여기서는 일체가 공산주의 정책을 찬양, 숭배하여 공산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인간형으로만 묘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예술을 통해서든지 공산주의의 추악성, 비도덕성, 악독성, 침략성 등 일체 부정적인 것은 묘사되지 못하며 만약 묘사된다면 그것은 반동 작가라는 낙인을 찍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의 창조, 그것은 곧 허구의 조작이며 또한 부정을 긍정으로 묘사하는 위조적인 가장된 전형으로 된다. 따라서 이 가장된 허구의 전형을 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이해에 있어서 전형적이란 통계학적 평균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형이란 주어진 사회적, 역사적 현상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가장 보급되는 것, 자주 일어나는 것, 보통의 현상이 아니다. 형상의 의의적 과장과 강조는 전형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완전하게 해명하고 강조한다. 전형적인 것이란 사실주의 예술에 있어서의 당성(黨性) 발현의 기본적인 영역이다.” (1952년 소련 공산당 제19차 대회 정치 보고문 중에서)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이 왜곡된 이론을 합리화하여 이런 식으로 의식적(意識的) 과장과 강조하는 예술 창작 방법을 가리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이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공 8로군의 일개 정치 공작원이던 김일성(당시 김성주(金成柱))이 중공의 전투원이 아니라 위대한 조국 해방 투쟁의 전설적 영웅으로 날조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며 강제 노동에 굶주리며 신음하는 북한의 노동자가 자진적인 애국 노동에 참가하여 의식주에 부족을 느끼지 않는 유족(裕足)한 생활인으로 묘사되어도 그것이 가장 진실한 것으로 믿어야 하는 무원칙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 3. 우리의 각오

결국 공산 치하의 예술 활동이란 당적 예술 활동이며 당적 예술 활동이란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타도를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피아간의 인민들에게 예술적 수단을 통해 만족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 사회에서는 사실주의, 낭만주의, 허무주의, 다다이즘, 저항주의 등 그 어떤 유파의 예술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만이 존재하며 예술인들은 인간 기계로 되어야 하고 자아, 개성, 사색의 자유란 추호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공산 치하의 예술 활동이란 공산주의의 침투와 파괴 및 침략 전쟁에서 포병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호루쇼프는 1959년 2월에 열린 소련 작품 동맹 제3차 대회에서 문학이라는 이름을 빌려 예술 활동의 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문학은 총공격으로 옮겨가는 보병을 위하여 돌출구를 열어주는 포병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 이 이상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예술 활동을 향하여 인민적 예술, 진정한 예술, 민족적 예술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도 눈 하나 까딱 않고 대중을 기만해가는 공산 집단, 특히 북한 괴뢰 일당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예술 활동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다른 명칭이 붙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반역적이며 침략과 민족 분열을 획책하며 침략적 태세로만 나오는 공산 치하 예술 활동에 대해 일시인들 무관심할 수 없으며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에서 허구, 기만, 조작, 날조를 분쇄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예술 활동이 수행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필자·내외문제연구소 위원〉

새가 우리의 머리를 지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릿가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우리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는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들어앉지 못하게 물리칠 힘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루터〉



진리를 탐색하는 인간의 욕구는 철의 장막 뒤에서도 소멸될 수 없다.

영웅을 모시고 사는 시베리아의 백성들은 펜으로 자기를 구제하는 버릇을 배웠다.

전통적 사고와 표현 방식을 벗어나 예술적 감각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도덕 기준을 밝혀준 다음의 시는 소련의 사회제도와 이념에 반발하는 지성인들의 예술적 고백일 뿐 아니라, 현대 소련의 정신사를 서술한 하나의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여기 필자의 이름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쉬운 일이긴 하나, 차라리 이 시는 입이 있으면서 말을 못하고 이름이 있으면서 밝힐 수 없는 전(全) 소련인의 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어대학 러시아어학과 동완 주임 교수께서 직접 번역의 노고를 맡아주셨음은 우리의 수확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고 믿는 바다.

〈편집자·주(注)〉

〈요즘 생각하는 일들〉

바로 그날 아침에 능묘(陵廟)에서는 스탈린이 매장되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은 늘 그렇듯이 맑고도 투명했다.

천천히 침착하게 나는 걸어갔다.

모스크바와 단 둘이서,

거기서 나는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했다.

머리 있는 청년이 그렇듯이……

구경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빵의 시대가 왔다.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쉬자고 한다.

하늘을 강습(強襲)하던 그들에게

발싸개를 다시 하기 위하여

잠시 주저앉은 인민들은

편상화(編上靴, 군화(軍靴))를 신은 채 잠자며

지금 어느 해인지 알 것이 무어냐

아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가 여기 있었는데도 이제는 없다.

모스크바는 마치

내 던진, 주인 없는

집과도 같다.

스탈린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나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모스크바는 슬퍼하지 않았고 모스크바는 텅 비어있었다.

줄창 슬퍼하지 말라, 모두가 기진맥진했다.

모두가 잠들었는데, 다만 머슴들만이

광폭하게 쓸고 있었다.

마치 뿌리를 찢어내듯이

땅속에서 굶어냈다.

마치 얼어붙은 땅속에서 찢어내듯이 그의 명령하는 소리를, 그의 훈령(訓令)의 필적을……

사흘에 걸친 죽음의 자육을

그리고 또 낡은 자육들-

30년에 걸친 권력의,

위대성의, 그리고 또 재화(災禍)의.

나는 앞으로 또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내 앞에 맞선다.

그의 궁전이, 공장들이-



모든 스탈린이 건설한 것들이……  
마천루의 탑들이,  
광장의 정방형들이……

사회주의가 건설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그 속에 입주하였다.

## II

어린 것들이나 짐승들이  
병사들이나, 말하자면, 여자들이,  
당신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걸어야 했고  
혹은 당신을 사랑하기까지 해야 했다.

어린 것들을 속이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  
여자들도 비굴하지는 않을 것이고,  
말은 질주하여 비열한(卑劣漢)을 떨어뜨릴 터이며,  
병사는 무엇이 허위고 무엇이 공인지 알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을, 사려 깊고 학식 많은 이들을?  
오, 높은 예지(叡智)를 가진 사나이들이여.  
당신들은 코를 꿰어 끌렸었소, 바보 아가씨처럼,  
아이들처럼 손을 끌려 다녔답니다.

자부의 미소를 띠고 다닐 것은 없소,  
여러 번이나 훈장에 팔린 사람이기에.  
지혜와 이지(理智)에 관해서 무슨 시비가 있겠소,  
여러 번이나 한 마디 말에 팔린 사람이니.

나는 가지가지의 경우를 당해 보았다.  
그러나 불멸의 혼백은 분명하다.  
다만 배신행위에서 해방된  
연약한 어린이의 미소 속에서만이.

## III

나는 현실을 분식(粉飾)한다.  
운문을 수정한다.  
시를  
다시 읽어보니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고분고분하기도 하고 또 침착하기도 하다.  
나라의 모든 법에  
다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준칙에 적응한다……  
일과에 충실한다……

뒷문으로  
그것을 인쇄에 돌리도록,  
나에게 진리를 따르기 시작하라고  
임무를 맡겼다.  
곧은길이 그들을 루블로  
이끌어 가도록,  
나는 그들의 팔을 꺾는다.  
나는 그들의 다리를 자른다.  
나는 꼬리를 잡힌다.  
분식(粉飾)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

그렇기는 하나 나는 무엇인가 감출 것이며,  
누군가를 구할 것이다.  
가장 강력하고 또 용감한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물론 수정을 하지 않고  
이 책을 출판할 것이다……

## IV

우리는 모두가 신의 밑에서 지냈다.  
신의 바로 그 옆에서.  
능묘(陵廟) 위에 서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하고 간악하고 총명했다.  
그가 밀어 떨어뜨린,  
여호와와 이름으로,  
구제(驅除)했고 탄(炭)불 위에서 다 불태웠다.  
그리고 나서 암흑 속에서 끌어내어  
그에게 식탁은 은신처를 주었다.  
우리는 모두가 신의 밑에서 지냈다.  
신의 바로 그 옆에서……  
한번은 내가 아르바트가를 걸어가고 있었다.  
신은 다섯 대의 자동차로 달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에 거의 꿈추처럼,  
그들의 입은 쥐색 외투 속에서  
그와 나란히 서서, 호위병들은 떨고 있었다.

이르기도 했고 또 늦기도 했다.  
하늘이 회색으로 변해갔다.  
동이 트고 있는 것이었다.

신은 냉혹히 그리고 총명하게 내다보았다.  
모든 것을 투시하는 시선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눈으로……  
우리는 모두가 신의 밑에서 지냈다.  
그리고 그와 나란히 서있기도 했다.

V

나는 모래위에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래는  
바로 얼마 전까지는 나에게서 바위로 보였던 것이다.  
그것은 바위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바위로 남아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산산히 깨어졌으며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골짜기로 손을 내릴 수 있다.  
나는 구불구불한 손가락에 휴식을 줄 수 있다.  
나는 성낼 수가 있다. 그리고 물을 수가 있다.  
무슨 까닭에 그리고 무슨 권한에 의해서냐고……?

그러나 나는 건설계획을 믿는다……  
벽에 몸을 바짝 대고,  
머리칼 한 톱에 몸을 매달고  
나는 건설한다, 두 다리 밑에서 흘러가는 발밑에서  
흘러가버리는 그 모래 위에서.

VI

<사람>  
자연의 제왕, 창조왕의 왕관  
짊을 위한 설탕을 구하여 일어섰다.

전지(全知)나 혹은 불멸을 위해서는  
그는 이 순번열중에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짊에 대한 관심은  
보다 더 크고 또 강하였다.

나는 형이상학자에게는 비길 것이 못된다.  
그래서 그에게 도덕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배부르게 먹어야 하며  
또 짊을 넣어서 차를 마셔야 한다.  
그 다음에 불멸에 관해 들어야 하며 전지로서 두뇌를 채워야 한다.

VII

나는 사람들을 판단하였고 또 잘 알고 있다.  
사람을 판단하기란 전혀 복잡하지 않다.  
만일 어찌하여 잘못 상기하면은  
다만 후에 싫증이 날 뿐이다.

나의 백 근의 살덩어리가 무엇이란 말인가.  
타인의, 살덩어리를 판단하기에?  
다시는 아무에 관해서도 판단 않겠다.  
수령이 아니고, 군중의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좋다.

학교의 선생으로 있는 것이 좋다.  
혹은 책방에서 점원으로  
혹은 심판자로……  
어떤 심판자로? 축구의 심판이 좋다!  
경기에서 긴장한 바보가 되는 것도.

만일 잠이 이 심판들을 꿈꾸게 한다면,  
그들은 꿈속에서 소리를 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는 소리를 지를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옛일을 상기할 것이니.

나의 경험은 특수하며 또 고약한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신 저버리게 할 수 있을까?

이 시는 과오가 있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옳지 못하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수정시키라.

VIII

<선전>  
오늘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의 두 눈도- 믿지 않는다.  
나의 두 귀도- 믿지 않는다.  
내가 만져본다면- 그러면 아마, 믿을 것이다.  
만약에, 다칠 수 있다면- 모두 틀림없다.

나는 우울한 독일인을 상기한다.  
그 슬픔에 찬 1945년의 포로들을, 차렷을 하고

심문을 받고 섰던.  
내가 물어 본다. 그들은 대답한다……

-당신은 히틀러를 믿는가? 아니오,  
안 믿소.  
-당신은 케링을 믿는가? 아니오,  
안 믿소.  
-당신은 깃벨스를 믿는가? 아아,  
선전이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믿는가? 침묵의 순간-  
-꼬미찰 님, 나는 당신을 믿지 않소.  
모두가 선전이다. 온 세계가 선전이다.  
네 음절(사음절(四音節))의 (프로, 파, 간, 다, )라는 말이  
오늘날에도 내 귀에 울린다……  
“모두가 선전이다. 온 세계가 선전이다.”

만약에 내가 어린이로 변해서,  
새로이 초등학교에서 배운다면은,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할 것이다……  
불가강은 카스피해에 흘러 들어간다.  
나는, 물론, 믿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바로 이 불가강을 찾아서,  
흐름을 따라서, 바다로 내려가,  
그 흐릿한 물에 내 몸을 씻고 나서야,  
아마 겨우 믿을 것이다.

말들은 연맥(燕麥)과 건초를 먹는다……  
거짓말! 1933년 겨울에  
나는 꼬챙이처럼 말라빠진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었다.  
말들은 처음에는 짚을 먹었다.  
다음에는 말라빠진 짚으로 엮은 지붕을,  
다음에는 그들은 하리코프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내 자신이 내 눈으로 보았다.  
괴로운, 심각한, 거의 거만할 지경의, 밤색의, 흑갈색 그리고 회황색에  
검은 갈기(馬鬃)의 말,  
묵묵히 천천히, 쓰레기통으로 방황하는 말들을,  
그들은 걸어다니다가, 다음에는 멈춰섰다가,  
그 다음에는 쓰러져서 오랫동안 누워있었다.  
말들은 곧 죽지는 않았다.

말들이 연맥과 건초를 먹고 있다!  
아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이다. 선전이다.  
모두가 선전이다. 온 세계가 선전이다.

## 미국의 권력과 태세

권정식(權楨植)



편집자가 던져준 제목을 보니 미국의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군사전력은 어떤 정도이며 또 이것이 대소(對蘇)해서 어떠한 태세를 갖추고 있느냐를 살펴보라는 뜻인 것 같아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전쟁의 본질이 점차 변모해가는 경향이 현저하여 전력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규정하고 들기에는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 필자가 생각하는 전쟁의 본질을 소개하고 다음 새로운 전력의 개념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적 태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전쟁 본질에 대한 일고(一考)

전쟁을 생각하고 전쟁을 연구하는 학도들이 전쟁의 본질을 운위(云謂)할 때 너나할 것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크라우제윅의 전쟁론에 나오는 '전쟁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폭력 행위'이며 이 폭력 개념 하에는 그 한계를 찾아볼 수 없다는 명제다. 사실상 크라우제윅의 전쟁관은 그의 저서가 세상에 나타난 후로부터 현금(現今)에 이르기까지의 백여 년을 통하여 모든 군사가들을 위한 바이블과도 같은 생명력을 유지해왔고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이 있어서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이념화되기까지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로부터 오늘날까지의 과학의 경이적인 발전은 보다 강대한 힘을 갈망하던 인간으로 하여금 극강의 역(域)에 도달한 힘의 공포 앞에서 오들오들 떨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인간이 임의로 힘을 조절하고 구사하고 운용할 수 있었던 핵(核) 이전의 시대에는

전쟁이라는 폭력행위를 통하여 얻는 것이 있었다. 즉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나 목적이 존재하였고 목적 있는 행위인 까닭으로 전쟁은 시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금(現金) 인간 앞에 실재하고 있는 힘은 인간 그 자체를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는 극대의 것으로 모든 형태의 인간 생활을 소멸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전쟁에 중지부를 찍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의 중지부를 찍게 되었다. 환언(換言)하면 현금의 전쟁은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 또는 진영 대 진영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류 대 전쟁의 싸움으로 화(化)한 것이다. 따라서 현금의 전쟁은 적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폭력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는 자살행위로 화해 버렸다.

전쟁이 인류를 궤멸하기 전에 인간이 전쟁을 위한 일체의 무기를 폐기하고 전쟁에의 의지를 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힘 의지 증오의 무한계성이 작용하는 총력적인 전면전쟁을 모면하기 위하여 전쟁의 목표를 상대방의 국가적 생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즉 의지에만 영향을 주려는 제한전쟁이라는 인간의 이성으로 계획되는 전쟁론까지 대두되는 것이다.

## 2. 전력은 수행력이 아니고 억제력

전쟁의 본질이 변모해가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전력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전쟁의 이상, 형태 내지는 성격을 총력전으로 보고 전쟁에 대비해서 조직되는 전(全) 국력이라고 파악하려는 데는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전력이란 직접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치력, 경제력, 사상력 등의 모든 요소를 총망라하고 있다.

전쟁의 본질이 상대방을 굴복시켜 아방(我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폭력행위일 수 없는 변혁의 과정을 밟아 전쟁의 예상되는 결과가 처절하고 절멸적이어서 굴복시키는 아방도 굴복 당하는 상대방도 존재할 수 없는 인류 최종의 현상 내지는 세계의 마지막 날을 가져오리라는 것이 자명한 일이라는 하나 심각한 사상적 대립으로 분할된 현실 세계의 추향(趨向)이 공포의 균형이란 위기를 지양하고 자유스럽고 안전한 평화의 세계으로 변전(變轉)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생산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 국력을 기울여 전력(戰力)을 육성시키고 배양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즉 전쟁의 참화로부터 인류가 구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상의 과제이기도 하나 자유와 평화에 도전하는 공산주의의 야망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있고 또는 극복할 수 있다는 확률보다는 전쟁의 위험이나 우려가 더 높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의 권리와 욕망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전력은 절대로 전쟁을 위한 것은 아니다. 즉 평화를 위한 것이다. 환언하면 전쟁 수행을 위한 전력이나 군비가 아니라 전쟁 억제를 위한 전력이고, 군비라는 것이다.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핵전쟁의 위험을 극복하고 힘 대신에 법이 지배하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교량(橋梁)인 것이다.

매년 수백억 불(弗)의 재화를 군비 경쟁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역설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회답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모든 국가로 하여금 자유의 존속과 성공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어떠한 적에게도 대항한다.”는 단호한 결의와 함께 “우리들의 군비(軍備)가 의심할 여지없이 충분했을 때만이 우리들은 그것을 결코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확신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오늘날의 전력은 전쟁 수행력으로서의 활동적인 요소라기보다 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심리적인 요소다. 잠재적인 침략세력이 우리는 억제 당하고 있다든가 또는 전쟁은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는 심리적인 상태에 놓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의 세계야말로 무기를 잡으라고 부르짖지는 않지만 무기는 필요하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준비는 필요한 복잡하고 미묘한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 3. 미국의 전략

전절(前節)에서 언급한 전쟁의 본질이나 전력의 개념은 필자 개인의 편협된 고집이 아니라 미국의 생각이라고 해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미국식 사고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정당한 사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을 옹호하려하고 인권의 유린이나 매장을 묵과해버릴 수 없는 정당한 이성에 입각한 사람이라면 근대식 무기의 혁명적 발전이 초래한 인류의 최종 전쟁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자기 의지의 실현을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호소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금(現金)이나 장래에 있어서의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의 인류 상호 간에 작용된 수단일 수는 없게 되었다. 오히려 앞으로의 투쟁은 인류 대 전쟁의 것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선 미국의 국방정책과 전략사상을 더듬어 보려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가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특별교서에서 “우리들의 군비의 주목적은 평화이지 전쟁이 아니며. 그것을 확실히 하고. 전면전쟁과 제한전쟁, 핵전쟁과 비핵전쟁, 대전쟁(大戰爭)과 소전쟁(小戰爭)의 구별 없이 일체의 전쟁을 저지하고 공격이 무익한 것임을 모든 잠재적 침략자에게 납득시키고 분쟁의 외교적 해결에 지지를 제공하고군비(軍備) 경쟁을 끝내기 위한 교섭에 있어서의 우리의 충분한 힘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미국국방의 기본정책을 단명하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어떠한 공격에 있어서도 결코 선제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다시 부연하자면 오늘날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 중에서 군사력에 의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따라서 전략이나 심리는 물론 경제까지도 대규모의 군사력을 항구적으로 유지하는데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니, 미국의 군사적 태세는 일체의 가능성을 탐구하여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평화적 해결책에 의한 군비 제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모순되지 않도록 충분한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군비를 감축시키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케네디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이 약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힘의 표명인 동시에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국가적 전통에 의한 것이며 전쟁이 무의 이상의 절멸적(絶滅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본 정책에 입각한 미국의 전략은 이른바 유한 억제 전략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보겠는데 다시 말하거니와 이 전략은 결코 전쟁을 위한 전략이 아니고 전쟁 억제를 위한 전략이고 전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고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전략이다.

현금(現今)의 전쟁은 대체로 미(美)·소(蘇)가 주 교전국이 되고 일체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전면전쟁과 공산주의 세력의 국부적인 침식에 대항하는 제한전쟁의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던 대량 보복 전략도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미·소 간의 힘의 관계가 변전(變轉)함에 따라 효과적인 억제제가 거의 결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단계에 현 케네디 대통령이 등장하였다.

케네디 행정부의 전략 사상을 요약한다면 전면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하, 공중, 해중을 통한 삼위일체의 미사일 체제를 확립하고 제한전쟁에 대비하고 나아가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상 병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공수(空輸)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공표하였다.

#### a. 전면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력

절대로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절대적인 저지력에 가까운 전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미국의 희망이다. 이와 같은 전력은 상대방의 기습 공격의 밥이 되지 않는 은폐되고 기동성이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전략가 및 군사 정책 수립자 간에는 제1공격력과 제2공격력이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2공격력이란 억제에 실패해서 상대방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괴멸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전력을 말하고 억제력으로서 등장했지만 상대방의 초기의 기습에 의하여 능력을 상실해 버릴 것들을 제1공격력이라고 본다. 지하에 노출된 기지 또는 기동성이 없는 고정된 무기, 지하에서 대기 중인 항공기 등이 후자에 속한다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폴라리스 잠수함이나 고도로 기동화된 미사일 및 공중에서 대기하는 항공기 등은 전자에 속한다. 자유와 평화를 애호하는 까닭으로 항상 수세의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는 국가는 도전적인 국가보다 더욱 진보되고 발전된 무기 체계와 무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키신저 교수의 고층어린 이론은 이러한 관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믿어진다.

케네디 대통령은 금년 3월 28일 회의에 보낸 국방 예산 교서에서 상기(上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기로서 폴라리스 잠수함, 고체연료 미사일인 미닛맨 및 스카이 볼트 등의 건조,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청하였다.

폴라리스 잠수함은 이미 널리 세상에 알려진 것이므로 설명을 가할 필요도 없지만 이 잠수함의 특징은 장시간에 걸쳐 깊은 해중을 잠항(潛航)하면서 잠수한 채로 적재

하고 있는 고체연료의 핵탄두를 부착한 중거리(약 1,600마일) 탄도 미사일 16발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폴라리스 잠수함은 1960회계년도까지에 이미 9척이 발주되어 있었고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61회계년도에 5척의 착공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케네디 대통령에 의하여 1961회계년도에 새로이 5척이 추가되어 10척으로 늘었고 다시 1962회계년도에 10척을 건조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1963년 여름까지는 29척의 폴라리스 잠수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이것을 가리켜 철벽의 저지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UPI는 미국이 50척의 폴라리스 잠수함의 건조 계획을 시사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1964년까지에 즉시 전투태세를 취할 수 있는 폴라리스 잠수함의 수를 50% 증가하도록 명령했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발표와 합치되는 것이니 폴라리스 잠수함의 절대 소요(所要) 수가 증가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미니트맨은 아트라스나 타이탄과 같은 ICBM이지만 아트라스나 타이탄처럼 액체연료를 쓰지 않고 고체연료를 쓰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동시에 이것은 분산된 간단한 기지에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철도차량 위에서도 발사할 수 있게 개발될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배당하고 기동형의 개발 작업을 계속시키는 한편 기지부대의 편성을 명령했다.

스카이 볼트는 항공기에 의해서 운반되는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이며 이것은 B52 장거리 폭격기 및 영국의 모든 폭격기에도 적재할 수 있는 공중 발사 고체연료 사용의 핵탄두 탄도탄이다. 이것은 적의 공격 전에 이륙하는 (즉 공중 대기 중인) 비행기에 항시 적재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초기 기습에 말소될 염려가 비교적 적고 동시에 기(既) 생산된 폭격기의 유효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상의 무기체계(전력이라고 생각해도 좋다)를 통하여 우리는 미국의 신정부 가 전면전쟁에 대비해서 열핵무기를 발전시키되 이것들을 해중, 지상, 공중의 그야말로 입체적인 투발(投發) 태세를 갖추므로써 이것을 억제하려는 심산임을 알 수 있다.

#### b. 제한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력

케네디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안전은 비단 핵공격에 의해서만 위협을 받는 게 아니고, 전략부대의 위력과는 관계없이 파괴공작, 침투, 협박, 간접 침략, 국내 혁명, 외교상의 공갈 등의 제세력 계열라전 또는 일련의 제한전쟁 등에 의해서 주변 지역이 서서히 침략 당하는 것으로도 위협을 받는다고 간파하고 이와 같은 국지전의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 이념을 같이하는 여러 국민과 국가와의 협력적인 노력에 기대해야 하지만 미국 자체의 광범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통상 병력상의 필요한 개선을 가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대량 보복 전략을 내세운 고(故) 텔레스 장관은 미국의 재정상의 이유를 들고 이 방면에 극히 소홀하여 육군의 병력과 예산을 계속 삭감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점과 좋은 대조가 된다.

제한전의 저지 또는 이익 확대를 방지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케네디 대통령의

계획은 ① 국지전과 게릴라전 능력의 강화, ② 비핵무기의 연구 확대, ③ 수송 능력과 통상 병력의 유연성의 증대, ④ 통상 부대의 병원(兵員), 훈련, 즉응(卽應) 태세의 강화 등인데 이것은 베를린 위기를 계기로 하여 크게 구체화되었다. 즉 지난 10월 11일의 기자회견 석상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정부는 1월 이래로 국방 예산을 60억 불 이상 추가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14% 여(餘)의 증가다. 비핵병력에 있어서는 2개 사단을 증가시켰고 기타의 병력 증가도 요구하였다. 특히 공군 분야에서는 근대적 장거리 항공기 생산력을 75% 증가했다. 그리고 게릴라 대항 병력을 150% 증가했으며 M-14형 소총의 인지도 월간 9,000정에서 44,000정으로 확대시켰다. 그 외에 육군, 해군, 해병대의 각 부대의 병원, 상태에 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언명(言明)이 저간(這間)의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

불퇴전(不退轉)의 태세의 기반 위에서 담평(談評)하고 협상을 통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려는 세계 전략적 뉴 프런티어는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

#### 4. 미국의 군사력

군사력만이 전력(戰力)이 아니라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해놓고 전력이라는 테마를 내걸고는 군사력만을 취급하려는 태도에 의아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지면도 지면이러니와 정치·경제·사회·심리·사상 등의 제 분야는 필자의 능력 범위 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생략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a. 육군

케네디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행정부로부터 정권을 인수할 때의 미국 육군의 병력은 14개 사단을 기간으로 한 87만이었다. 이것을 좀 더 세밀히 따져보면 사단 24개 외에 기갑연대 5, 장갑전투단 1, 보병사단 2, 전투단 9, 육군 미사일 부대 5, 방공대대 97, 항공기 5,800대의 병력이다. 그런데 현재의 병력은 전절(前節)에서 인용한 케네디 대통령의 발표대로 증강된 상태에 있다. 현재의 병력은 대체로 90만의 선에 도달한 것으로 상상되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군사고문인 테일러 대장은 육군의 병력을 100만까지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담임을 참고적으로 부언해둔다.

##### b. 해군

미국의 보유 함정은 공모(空母) 79, 전함 12, 순양함(巡洋艦) 51, 구축함(驅逐艦) 379, 호위함, 프리깃함 36, 원자력 잠수함 10, 잠수함 186 등이다 기타의 것들을 포함해서 약 2,760척, 780만톤(噸)인데 이 중 현역 함정은 817척이다. 그 내용은 공모 23, 순양함 16, 구축함 226, 잠수함 119, 보조 함정 433척으로 되어 있으며 항공기는 8,500대 내외이고 인원은 619,000명이다.

해병대는 3개 사단, 3개 비행단을 병원(兵員) 175,000명으로서 유지하고 있다.

##### c. 공군

미국의 공군은 전략공군, 전술공군, 방공군, 대륙공군(예비군 및 훈련 담당)과 해외파견공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Wing 수는 전략 38, 방공 20, 전술 33,

계 91개 Wing이며, 항공기는 19,000대 이외, 인원은 825,000이다.

##### d. 배치 상태

미국의 군사력이 소련의 침투를 저지하고 서방 세계의 자유와 안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계 전역에 걸쳐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들은 지역별, 임무별로 8개의 통합군으로 편성되어 있다. 즉 NATO의 기간을 형성하고 있는 구주통합군, 북은 알류산 열도로부터 남은 인도양까지의 광범한 지역을 담당하는 태평양 통합군, 북미 대륙을 방위하는 알래스카 통합군, 파나마 운하를 중심으로 카리브해와 중남미 지역을 담당하는 카리브 통합군, 북미 대륙의 동부 해안과 유럽 일대를 방위하는 대서양 통합군, 미국 본토의 방공(防空)을 담당하는 대륙 방공군, 동대서양과 지중해 지역을 담당한 동대서양 및 지중해 통합군, 대량 보복력으로서의 전략공군이 그것이다.

전략공군은 B-52와 B-47 중폭격기(重爆擊機)로서 로서 구성되어 있고 전략공군의 8분의 1은 상시 공중 대기 중이며 또 반수(半數)가 경보 후 15분간에 임무에 취(就)할 수 있도록 대기 태세에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11일의 케네디 대통령의 발표에 의하면 베를린 위기를 계기로 15분 대기 태세의 전략 폭격기의 수를 50% 더 증가시켰다고 한다. 이들 전략 폭격기는 각 기(機)마다 20M/T의 수폭(水爆) 삼발(三發)식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미사일 부대의 확충이 완료될 때까지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절대적인 희망이다.

##### e. 통합군

각 통합군에는 상응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직접적인 대소(對蘇)전력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 통합군과 태평양 통합군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 △유럽 전병력(遣兵力)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주요 병력은 육군의 제3·제8·제24보병사단과 제3·제4전차사단의 5개 사단과 전략공군의 일부인 제7비행사단(영국 본토), 제5비행사단(모로코), 제16공군(에스파냐) 및 유럽군 산하의 제3전술(영국 본토)이며 해상 세력으로서의 대서양 기동 함대와 제6함대대 등이다. 이밖에 영국에 소어(Thor) 4개 중대, 이탈리아에 주피터(Jupiter) 2개 중대, 터키에 1개 중대가 배치되어 있고, 영국에는 폴라리스 잠수함 기지가 있다.

##### △태평양 방면의 배치

사령부를 하와이에 두고 필드 제독이 지휘하는 미국의 태평양 통합군은 북은 알래스카로부터 남은 인도양에 이르기까지의 광범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논급(論及)한바 있거니와 이 예하(隸下)에는 수적으로 그다지 많지 못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의 병력은 3사단 67,000명이며 그 중의 2개 사단, 즉 제1기갑사단과 제7보병사단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예비인 제25보병사단이 하와이에 있다. 그 외의 부대로서는 한국에 와있는 제4미사일사령부 정도에 불과하다.

해군은 총병력 약 242,000명 전투 함정 약 250척에다 항공기 약 2,700대로 되어 있고 이것은 상시 전투

태세 하에 있는 제7함대와 미국의 4부 해안에 기지를 둔 제1함대로 나누어져 있다. 이 태평양함대의 항공모함군은 8척으로 되어 있는데 제7함대에도 2~3척이 소속되어 있고 여기에는 A3D 전천후 폭격기가 적재되어 있고 이밖에 대잠공모 4척을 가지고 있다. 제7함대 사령관 윌리엄.A.스코치 중장은 지난 11월 27일 제7함대도 불완전 폴라리스 잠수함을 인수할 것이라고 언명한바 있는데 태평양함대도 계속 근대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해병 2개 사단은 오키나와, 하와이 및 미 본토 서해안에 각각 분산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2보병사단과 같은 예비 병력이라고 볼 수 있다.

공군은 총병력 70,000명 약 1,800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제5공군(일본)과 제13공군(필리핀)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략육군부대

미국의 본토 내에 있는 하나의 유효한 전력은 1958년 5월에 편성한 전략육군부대(STRAC : Strategic Army Corps)이다. 이 부대는 4개 사단으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대해서도 즉응할 수 있도록 상시 입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부대는 제28공수사단, 제101공수사단, 제82공수사단, 제4보병사단 및 소요의 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5. 맺는말

지난 7월 10일 UPI는 “미국 병력은 소련 수장 흐루쇼프가 지난 주말 소련군 병력 삭멸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앞으로 소련 병력에 비해 근 50% 열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흐루쇼프의 결정은 소련이 362만 3천 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내년 7월까지 251만 7천 명을 확보하게 될 미국 병력과는 대조적이다. 110만 6천 명의 병력 차는 케네디 대통령이 요청한 2만 5천 명의 증원 계획을 미국 의회가 승낙한데도 소련으로 하여금 44%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사실에 가까운 숫자인 동시에 정확한 논평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은 장작개비처럼 숫자만으로 그의 강약을 규정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동·서방의 종합된 병력을 고찰한다면 지나치게 비관할 정도는 아니다. 여기 NATO의 소식통이 평가한 유럽에 있어서의 동·서의 군사력 비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총병력	육군	해군	공군
미국	2,489,000	870,000	619,000	825,000
영국	593,000	317,000	102,000	174,000
프랑스	1,026,000	812,000	68,000	146,000
서독	311,000	200,000		
벨기에	120,000	95,000	5,000	20,000
캐나다	120,000	29,000	20,500	20,500
덴마크	44,000	29,000	7,500	7,500
그리스	157,500	120,000	16,000	21,500
이탈리아	400,000	310,000	40,000	50,000
룩셈부르크	미상			
네덜란드	//			
포르투갈	79,000	58,000	8,500	12,500
터키	500,000	22개 사단		1개 비행군
계	5,839,500			

이에 대항하고 있는 공산 측의 병력은 소련 및 위성 국가의 그것을 합해서 500만으로 추산되고 있어, 유럽에 있어서의 동·서 세력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그다지 비관할 것까지는 없겠으나 문제는 동남북아에 있다. 동남아에 SEATO라는 집단 안전 보장 기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흐루쇼프의 말대로 중이로 만든 호랑이(Paper tiger)에 불과하고 미태평양 통합군 산하의 병력도 광범한 지역과 거대한 잠재적인 위협에 비할 때 그 취약성은 심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현지의 제 국민의 관심과 노력의 협력과 더불어 만만의 태세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소련의 극동군, 중공군, 북한 괴뢰 및 북베트남군의 총수는 약 330만이며 이들은 6,500대의 항공기와 100척의 잠수함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와 대치하는 자유진영의 군사력을 일별(一覽)하건대

- 한국.....60만
- 일본.....17만
- 중국.....40만
- 베트남.....15만
- 필리핀.....3만
- 태국.....7만

이상과 같이 지상군의 총수도 150만에 미달하는 상태이며 해군은 거의 보잘 것없고 공군 세력도 해군과 같이 미 태평양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태로서는 비록 대량 보복을 위한 전략군이 대기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의 상대적인 관계가 우열에 있지 않고 비슷한 형편이고 보면 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을 보다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중공의 위협이 시간과 더불어 증대해가는 실정은 현상태의 지속이 시간의 추이와 함께 극동의 자유진영의 위협을 심각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급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육군 대령·국방대학원 교수〉

욕심 없는 밀턴

실낙원(失樂園)의 저자로 유명한 시인 밀턴(1608~ 1674)은 찰스 1세가 즉위하였을 때 왕이 그에게 수입이 많은 지위를 주려고 하였다. 이에 밀턴의 아내는 남편에게 그 지위를 수락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근사한 마차를 타보고 싶은 모양이지만 나는 다만 정직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싶은 것뿐이요.....”

황제의 자존심

어느 날 나폴레옹 황제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손을 뻗쳐 서가에 있는 책을 꺼내려 하였다. 이때 마침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장군 한 사람이 다가서서 “폐하, 황송합니다마는 소신이 폐하보다 크오니 저를 시키십시오.....”

라고 말하니 나폴레옹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크지는 않지, 몸이 길다고 말하게.”

동서일화

## 소련의 세계 전략

-22차 대회와 향후의 세계-

김창순(金昌順)

### 1.

10월 17일에 개막되어 31일에 폐막된 제22차 소련 공산당 대회는

- ① 스탈린주의 배격과 반당종파분자(反黨宗派分子)의 규탄
- ② 알바니아 배격
- ③ 50메가톤 핵폭발의 예찬(禮讚)
- ④ 20개년 장기 계획의 전시 등으로 마치 하나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이었다.

호루쇼프는 이번 당 대회에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스탈린주의의 결정적 배격을 강행한 것이 사실이다. 그는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말렌코프 등의 정적을 이번 당 대회에서 여지없이 매장해 버릴 것을 각오하였다. 이것은 호루쇼프가 그들의 존재를 현재의 형편대로 놔두고서는 자기의 정책 노선을 강력히 밀고나갈 수가 없다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몰로토프는 불세비키의 대원로요, 레닌과 같이 혁명을 했다는 사람으로서 생존하는 자는 오직 몰로토프뿐이다. 카가노비치는 오랫동안 호루쇼프의 직계 상관이었으며 스탈린의 처남이기도 하다. 말렌코프는 산족(山族)의 혈통이기는 하지만 탱크 공장의 기사로 있다가 스탈린에게 발견되어 당의 간부 부장을 오랫동안 지내면서 스탈린 시대의 인사권을 관장했으며 사실상 스탈린의 후계자로 자타가 공인되어 오던 자이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호루쇼프와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를 당하여 이제 결정적으로 매장을 당한다는 것은 소련 공산당사에 또 하나의 이변일 뿐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전변(轉變)일 수도 있다는, 요컨대 호루쇼프는 스탈린주의의 권위와 스탈린주의자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호루쇼프 시대를 실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결정시한 것이다.

그것은 소련 국내만이 아니라 소련 위성국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호루쇼프의 정치 노선에 방해가 되는 내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스탈린주의와 스탈린 숭배자로 지탄되는 반당종파, 국제적 분열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한다는 것이다.

일생을 소련 공산당에 바쳐온 그들이 반당종파(反黨宗派)로 몰렸으니 갈 곳은 무덤뿐이요, 또 소련 위성국의 스탈린주의자들은 비열하다고 할만치 모스크바에 충성을 다해오다가 이제와서는 국제적 분열주의로 규탄되는 판이니 그럴 바엔 티토처럼 대열에서 떨어져 나오든가 또는 그대로 대열에 남아서 항쟁을 계속하든가의 어느 하나일 것이다.

1956년 2월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개인숭배 사상을 배격한다는 결정을 채택하여 기실(其實) 스탈린주의 배격에 전력을 경주하여 온 호루쇼프는 “스탈린 시대의 암흑 속에 다시 빠지기를 원하지 않거든 호루쇼프 노선을 따르라.”는 공연한 중용을 내걸고 오늘날 소련 국민들 가운데 몰로토프 등의 스탈린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강한가 또는 호루쇼프 노선을 지지하는 세력이 강한가를 대비하여 능히 판가리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확고해짐에 따라 호루쇼프는 자신의 승리를 시위하기 위하여 22차 당 대회의 기회를 이용하였으며 여기서 호루쇼프 시대의 결정적 등장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레닌과 같이 누워있었던 스탈린의 유체가 “재중(在中) 인민에 대하여 대량 억압을 행한 범죄자가 레닌과 같이 누워있게 해서 안 된다.”는 결의문이 당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24시간 안에 철수되어 크렘린 성벽 속에 이장된 사실은 지난날에 누구도 예측치 못했던 소련 공산당사의 이변이 아닐 수 없다.

### 2.

알바니아는 손바닥만한 영토에 인구는 180만이다. 500년 동안이나 터키의 지배하에 있다가 1927년에 독립되었지만 1939년에는 독.이의 공동 점령하에 들어갔고 2차 대전 말에 공산국가로 되어졌다.

티토가 스탈린으로부터 파문이 선고되자 유고슬라비아는 소련의 강대국주의-제국주의를 증오하는 민족적 감정을 격발시켰듯이 오늘날 알바니아는 호루쇼프가 엔베르 호자를 공격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반격을 취하였다.

스탈린이 티토를 공산주의의 이단아로 몰아서 파문을 선언한 것과 아주 정반대의 이유로써 이번에는 호루쇼프가 엔베르 호자를 몰아내고 있다.

호루쇼프는 22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호자를 공격하기를

“소련 공산당은 지금까지 여러 번 적으로부터 공연하고도 격렬한 공격을 받아왔지만 현재 알바니아 지도자가 감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급전직하(急轉直下)의 변절 광태(狂態)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아마도 제국주의자들의 선사(善捨)를 받은 권리를 획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 알바니아의 공산주의자와 인민이 발언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 현재의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과 사회주의 건설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결정적으로 이단시해버렸다.

엔베르 호자는 알바니아 노동당의



제1서기로서 스탈린 시대의 모스크바에 맹렬한 충성을 바쳐왔다. 그것은 스탈린이 티토를 단죄한 것과 저으기 때를 같이하는 것이었는데 그 까닭은 본래 유고와 알바니아는 민족적으로 불화 관계에 있었으며 알바니아인이 50만이나 살고 있는 북부 알바니아의 코스텐트 지역이 유고슬라비아의 영토에 포함된 사실에 대하여 알바니아 지도자들은 원한을 품고 있는 터인지라 티토가 스탈린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니 알바니아 노동당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고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래서 알바니아 노동당의 제1비서 엔베르 호자는 스탈린의 총아(寵兒)가 되었던 것인데 스탈린 사후에 흐루쇼프가 티토와의 화해를 구하고 스탈린 숭배자들을 모조리 공격하는 판이니 엔베르 호자의 입장이 불안해질 것만은 사실이다.

작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스파(派)는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 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엔베르 호자는 완전히 공산에 가담하여 흐루쇼프를 수정주의자라고 공격하고 회의 도중에 모스크바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때로부터 알바니아에 대한 소련의 식량 원조는 끊어지고 이에 대체되는 중공의 원조는 알바니아인들의 아사를 구원하였다. 알바니아의 통상 대표단은 자주 베이징을 드나들면서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정략까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쇼프가 알바니아 노동당의 지도자를 공격한 것은 기실(其實) 중공 지배자들을 공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엔베르 호자의 배경에 베이징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서의 흐루쇼프의 호자 공격이었다.

이에 대하여 저우언라이(周恩來)는 형제 제(諸) 당간(黨間)에서 발생한 논쟁과 견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정신과 대등·평등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이지 일방적인 비판을 공연히 적전(敵前)에서 하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흐루쇼프를 비판하였다(9월 20일).

그러자 소련 공산당의 이론 정책가로 알려진 수슬로프는 저우언라이의 그러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호자를 공격하였으며 소련 공산당 서기 고즈로프는 알바니아 문제에 대하여 의견의 대립을 조용히 해결하지는 저우언라이의 제의를 거부하고 “대립은 공공연히 하는 것이 유일적(唯一的)으로 정당하고 진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태도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반레닌주의적 행동을 계속하는 자들에 대하여 격려를 주자는 것을 의미함이다. 소련 공산당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신랄한 반격을 시도하였다(9월 28일).

이리하여 알바니아 문제는 세계 공산주의사의 새로운 일장의 개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 장에는 소련, 중공, 유고, 알바니아 등의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차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행동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흐루쇼프 시대의 소련 공산당은 중공과 알바니아를 극좌로, 유고슬라비아를 극우로 배격하면서 유독 자기네만이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우겨댄다. 이에 대하여 중공은 흐루쇼프 정책을 수정주의로, 티토주의를 배신적

우익수정주의로 배격한다. 알바니아는 중공과 전적으로 이론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삼파전은 앞으로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세계 공산주의사의 새로운 일장이 가는 길이다.

### 3.

TNT 5천만 톤에 해당하는 열핵 장치의 폭발력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폐허화한 원자탄에 비하여 2천5백 배 이상이나 더 강렬하다.

이 50메가톤급의 핵폭발이 일어나면 그 뒤 수개월 동안에 2톤 반의 방사능진(放射能塵)을 지상에 살포시키게 되며 그것이 무기로 사용될 때 지구상의 그 어떠한 도시도 절멸시킬 수 있다. 이 사실에 있어서 메가톤급의 폭탄은 확실히 공포의 무기임에 틀림이 없다. 22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쇼프가 “소련의 과학자들은 30메가톤급의 핵폭발 실험을 하였던 것이 아마도 50메가톤급 이상의 것으로 되어졌다. 우리는 소련 과학자들의 그러한 잘못을 추궁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말하였을 때 공산당 대회는 만장의 박수갈채를 보냈던 것이다.

공포의 무기를 예찬하고 열광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대회여기서 흐루쇼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해자인 방사능에 대한 서방 세계의 공포를 분명히 이용하였다. 공포의 전략에 있어서의 정치적·심리적 전범이다.

흐루쇼프는 그 누구도 소련을 상대로 하여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선언을 50메가톤급의 핵폭발로서 시위한 셈이다. 또한 이것은 이 세계에서 전쟁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자도 소련이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도 소련이라는 것을 시위한 셈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힘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항상 서방측을 공격하여 힘의 정책이라고 비난하여 온 흐루쇼프는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광폭한 힘의 정책에 의지하고 있다.

흐루쇼프는 국방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노동 시간을 1시간 연장하였고 국방 예산은 종전의 3분의 1을 더 증액하였으며 현역 군인의 복무연한 연장을 단행하면서도 그것을 말하여 평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흐루쇼프는 힘을 시위하고 힘을 배경으로 하여 자기네의 세계 정책을 밀고 나가려는 것이다.

흐루쇼프는 미국과의 직접적 전쟁 상태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면서 자기네가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양보는 그 무엇이든지 받아내자는 강욕(強慾)을 억제하지 않는 것이다.

독일 문제에 있어서 흐루쇼프는 궁극적인 서독·독일 국경의 오테르·나이세선을 서방측이 인정한다면 자기네는 베를린 통행권에 대하여 최후적인 위협은 보류한다는 조건으로 흥정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흥정이 성립된다고 하여 흐루쇼프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본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흐루쇼프는 판곳에서 동서 분쟁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난처한 입장에 몰아넣으려는 흥책을 조금도 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오스, 베트남 문제는 이미 그러한 흉책(兇策)의 유력한 후보로 되어있다. 요컨대 흐루쇼프는 여기서도 미·소의 직접 대결을 회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소련의 야심을 충족시키는 가능한 모든 술책을 다 할 것이다. 흐루쇼프는 그러한 세계 전략을 놓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들에게 소련은 50메가톤 핵폭탄이 있으니 미국 정부가 소련을 상대로 하여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포감을 갖게 하고 그것이 미국 정부의 대소(對蘇) 강경 정책을 견제하는 힘이 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또 대내적으로는 20년 장기 계획을 수행하면 이상 세계가 실현되지만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설득 공작을 광범히 진행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도 소련이 월등하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군사주의 정책을 합리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필자·시사평론가〉

### 〈동서(東西) 격담(格談)〉

△애국심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분간 외국에 살아 볼 일이다. -센토온-

△국가의 가치는 이경(異境) 국가(國家)를 조직하는 인민의 가치이다. -미루-  
△국가의 멸망은 대개의 경우 도덕의 퇴폐와 종교 경모(輕侮)의 다음에 온다. -스위프트-

△형(刑)은 형없음을 기(期)함에 있다. -서경(書經)-

△현신(賢臣)은 함부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촉지(蜀誌)-

△권리는 도리없는 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Men have no right to what is not reasonable” -쿠우파-

△고국이란 교목이 있음을 말함이 아니라 세신(世臣)이 있음을 말한다. -맹자-

△군자는 국가 제일의 공복(公僕)이며 국가 제일의 행정관이다. -빌헬름 4세-  
△기(驥)로 하여금 쥐를 잡힌다.

천 리를 뛰는 준마로 하여금 쥐를 잡게 한다는 뜻. 용인(用人)의 길을 그려 재인(才人)을 보잘것없는 임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기(驥)는 천 리를 달리는 양마, 걸출한 인물 장자, 추수편(秋水篇)에 “기(驥)는 일일(一日) 천 리 치(馳)하나 포서(捕鼠)에는 이성(狸狹)에 같지 않다고” 되어있다.

△일 필 광(狂)하면 천 필의 마(馬)도 광(狂)한다.

군중심리를 말한다.

When one sheep goes to dam the rest follow.

한 마리의 양이 댐에 가면 다른 양들도 모두 뒤를 따른다.

## 레닌에서 흐루쇼프까지

-소련 공산당 지배 구조의 변천 과정-

박동운(朴東雲)

### 〈스탈린에 거슬러 올라가면〉

소련의 독재 체제는 니키타 흐루쇼프의 등장 이후로 가혹했던 스탈린 시대와는 꽤 판이한 방향으로 진전되는 듯한 인상을 던져주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완화와 해빙 내지는 자유화의 경향까지 운위(云謂)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소련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지배 구조의 변천 과정에서 역사의 교훈을 찾아내며, 이른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생리를 파악한다면 속단이나 지나친 낙관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하기야 흐루쇼프는 1956년의 제2차 당 대회에서 소위 스탈린 격하 운동을 조직하여 가혹한 전 통치자의 개인 독재와 개인숭배, 그리고 권모술수와 피비린내 나는 협잡 숙청상 등의 죄상을 폭로, 규탄하였고 스탈린을 레닌주의 원칙에 대한 이단자라고 배격함으로써 스탈린이 내정하였던 말렌코프 등을 비롯한 그 직계 후계자 후보들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방책을 통하여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흐루쇼프 자신이 등장하는 신(新) 정세를 정당화시키려 했다.

이어서 흐루쇼프는 1959년 1월의 제21차 당 대회에서 이른바 반당(反黨) 그룹에 전면 공격을 발동시킴으로써 스탈린계의 거물들인 말렌코프,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등을 당중앙 위원회 간부와 기타 행정 요직으로부터 추방해버렸으며, 뿐만 아니라 비록 스탈린계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경쟁자로서 등장할 우려가 있었던 군부 내의 거성 주코프 등을 역시 추방해 버리는데 성공하였다. 드디어 1961년 10월의 제22차 당 대회에 이르러서는 더욱 맹렬한 반스탈린 투쟁을 전개하여 말렌코프, 몰로토프, 카가노비치는 평당원의 자격마저 상실함으로써 영원히 매장당하게 되었고 그밖에도 흐루쇼프의 다음 경쟁자로 될 수 있을지도 모르던 불가닌, 사브로프, 페르부힌 등을 반당 그룹에 포함시켜

이른바 흐루쇼프 체제의 공고화를 다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사한 과정은 1924년 이후의 스탈린 등장 시에도 벌어졌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24년 정월에 소련 혁명의 아버지라는 레닌이 사망하자 그 후계자로서 물망에 오른 인물은 트로츠키를 비롯하여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등이었고 스탈린이란 존재는 별로 빛나지 않았다. 그러나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교만, 과격, 독단적 경향을 흡잡는 동시에 소련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요구에 미소를 던져줌으로써 권력 투쟁에 과감히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스탈린은 트로츠키가 레닌주의를 트로츠키주의로 바꾸어놓으려는 이단자라고 떠들면서 1927년까지 그를 당과 정부의 요직으로부터 완전히 추방해버리는데 성공하였으며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도 각개 격파의 운명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당시에 스탈린은 이른바 당내민주주의를 목이 마르도록 외쳤고 레닌주의의 계 문제를 저작하면서 스스로 레닌주의의 수호자로서 분장하고 있었으니, 오늘날 흐루쇼프가 레닌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집단 지도제를 창도하는 것과 그 사정이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흐루쇼프는 다름 아닌 스탈린식 수법으로 반스탈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스탈린이 처음에 미소 정책을 쓰다가 다음으로 가혹한 개인 독재와 숙청 정책으로 옮겨갔다면 흐루쇼프가 또한 그러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스탈린의 숙청은 피를 동반했지만 흐루쇼프의 숙청은 피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탈린도 처음에는 피의 숙청을 삼갔으니 그의 최대 정적인 트로츠키의 국외 망명을 허용한 사실도 상기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니, 국제공산주의의 개인적 자질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때와 지금이 소련 사회와 국제 공산주의의 크렘린 제어력에 있어서 과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것이다.

### 〈소비에트 독재 체제의 원류〉

1956년 2월의 20차 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스탈린의 숙청 죄상과 개인 독재의 진상이 만천하에 폭로되자,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인 툴리아티는 스탈린식 개인 독재의 발생 원인은 소비에트 체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소비에트 체제를 그대로 두고 오로지 스탈린 비판만을 했다고 해서 장차에 또다시 개인숭배의 과오가 되풀이될 위험성을 제거할 보장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논평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보고 깜짝 놀란 소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개인숭배와 그 제 결과의 극복에 관하여”라는 결정서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명하였다.

“스탈린의 개인숭배는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이 당시에 처해 있던 특수한 역사적 조건(적대적인 자본주의 포위 하의 정세, 그리고 이에 기인된 지도면의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의 일시적 제한의 필요성 등)과 더불어 1922년에 이미 레닌이 지적한 바 있었던 스탈린의 약간의 부정적인 개인적 자질(조야성(粗野性), 사업과 동지에 대한 불성실성, 지나친 행정적 통제 등)의 영향 때문에 출현한 것이다. 개인숭배는 근본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하여 인연이 없다.

과연 인연이 없을까. 그것은 마르크스로부터 레닌에 이르기까지 현대 공산주의 경조들의 구상의 원류와 이미 고착된 소련 공산당의 지배 구조의 고찰에서 찾아볼 문제이다.

원래 마르크스주의는 1848년의 공산당 선언 이후로 종래의 모든 인류 사회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강조하는데서 국가란 예외 없이 계급 독재의 기구라고 보며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독재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독재가 가혹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마르크스는 1848년에 쓴 「위기와 반혁명」이라는 논문가운데서 말하기를 “혁명 후에는 어떠한 임시적인 국가 상태도 독재, 특히 정력적인 독재를 필요로 한다.”고 했으며, 또 레닌은 “독재란 직접 폭력에 입각하고 어떠한 법률에도 속박되지 않는 권력이다.”(「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교자 카우츠키」)고 역설하였다. 정신력이나 속박되지 않는 권력이나 하는 말이 가혹한 폭력 독재를 의미함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이어서 레닌은 또 그의 논문 「공산주의 좌익 소아병」가운데서 “대중은 계급으로 분화되어 있으며……계급을 지도하는 것은, 보통 대다수의 경우에 적어도 근대의 문명국에서는 정당이고, 통례로 정당을 지배하는 것은 가장 권위 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가장 책임이 무거운 지위에 있는 지도자라고 불리는 다소간이라도 안정된 집단이다.”고 했다. 이 문명을 보면 레닌의 구상은 계급 지배란 당적 지배이고 또 그것은 과두(寡頭) 지도층에 의한 집단 지도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런지 모른다. 마르크스도 1877년에 쓰기를 “엥겔스와 내가 공산주의자의 비밀 결사에 처음 들어간 것은 권위자에 대한 미신적 숭배를 조장할 요인이 규약에서 삭제될 것이라는 조건부였다.”고 하였으니, 역시 개인숭배에 찬성치



〈레닌〉



〈스탈린〉



〈흐루쇼프〉

않은 듯싶지만 실상인즉 흔히 볼 수 있는 겉손의 제스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레닌에 의하여 정립된 소비에트 체제의 핵심은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인 소비에트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일수(一手)에 틀어쥐는 동시에 그 소비에트가 당의 일반 방침의 전도체로서 당의 영도를 받으며, 명실공히 당이 국가를 통솔(統治)한다는 사실이다. 또 촌으로부터 시, 군, 구역을 거쳐 관구(管區), 주지방(州地方)으로 올라가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소비에트는 초급당으로부터 당 중앙 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위의 각급 당의 영도를 받는 외에 그 피라미드식 구조의 최고층에 가서는 양자의 정점이 일치되어서 몇몇 과두 독재층에게 귀결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리고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조직 원칙에 따라 상급 지도층은 모든 하급 조직을 강력히 지도함은 물론 그 결정을 철회(撤換)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통제 기구의 정상은 오래도록 수점(數點)일 수 없으며 결국은 1점으로 되고 만다. 바로 그 1점이 개인 독재로 나타나는 것이다.

게다가 무리한 건설로 가공적인 완전공산주의의 이상을 촉구하게 되니 마침내 폭력에 입각한 정신적 독재는 속박되지 않는 권력 행사 과정에서 반대자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하급은 피라미드의 정점에 대하여 이의 중립이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흐루쇼프가 공격하는 스탈린의 개인 독재와 그 반인간적 죄행을 가능케 한 조건은 결코 소련 공산당이 1956년 이래로 변명하는 것처럼 특수한 역사적 조건이나 스탈린의 약간의 부정적인 개인적 자질에 돌릴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 체제 자신에 깃들은 모순의 발로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나아가서 모든 책임은 트리아트의 말처럼 소비에트 체제에 그쳐질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체제를 조성하고 정당화해온 공산주의 이론 자체의 반인간성에서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 〈집단 지도제의 장래 전망〉

레닌은 집단 지도를 상정하면서도 그 실천은 개인 독재였다. 그러나 레닌의 경우는 그가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10월 혁명의 승리의 조직자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정당의 창립자라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소비에트 정권 수립 이후로는 그의 생전에 누구도 감히 그와 더불어 경쟁할 생각을 내지 못했으므로 독재가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었다.

스탈린의 경우는 선배적인 경쟁자들을 타승(打勝)하는 방책으로 초기에는 당내 민주주의와 완화의 인상을 표방하려 했으나 집권의 후기에 들어서자 공산당식 권력 구조의 피라미드적 생리와 그 자신의 부족점을 폭압으로 보전하려는 데서 가장 가혹한 개인 독재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흐루쇼프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는 스탈린계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스탈린의 개인 독재를 공격하고 레닌주의적 원칙이라는 집단 지도제를 창도하면서 크렘린의 제1인자로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집단 지도제 운동의 당초시기에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1서기라는 지위만을 가졌던 흐루쇼프는 그의 권력 투쟁 행정에서 마침내

내각 수상의 지위까지 겸하게 되었다. 이제 그의 지위는 개인 독재를 자행하던 생전의 스탈린에 조금도 부럽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흐루쇼프가 명실공히 개인 독재로 이행할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 및 공산권 내의 객관 정세는 스탈린 시대와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졌다. 우선 소련의 국내 정세와 민중의 자당(自黨)의 향상은 완화를 긴축으로 되돌아가기 힘들게 만들었다. 생산조직면에서 산업의 대폭적인 지방 분산이 이루어져 있으며, 점차로 자유를 쟁취하려는 청년 학생들과 군인 및 군중의 움직임은 크렘린 내의 낡은 세대와는 사고방식이 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22차 당 대회를 앞두고 당 강령 초안을 전 인민적으로 토의하던 때만 하더라도, 소련 공산당 및 소련 정부 기관자인 「프라우다」와 「이즈베스티야」지를 보더라도 인권 옹호와 사생활 불가침의 요구가 광범히 전파되고 있는 증좌가 뚜렷하다. 때는 이미 크렘린만 장악하면 그만이던 시기가 아니다. 흐루쇼프는 바로 그러한 풍조에 편승하여 스탈린파를 타승(打勝)하였지만 이제 와서는 바로 그 풍조 때에 개인적 자의에 제주(制肘)를 받게 된 셈이다.

다른 한편 공산당 내의 소위 강철 같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적 단결이라는 것이 날로 붕괴 또는 소산화(疏散化)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중공은 소련의 흐루쇼프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였고, 알바니아는 소련 지배를 물리치는데 성공하였다. 폴란드도 크렘린에 대한 맹종은 이미 1956년에 청산한지 오래이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의 제주력(制肘力)은 흐루쇼프의 개인 독재 노선 채택을 불가능하게시키 만들었다. 개인 독재란 원래 통제력 강화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개인 독재가 통제대신에 고립의 심각화를 초래할 따름이라는 전망이 뚜렷하다. 그리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다름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 존중이 없기 때문에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껏 그러한 사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긴장 상태와 빵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련 내의 민중들도 최근년에는 두던체프의 소설과 같이 “빵만으론 살수 없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공산주의는 인격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성장을 부정하고 이른바 계급 혁명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생산 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을 조직의 그물에 얽매이게 하는 동시에 공산당이 요구하는 일정한 틀에 맞추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인간적 이론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민주주의는 인격의 성장은 오직 자유로운 제도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도 날이 갈수록 눈뜨기 시작한 공산권 내의 민중은 스탈린식 개인 독재의 부활 경향과 싸우는 동시에 장래 어느 한 시기에 가서는 기필코 자유제도를 요구하면서 소비에트 체제를 붕괴에 이끄는 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필자·한국일보 논설위원〉



## 호루쇼프의 20년 계획

-그 내용 및 분석 비판-

유완식(兪完植)

지난 10월의 소련 공산당 제22차 대회에서는 새로운 공산당 강령을 채택하였다.

새 공산당 강령의 증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소련의 20년 계획이다.

이번의 새 강령은 세 번째의 것인데 과거의 두 차례의 강령 즉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과 1919년 러시아 공산당(불세비키)에서 채택된 강령은 각각 당의 정치 행동의 목표 혹은 임무를 규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경제 계획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이번의 강령은 특이성을 갖는 것이다. 이 특이성은 소련 인민 나아가서는 공산세계의 전 인민의 시선을 현실로부터 미래의 꿈에 돌려보려는 정치적 저의에서 온 것이라는 일면을 간파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호루쇼프의 20년 계획에는 하나의 꿈으로만 돌려버릴 수 없는 자유진영에 대한 경제적 도전이라는 심각한 내용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 1. 20년 계획의 목표와 내용

20년 계획에서는 소련이 미국의 생산력을 따라잡고 넘어서며 공산주의 사회에로의 점진적 이행을 개시한다는 것을 시간표로서 제시하고 있다.

즉 1970년까지의 10년간에는 국민 1인당 생산고(生産高)에서 미국을 능가하며 다음 10년간에 공산사회에로의 이행의 기초를 확립하고 점진적 이행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만약 소련의 생산력이 미국의 그것을 능가하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첫째로 소련의 군사적 기반을 일층 강화하고 자유진영에 보다 큰 위협을 준다. 현재 생산력이 미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수한 정치,

경제 체제로 말미암아 미국과 거의 동등의 자원을 군사력에 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만약 그 생산력이 미국을 능가하였을 경우에는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경제 개발을 서두르고 세계의 저개발 제국에게 소련 체제의 매력을 주고 한편 소련은 저개발 제국에게 원조를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어 세계 정치에 있어서 극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셋째로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위를 이데올로기 선전에 이용할 수 있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연 4% 만으로 하여가면 급세기 중에 소련의 생산이 미국의 생산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 언명은, 소련과의 경제 경쟁이 가지는 군사적, 정치적 의의를 중시한데서 이라 하겠다.

요컨대 문제는 소련 공산당이 새로 채택한 강령의 20년 계획이 실현성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또한 미국의 금후(今後)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만한 템포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소련 공산당 새 강령에서는 경제 20년 계획에 관하여 그 개요를 말해 놓고 있는데 불과하나 어떻게 그 내용을 적기(描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 일반에 있어서 국민 1인당 생산에서 1970년까지의 10년간에 미국을 능가한다고 한다.

부문별로 보면 공업 생산에서는 1970년까지의 10년간에 약 150%, 1980년까지의 20년간에 500% 강(強)으로 증대할 것을 계획하였고, 농업 생산에서는 1970년까지의 10년간 약 150%, 1980년까지의 20년간에 250% 증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공업 생산면에서 구체적 생활 목표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전력과 강철이다. 전력생산량은 1970년까지에 연간 전력 9천억 내지 1조 시(時), 1980년까지에 2조7천억 내지 3조 KW 시(時)로 증대한다 하고(1960년 생산량은 3천억 KW 시 약(市弱) 강철 생산량은 1980년까지에 연간 2억5천만톤으로 증대할 것이 계획되어 있다.

다음에 공업 생산의 증대, 달성을 위하여 오토메이션과 교육의 보급 등으로 노동 생산성을 1970년까지에 2배로, 1980년에 미국 현재의 노동 생산성의 2배로 되게 한다는 것이다.

농업 생산에서 구체적으로 증대량이 명시되고 있는 것은 곡물 생산량을 20년간에 2배로 하고 축산물에서는 육(肉)의 생산을 10년간에 2배 이상으로, 20년간에 약 4배로 올리고, 밀크의 생산을 연간에 2배 이상으로 20년간에 약 3배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농업 생산성의 향상은 기계화 등에 의하여 10년간에 150% 강(強) 높이지고, 20년간에 5배 내지 6배로 높인다는 것이다.

이상의 계획을 보면 소련의 미국과의 경제 경쟁에 있어서 1960년대의 10년간이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20년 계획의 몇 가지 문제점

1. 소련의 경제 성장률의 기준

소련이 생산력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 넘어설 수 있느냐는 경제 성장률의 여하(如何)에 달려 있다.

경제 성장률은 보통 국민 총생산 또는 국민 생산의 증대율에 의하여 표시된다. 소련 측의 자료에 따라 지금까지의 소련의 공업 생산 증대율을 보면, 1918~57년에 15.9%, 최근에는 둔화되어 연평균 10~ 11%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련 측 자료의 신빙성이다. 미국의 소련 경제 전문가들은 소련 공업 생산이 그렇게 고율(高率)로 증대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즉 소련의 통계 작성 방법에 사실보다도 과대하게 견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소련의 연간 총 공업 생산 통계는 먼저 각 공업 기업의 생산액을 합계하여 산출하고, 이 연간 총 공업 생산을 비교하여 매해의 공업 생산 지수를 내놓는다.

이 방법에 의하면 공업 생산의 많은 부분에서 이중으로 계산되게 된다. 왜냐하면, 일부 공장의 생산물은 동년 간에 다른 공장의 생산의 자료, 원료로써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부 공장에서 생산되는 코크스의 많은 부분은 철광 생산을 위해 고로(高爐)에 사용되며 선철(銑鐵) 가격에 코크스의 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코크스 공장과 선철 공장의 생산액을 합계하면 코크스의 비용이 2회 계산되는 결과가 된다.

둘째로는 소련의 계획 경제에서는 공업의 각급 책임자는 자기 관할 하의 공장의 총생산고(生産高)에 따라 성적이 판단됨으로 될 수 있는대로 생산고를 실제보다 높이려 한다.

셋째로 소련의 공업 생산 증대 계획이 과대하게 견적되는 원인은 물가 변동의 수정이 적당하지 않다는 데도 있다.

공장 생산 지수의 목적은 실제 생산량의 증대를 측정하는데 있음으로 물가 변동에 의한 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즉 똑같은 양이지만 가격이 등귀하면은 액(額)으로 표시되는 생산은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련에서는 이것을 정당하게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소련 측 자료에서 표시된 과거의 경제 성장률이 과장된 것이고 또 앞으로 발표할 그 증대율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투자율 문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하여는 투자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點) 소련은 자원의 국가 관리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욕망 충족을 극도로 누르고 고율의 투자를 강화하여 왔다. 소련의 국민 총생산을 용도별로 분석하여 보면 근년 투자가 점하고 있는 비율은 약 25%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많은 때에 약 20% 정도였다.

이렇듯 소련이 국민 총생산 중 군사 목적을 위한 지출률이 미국보다 많고, 국민 총생산액이 미국의 절반밖에 안되는 데서 이와 같은 높은 투자율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소련의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원인의 하나는 투자의 내역에 있다. 즉 투자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생산 증대율이 달라진다. 투자에 의한 국민 총생산 증대는 공업 부문에서 가장 높고, 주택 건설에서 가장 낮고, 운수 투자는 그 중간이다.

지금까지 소련은 생산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공업에 총투자의 45%를 밀어 넣고, 미국의 그것을 28.4% 상회하였다. 반대로 효율이 낮은 주택, 서비스, 운수 통신 부문의 투자율은 미국이 소련을 상회하고 있다.

말하자면 소련은 경제 성장의 촉진에 조급한 나머지 공업화에 중점을 주고, 투자의 생산 효과를 가급적 높이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리고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공업 투자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소련이 앞으로도 종래와 같이 경제 성장 효과가 높은 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고율(高率)의 투자, 그리고 투자를 성장 효과가 높은, 공업(중공업을 중심한)에 중점적으로 돌리면서 국민에게 현실 생활의 희생을 강요하여 왔지만 이제는 점차 현실도 중시하고 소비재 생산의 비율도 증대하며, 주택·운수 등의 투자를 증대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에 국민을 구사(驅使)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리고 보다 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운수 등에 대한 투자율의 증대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 소련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서, 종래의 중공업에 대한 투자율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면 종래와 같은 소련의 경제 성장률의 유지는 곤란하며, 따라서 20년 계획의 성장률이 보장되기는 극히 지난(至難)한 것이다.

## 3. 자원 문제

자원의 양과 이용은 투자의 성장 효과에 영향을 준다. 자원에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노동력)이 포함되는데, 소련에는 이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이것이 소련 경제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 A. 물적 자원

소련의 무역 통계의 판단에 따르면 소련은 아직도 일부 금속의 광석과 비철 금속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금속의 광석이란 주로 우라늄으로 보여진다. 비철금속 중에서는 동이 소련권 전체에서 부족되고 있다.

소련의 1인당 에너지 생산에서는 1965년에 가서도 영국에 뒤떨어질 예상임으로, 여기에 앞으로 큰 노력이 경주될 것 같다.

철광의 원료인 철광석은 크리보이로그 지역, 우랄 지역, 쿠르스크, 벨고로드 지역, 아시아의 크스라나이, 동시베리아 지역 등에 풍부한 광맥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쿠르스크, 벨고로드 지역, 아시아 지역의 광석의 질이 좋지 않고, 선광(選鑛)에 비교적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철광석 증산의 목표는 달성된다 하더라도 철광에로의 전환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곤란한 점의 하나는 시베리아에 계획되어 있는 공업 중심 지역으로부터 풍부한 점결탄 산지까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타이셰트의 철광 중심지에서 필요로 하는 점결탄은 그즈바스의 점결탄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멀다. 또 체레포베츠 철광소의 철광석은 1천5백 킬로의 원방으로부터 그리고 점결탄은 1천9백 킬로의 원방으로부터 수송되고 있고,

말하자면 코스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물적 자원은 대체로 풍부하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원이 공업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많음으로 수송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 B. 인적 자원(노동력)

인적 자원, 즉 노동의 양과 질의 문제는 고정 자본 투자량과 분배의 문제에 다음가는 경제 성장에 관계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영국과 서독 등의 선진국의 생산 능력은 노동력의 양에 의하여 제약되어있고, 인도 등의 후진국의 생산 능력은 노동의 질에 의하여 제약되어있다.

후진 제국의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은 실업자나 농민을 공업 노동자에 옮기는 데서 생기는 것인데, 소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급속한 성장의 중요한 일인(一因)은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의 노동력의 급속한 이동에서 온 것이다.

인구면에서 보면 소련은 1930년대의 강제적 공영 농장화, 강제 노동, 제2차 대전에서는 약 2천만의 인구를 잃었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율은 미국보다 낮은 형편이다.

그리고 제2차 대전 당시의 출산율의 저하가 도리어 신 노동력의 증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1963년까지 이 악영향이 계속된다.

이상은 1964년부터는 신규 노동력의 증대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경제 성장에 호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1956년 당시의 신규 노동력 증가 수준을 회복하려면 1968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소련의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하나의 중대한 요인으로 되어있다.

소련의 1928년 내지 1955년의 공업 생산 증대의 60%는 노동력의 공급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 하는데, 중전과 같이 노동력 공급의 증가가 기대 못 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소련의 경제 성장률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요(要)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얼마큼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지금 소련 공업의 노동자 1인당 생산고는 미국의 40 정도로 보여지고 있다. 20년 계획에서는 노동 생산성을 연평균 9.5%(현재 5~6%)씩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소련 공업의 점차적 성숙화에 따라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 4. 농업

소련에서는 공업 증대율이 급속한 반면에 농업 생산의 증대율은 매우 낮았다.

서방 전문가의 추계에 의하면 1928년 내지 55년에 공업 생산 지수가 7배 전후로 증대한데 대하여 농업 생산 지수는 15억 정도 증가하였을 뿐이다. 농업 생산 증대율이 낮은 원인은 첫째로 소련 농업의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점이다. 거의 전부의 가경지가 한랭하며 건조하다. 비옥한 토지의 대부분은 강우가 부족하여 해에 따라 풍작(豊作), 부작(不作)의 차가 우심하다.

둘째로 공업의 급속한 성장을 위하여 농업이 희생되고, 공업 원료와 급증하는 도시인구의 의식(衣食)을 충족하기 위하여 혈값으로 농민에게 강제 공출을 부과하였으며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농민에게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이 결과 소련 당국에 대한

농민의 열(烈)한 반감이 야기되고 농업 생산 정체의 원인이 되었다.

셋째로 공업 생산을 급증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으로부터 많은 노동력을 흡수하였다.

넷째로 공영 농장의 강행으로 농민이 생산 의욕을 잃었으며, 창고가 억눌리어 왔다.

이 결과 소련은 만성적 식량 부족에 놓여 있었으며, 농업 생산의 후진이 중대한 문제로 되어왔다.

호루쇼프는 집권 이래 농업 발전을 위하여, 공영 농장의 운영의 개선, 농촌 노동력의 공업에로의 흡수 정책의 지양, 농산물 가격의 인상, 처녀지 개발 등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성과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문제는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하고 농민 1인당 생산량을 어느만큼 증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1952~59년의 평균으로 소련 주요 생산물의 에이커 당 생산고는 미국의 절반도 못 된다.

20년 계획에서는 농업의 노동 생산성을 1970년까지의 10년간에 150% 향상시키고, 다음 20년 이내에 5배 내지 6배로 향상할 것이 예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면 공업에 돌려야 할 자원이 적어지며, 공업의 성장을 둔화하게 할 요인을 가져오는 모순이 생긴다. 그리고 자연 조건이 많이 의존되어있는 농업이 인위적 계획대로 되어갈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고찰해보면 소련의 20년 계획은 실현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앨런 텔레스 중앙정보국(CIA) 장관은 양원 합동 경제 위원회 통계 소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1959.11) 소련 경제는 연평균 8~9%의 성장률로써 확대하여 갈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증언은 소련에 대한 과소평가를 경계하려고 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고, 실제의 공업 생산 증대율은 런던대학 강사 아렛트 노브 씨가 말한 8.6%의 유지도 곤란하고, 7 내지 8%로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어떻든 이러한 성장률도 소련 국민 생활의 출혈적 희생과 인간 정신의 유린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자유세계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 하겠다.

〈필자·시사평론가〉

#### 동서 격담

10세에 신동, 15세에 재자(才子), 20이 넘으면 범인(凡人).

말하자면 조숙이다. 교육상 이러한 형(型)의 아동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20이 넘어서도 계속 심신의 발달을 촉진시키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 교육상의 하나의 과제가 되는 아동형. 영어로는 다음과 같은 뜻으로 되어있다.

Soon ripe, Soon rotten: soon wise soon foolish.

## 소련 집단 체제의 이면

-그 독재성을 해부한다-

김기점(金基漸)

소련을 비롯한 위성국 내에 있어서의 집단 체제에 대한 각기 사회 내부에 있어서의 의식적인 불만이 상존(尙存)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또한 이것은 실지 공산주의 사회의 인민 생활에 있어 인간으로서의 기대와 현실과의 사이에 있는 불일치된 현상으로서도 그 조직은 그 사회 구조 내부에 있는 제 집단위에 암암리의 갈등과 충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그 집단 표면상의 위치와 형태를 농민의 실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적인 것으로 대체로 소련 인구의 반을 형성하고 있는 농민 가운데 한다는 것은 약간의 의문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근인(根因)의 대부분은 이들 농민들이 사유권과 경작권을 위하여 그들의 희망과 포부를 유지해왔다는 단순한 사실로 미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상대적인 경제적 자유의 잔인한 생산주의 기간에 있어서 고조된 점과 근년에 이르러서는 세계 제2차 대전 기간에서 행하여졌던 토지의 사기업적 이용에 대한 완만에 의해서 고조되어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농민에 대한 토지 분배가 정부의 이념적 기초와 중소 농민에게 약속한 바 있었던 정부의 계속적이고, 대외적 선전 관계가 사실에 있어서 소련 내부에서 조직되고, 시행되었던 바와 같이 집단적 경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불평, 불만을 자아내게 되었으며, 1935년 집단화된 농민들의 집단 농장(콜호즈) 제도로 변모되었을 때 농민의 개인주의적 경향과의 일정한 타협점이 엿보였던 것이며, 협동조합 조직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전 농민은 집단 농장에서 집단 노동하는 외에 개인적 농지의 유지 경작이 허용되었던 것이나 1935년 이후로 소련 농업의 기초적인 제 사업을 집단 체제 내에서 개인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사이에는 악성적이고 양성적인 불화의 실마리로 되어오게 된 것이다.

그 실(實)은 더듬어보면 농민은 자기의 농지에서 노동하기를 즐기며, 또한 그것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불려나가고 싶은 것이 본의이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노동과 시장에의 배출이

크게 진전되어 실제로 도시 식량 공급의 실질상의 몫을 생산했던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인 1946년에 정부는 집단 농장화의 부활을 위해 적당한 집단 노동을 유발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최소의 노동 기준 경제적 충동, 개인적 노동에서 유인되는 수입세의 차별, 훈련의 방법 등을 들었다.

그리고 농민들은 자신의 부유한 생활 영위를 위한 나머지 농민과 집단 농장 관리인사이에는 끊임없이 적의를 품게 하였으며, 한편 집단 농장 관리인의 책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단하고 주기적인 독려와 감시의 눈초리를 더욱 날카롭게 하여왔다.

이러므로 야기되는 집단 농장 수입의 차이는 여러 가지 난사(難事)를 면치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정부와 농민 간에는 불만과 불화가 조성되기 마련이었다.

1929년 이래의 소련 정부 농민 정책의 일반적 경향은 무산 대중화의 방향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토지 소유로부터 실질적으로 농업 노동의 분리를 위한 창조적 방향인 것이다.

집단화와 같은 이 정책은 아마도 탁합(濁合)하는 경제적·정치적 이익의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농업 정책은 그 제도는 낮아진 사실로서 그리고 농업 수입의 감소된 할당으로 일반 국민의 식량 공급량을 얻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대규모의 농장과 고도의 기계화 및 농업 생산고의 대부분에 대한 통제된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제도 자체가 스스로 토지로부터 도시와 공장 속으로 노동자군을 만들어 투입시키려는 수단으로 변모되었고, 정책적으로는 이 제도가 독립된 토지 소유자로서 연합된 개인주의적인 사회적 외모를 변경시키는 방법으로서 스스로 변모했던 것이다.

1929년 이래의 농업 생산고가 농민에 대한 소련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촉진되었는가 아니 되었는가의 논쟁의 초점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당(黨)과 비밀경찰로서 결성된 농업 집단의 직접적인 관리 기구가 적당한 통제 하에서 농민의 이론(異論)을 지킨 이래로는 정책적 문제는 예민하지는 않으며, 분리되고 조직 없이 소련 농민은 역시 독립적이고 능동적이며 정책적인 힘은 아닌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실의 음성적 존재가 대내적 위기의 본원적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잠재적 요인인 것과 같이 정부에 대하여 농민의 집단화에 대한 불평·불만의 문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 그것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에는 소련을 둘러싼 위성국의 소수민족 관계를 들춰본다면 이들 국민간의 국민성의 영역 내의 국민적 감정이 각기 상이한 것으로 그 위치가 크게 변해지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소련에 병점(併占)된 지방과 국가의 평가는 제외하고라도 불세비키 정부 시(時)는 별개로 반대하는 분리주의적인 소수민족을 조종하는 문제를 옛 러시아로부터 인계받았을 것이며



차르리스트 정권하에 있어서 민족적 차별에 어떤 영역 내에서는 다만 한 소수집단이 다른 소수집단에 반대하도록 충동, 자극하여 중앙 집권의 권세를 증가, 강요하려는 술책으로 고무되어 왔던 것이다.

차르리스트의 정책은 하나의 차르(구 제정 러시아 황제의 칭호) 하나의 종교, 하나의 문어(文語)로는 하나로 분할할 수 없다는 규강에서 반영된 것으로, 하나의 정책으로 비참한 상속을 남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으나, 현재까지 민족성 문제의 관건적인 요소로 남아 있는 민족적 인텔리겐치아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통치적 중요성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민족 정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기치아래보다 큰 단위로 합치고 모일 수 있으리라고 믿어왔던 것이다.

레닌과 그 추종자들은 연방주의에 입각한 집단 체제를 위한 나머지 종전의 반대를 급격히 경감시키고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된 목적을 가진 새로운 정책을 강력히 추진시켰었다.

말하자면 러시아인은 그들의 국가의 지리적 상속 재산을 보존할 것을 확고히 할 것과 냉대되지 않았던 비러시아인들을 자각시켜 강제적으로서의 러시아화의 차르리스트 프로그램이 중지되었던 비러시아인을 확보할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면으로 채택된 정책은 다음의 사실에 의해서 무효된 외면상의 정치적 자기표현의 변형을 받아들여야만 했었다.

그 사실이란 공산당을 통해서만 작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공산당은 중앙적인 통제 작용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상 자율의 승낙은 소수민족의 문화 수요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숙고되었다.

정부의 새로운 볼셰비키 정책은 매우 효과적으로 볼셰비키 정부와 소수민족 간에 생긴 최초의 불화를 약체화시켰다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문화적·예술적 자유의 확장을 통해서 정치적인 충성을 확보하고 이로써 그들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에 충만했었던 것이다.

민족 문화를 육성, 발전하고 방언의 사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정책은 비러시아계의 인텔리겐치아에 의해서 특히 비러시아계의 젊은 세대의 대의사(代議士)들에 의해 더욱 진보된 단계로 맞아들여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에서는 많은 러시아인과 러시아화된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화를 반대했다.

이러한 문화적·경제적 정책은 농민·노동자·지식층들 가운데 상대적인 만족감을 자아내게 하는 소수민족 정책의 설정에 수반되어 갔던 것이다.

1927년경에서부터는 스탈린이 소비에트 국가에 관한 그의 개인적 장악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정부는 문화의 자율과 대러시아계와 비러시아계와의 관계에 일정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바로 인구의 대부분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태세의 변화였으며 그 중에서도 문화와 예술부문에 있어서 극심하였으니 민족적인 본체 감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요소이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지도역량을 가진 작가를 1938년까지 계속적인 대숙청의 시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 실(實)을 스탈린은 “1934년에 지방의 맹목적 애국심이 국가를 위협 속에 빠뜨렸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이럼으로써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를 강화시켰다.

스탈린의 이러한 정책은 차르리스트의 러시아화에로의 퇴보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면으로 정부는 1941년까지 어느 정도 성공해 왔다고 보았으며, 정부는 대체로 소련의 중앙집권으로 계획하고, 관리되는 기계적인 제도 내에서 민족적 영역의 경제를 영위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련 시민의 충성심을 그 실(實) 획득 못하였던 것은 명백한 일이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정부에 대한 반감이 조성되고 표현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독일인에게 군대 조직의 대규모적인 탈퇴와 항복으로 나타났었다.

즉 제2차 대전 전후의 소비에트 정책은 베리아의 영향 아래서 취해진 1953년의 간단한 회전선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러시아화에 대한 경향이 예리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제 민족간의 영역에 있어서 러시아 관리의 수효를 증가하는 것으로 선전 조직에 있어 특별한 지위의 강조와 인민의 계속된 재정주(再定住)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거(反擊)는 전쟁 이래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숙청에서 반향되었고 근래에 있어서는 비러시아계의 지식 계급의 대부분은 분명히 형태로운 민족 내용으로든 사회주의자라는 공식적인 울타리 안에서 유지되는 궁극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것은 결코 민족주의 정신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현존의 러시아화 정책의 결과로서 증가되어 왔음을 암시한다.

반면에 강화된 러시아화 계획은 약간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비러시아인에게 대러시아의 상징을 적용한 것은 전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는 없다.

러시아의 문화적·예술적 국면에 있어서의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의 많은 국면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소수민족의 젊은 청년 정신에 점증적으로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증가되어 온 이래로 비러시아인들 가운데서 소비에트의 관리, 지사, 그밖에 다른 사람들은 강대국의 경제적·정치적 생활에 참가함으로써, 약간의 피상적인 만족이 생겼을망정 아마도 소비에트 민족 정책의 큰 힘은 개인적으로 비러시아인을 소비에트 편으로 끌어넣으려 하는 상투 수단이며, 자기 인종의 인종적 집단으로서 가지는 동일성의 인종 감정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인민의 이주와 재정주가 러시아화 정책에 공헌할런지 모른다. 이것은 물론 비러시아계의 소비에트 시민들이 자기 자신들의 민족 운명에 만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소련 인민은 그들의 경제적 지위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공의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다음의 글은 타임지 1961년 12월 1월호에 실린 중공 특집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중공의 근황을 취재한다는 것은 오늘날 언론계의 최대 난사로 되어있다. 여기에 타임지는 홍콩 지국장 스탠카노우 및 제리쉴터·로렌 웨슬러 등 삼씨(三氏)의 수고를 빌려 중공의 근황을 비교적 살살이 보도함으로써 이 난중난사(難中難事)를 풀어주었다.  
 1958년래(來) 마오쩌둥(毛澤東)을 선두로 대약진을 개시한 중공.  
 그러나 죽(竹)의 장막을 넘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한결 같이 서글픈 이야기뿐이다.  
 일찍이 잠자는 사자로 알려진 세기의 거인 7억의 식구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역자>

즉 그들은 경제적 지위의 불만족뿐만 아니다. 물론 정치적 지위에 대한 불만족, 불평도 병행하기 마련이며, 자기에의 사생활면까지 뺀치는 엄한 경찰과 당의 통제를 그리고 감시에 대해 원망하고 반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좌절을 목표로 하여 이들의 불평, 불만은 문화적 동일성의 감정과 모스크바 정책간의 충돌에 의하여 강조되어 정부에 대한 비러시아인들의 태도는 다른 사회적 카테고리과 영역에 있는 소비에트 시민의 태도에 관한 강력한 변명임을 알 수 있다.

현재에 있어서 민족적 정서의 정치적인 위력은 일반적인 불만의 다른 영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다.

그 하나의 이유로서는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들 영역의 대부분의 시민이 독립의 정치사상과 행동이 유용하다는 점에 무관심하기 때문인 것이며, 또 하나의 이유로는 정부가 그 구성단위를 유지하는 한 불평, 불만의 표명을 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민족적 영역에서 마련되는 민족 정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효과적인 행동은 그것에 대한 기회가 존재할 때에만 봉기되는 것으로서 정부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인지, 혹은 러시아와의 동일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것인지는 지방적이고 문화적인 자아의식의 명확한 주장이 정치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과 징후에 대하여는 예상하기 어렵다 하겠다.

끝으로 이 모든 줄거리가 하나의 소련 위성국 내의 집단 체제의 불화의 위기와 민족 감정의 불평, 불만이 마련되는 타당한 소지가 된다는 것을 보건대 민족적 영역 내부에 있어서의 불평, 불만의 제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러시아를 포함하는 다른 지방의 소비에트 시민들이 나타내는 불만과 상동, 상사(相似)한 것이며, 변화하는 정책과 세력에 따르는 불만과 불화는 현재의 소비에트 정책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저해 당하고 방해되는 문화적 동일성의 감정에 의해 고조된다.

또한 이들 시민의 불평, 불만은 그 인유(因由)에 있어서 어떠한 간에 확실히 민족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동화적 열망과 실천적인 국면과 정도에까지 결합되고 융화된 것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며, 이것을 암시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좌는 오늘날까지 그들의 집단제화에 대한 불만, 불화를 어디까지나 당 기구나 비밀 경찰, 정부 정책으로 음폐해왔던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폐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는 절대로 보장받지 못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필자·공군 중령·공본 공보과장>

동서 격담

교각살우(矯角殺牛)  
 뿔을 고치다가 소를 죽인다.  
 영어로는 다음과 같은 격담이 있다.  
 The bungling remedy is worse than the disease.(서투른 치료는 병보다 나쁘다.)

## 인간 상실

중공은 요사이 마치 굶주린 거인과 같다. 백운이 훔날리는 만주 평야로부터 습기 찬 원난의 죽림(竹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서쪽으로 중앙아시아의 초원 지대에서 동으로는 네온이 깜빡이는 상하이 부두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공통된 절박한 두통거리가 있으니 그것은 곧 식량 문제이다.

제철 공장들이 지지부진하여 정시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한에서만 보더라도 1개월의 지급 쌀을 가지고 겨우 사흘밖에 지낼 수 없는 형편이며 설탕은 1년에 네 번 겨우 배급되고 있는 것이다. 밀진 죽을 길쭉하게 끓이기 위해서 주부들은 풀을 썰어 넣는 수밖에 없다. 텐진에서는 배고픈 백성들이 밤을 틔타 몰래 들관으로 기어나가 곡식을 훔어갔으며 또 광둥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목피로 연명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괴이한 형상으로 버티고 있는 구이린 산간에는 그야말로 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 즉 새로 나온 시큼털털한 간장이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베이징에서 일어난 일인데, 몇 주일만에 처음 들어온 생선이 썩었음을 알자 분노한 여자들은 공산당 관리를 때려 눕혔던 것이다. “진지 잡수셨습니까?”라는 중국인 전래의 인사는 어디에서나 더욱 심각성을 띄게 되었다.

밤이 되면 베이징의 큰 거리는 어둡침침하고 음산해진다.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로등은 아홉 개에 하나씩 켜져 있다. 홍콩의 중국인들은 본토에 사는 그들의 친척에게 2년 전에는 87만 포의 식량을 선박으로 부쳤으나 작년에는 애절한 간청에 응해서 9백만 포 이상을 보낸 바 있다. 피난민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홍콩과 마카오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공은 현재 노인과 허약자에게는 출국 사증을 발부하고 있다. 홍콩의 한 시민은 내 나라를 위하여 일해 보려고 1958년에 중국 본토에 갔었다. 지난 주일 그는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기란 구경할 수도 없었고 생선은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맛볼

수 있었다. 새벽 두 시나 세 시에 일어나서 쌀, 과일, 채소와 통나무 잎으로 만든 담배 등을 배급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만일 인간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일할 흥미를 잃는 법이다. 저장성에서 피난 온 18세 난 소녀는 말하기를



가만들 있어, 곧 원자탄을 만들테니까  
마오쩌둥



이 70 노인은 뺨뿔이 빠지게 일하지만 이 양반이 디디고 앉은 밭은 인민공사의 것이다.

신밭과 양밭 수건 치약은 단 한 번 살 수 있었으며 매년 8자(尺) 정도의 광목을 탔다고 말하였다. 다른 어느 여자 피난민은 아직도 그곳에 남아서 시달림을 받고 있을 친구들을 얘기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 하나의 모습

이상에서 말한 것이 오늘의 중공을 그대로 묘사한 것일까? 그들의 영화나 선전에 의한다면 그렇지 않다. 그들은 마을 탁아소에서 놀고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보여주며 알틴쇼키 초원에서 살찐 양의 털을 깎으면서 미소 짓고 있는 목인(牧人)이나 여러 건축지의 나무 발판 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눈에 생기 있는 노동

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공을 방문한 귀빈들은 진홍색의 깃발로 뒤덮이면서 천안문을 지나가는 장엄한 행렬, 원을 그리며 터져 퍼지는 폭죽 그리고 조화된 북과 심벌의 우뢰 같은 소리에 현혹, 도취될 것이다.

머리를 길게 따 늘린 무르익은 처녀들은 파스텔 색깔의 목도리를 펄럭이면서 춤을 추고 씩씩한 군인들은 종대로 정렬해서 행군을 한다. 현판을 치켜든 한 떼의 노동자들은 소위 공산주의의 위대성을 격찬하고 미 제국주의를 증오하는 표어를 외친다. 여기에 바로 자신만만하고 구세주적인 힘의 무장된 마력이 있다.

국제적으로 중공은 서상(敍上)한 정경에 맞서려고 하고 있다.

라오스와 베트남에서의 끊임없는 게릴라전에 고무된 중공은 동남아의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미국을 패배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 중공은 또한 티베트를 무자비하게 정복, 착취한 다음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계속 야기시킴으로써 인접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를 범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번에 이미 1만2천 평방 마일을 점령한 중공군의 새 국경 침입을 항의하는 강력한 각서를 베이징에 제출한 바 있다.

베이징 정부는 거기에서 더욱 공산 세계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모스크바와 경쟁하고 있다. 이 사실은 중공이 그 자신을 세계 미개국가에 대한 지도자와 표준형으로 자처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정신적 유산을 창도함으로써 22차 공산당 대회에서 이미 밝혀졌던 것이다. 베이징 정부는 힐난하기를 흐루쇼프의 반스탈린주의 하에서 소련은 기름진 부르주아가 되었으며 서방과 접촉함에 있어서 혁명의 열의가 결핍되었다고 한다. 중공은 또한

그 자신의 핵무기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바 서방 국가의 많은 인사들은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세계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하고면서 워싱턴과 모스크바에 도전하고 한편 핵폭탄의 생산으로 매진하고 있는 한 국가가 그 자신의 국민조차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중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배후에 있는 하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 집단 실험

지난 11개월 동안에 중공은 단 한 사람의 비공산당원 기자를 입국시켰으니 그는 여기 실리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스위스의 언론인 페르난드 지곤이다. 지곤과 다른 외국인 방문자들은 중공의 현실에 관한 피난민들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베이징의 선전은 물론 영국의 육군 원사 몽고메리 작작과 같은 감동하기 쉬운 방문객이 늘어놓는 열광적인 설명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사실 중공의 자랑 잘하는 지도자들도 심각한 사태만을 인정하고 있다. 항저우에 있는 별장에서 마오쩌둥은 프랑스의 전 각료이었던 프랑수아 미테랑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서방 신문들이 소위 중공의 기근에 대해서 대서특필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기근이 아니라 결핍의 시기”라고 마오쩌둥은 주장한다.

중국의 역사는 하나의 긴 결핍의 시기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의 중국의 기근은 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리고 토지 개량법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결과이었다. 그와 반대로 오늘날 중공의 기근은 거대한 계획에서 오는 결과다. 더구나 수십 년 동안에 처음으로 중국 내에 전쟁이 없었으며 세계의 타처에서는 빈곤이 제거되어가고 있는 때 더구나 후진성과 사회적 부정을 없앨 것을 다짐하는 정부 아래에서 오늘날의 중공의 기근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타임지의 홍콩 지국장인 스텐리 카노우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1870년대에 북부에서 있었던 대한발(大旱魃)이나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1920년대의 흉수·기근과 같은 중국 역사상에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대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생존 경쟁 이상을 암시하는 배급제 하의 집단 기근인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수행되었던 최대의 사회적 집단 시험의 실패로 상징화될 수 있다. 중공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로부터 주요 산업국으로 되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에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중공의 부주석이며 국가 기획 위원회 의장인 61세의 리푸춘이다. 후리후리하고 박식하며 표정을 짓지 않는 백발의 리푸춘은 1958년에서 비롯한 간난의 3년 동안 농민을 착취하는 책임의 자리에 있었으며 중국을 영국보다 더 강력한 산업 기반으로 이끌 목표를 세운 대약진 운동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

윤하, 탄광, 철광을 발굴할 2천4백 개의 스파르타식 인민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수백만의 중국인을 군수 조직과 같은 집단으로 배치, 정비하는 모든 계획과 지령은 베이징의 금부(禁府) 안에 있는 2층의 만주 왕궁-포친전(抱親殿)에 자리잡은 리푸춘의 아담한 사무실에서 쏟아져 나온다. 대약진 운동이 제앙로의 약진이었음은 이미 명백해졌지만 그 실패의 정도는 오늘날에

와서야 밝혀지고 있다. 거의 발광적으로 중공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베이징 정부는 그 목적도 달성치 못하고 중국의 농업만 망쳐놓았다. 현재 리푸춘(李富春)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 농민에게 가한 비인도적인 압력을 다소 완화시킬 거대한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 약간의 기적

1949년 장제스(蔣介石) 정부를 제압한 순간부터 마오쩌둥은 참화의 10년 뒤에는 중국이 원시 경제로부터 산업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도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화함으로써 중공이 세계 정치상의 강대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구질서를 타파하는 혼란 중에서 희망과 공포의 교차로에서 그리고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 하에서 중공 인민들은 마오쩌둥의 목표를 향하여 성실하게 전진하였으며 다소의 기적을 성취하였다. 8년 동안에 면화 수확은 전전(戰前) 수확고로부터 160만 톤으로 30%가 증가되었다. 강철 생산은 1943년의 최고 생산고인 90만 톤보다 약 6배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어도 중공의 개인당 강철 생산량은 일본의 개인당 생산량에 비해 4%에 불과한 것이다.

소련의 원조 아래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트럭·기관차·트랙터·비행기의 제조를 착수하였다. 대산업 기관이 바오터우·우한·안산에 설립되었으며 큰 강을 동력화하기 위하여 댐이 세워졌다. 약 50만 에이커를 새로 개관함으로써 농토는 확장되었다. 중공의 제품들은 해외 시장을 침투하였다.

그러나 1957년경에 이미 농업·경제 부문은 침체하였으니 국가 투자의 겨우 8%가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할당되었던 것이다. 서방 전문가들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공업 총생산고가 123% 증가한데 반하여 농업 총생산고는 8년간의 인구 증가율도 될까 말까하는 26%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중공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방해가 되기는 하겠지만 농업 부문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경제 문제를 마치 적군의 주공격선을 다루듯이 취급하였다. 즉 인해 전술을 써서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화학 비료, 각종 기계 및 숙련된 노동력이 농촌에서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인민공사를 통해서 농민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결정하였다.

중공의 신문과 라디오는 마오쩌둥의 치우링 방문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는데 그곳에 사는 3만1천 명의 농민들은 두 다리로 전진하기를 자발적으로 결심하고 여가를 이용하여 공장을 세우고 용광로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수백만의 농부들은 어리둥절한 가운데 대약진 조직에 끌려들었다. 현수막들은 하루 동안에 20년의 발전을 부르짖고 있다. 회계 결산은 생산을 방해하는 두통이라고 무시되었으며 여인들은 집안의 고역으로부터 해방되어 농장이나 공장에서 하루에 8시간씩 노동하고 있다. 노인들은 행복의 집에 수용되었고 어린이들은 국영 탁아소에 맡겨지고 있다. 탁아소에 있는 꼬마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 부른다.

“우리 엄마는 훌륭해요.

우리 엄마는 밭에서 일하죠. 우리 엄마가 하도 열심히 일하니까 인민공사에서 붉은 꽃 한 송이를 주었지요? 소련에서의 로맨스는 “처녀가 트랙터를 사랑한다.”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중국에서는 “처녀가 양동이를 사랑한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선전원은 이렇게 떠벌렸다.

“소년들이 연못 밑바닥을 치고 있는 동안 소녀들은 흙을 나릅니다. 땀방울이 그들의 몸에서 솟아 나오죠. 소녀는 이미 천 번을 날랐지만 피로함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또 소년들은 진흙탕 속에서도 추운 줄을 모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은 서로 마음속으로 통합니다. 그들은 모두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별들이 사라지고 해가 뜰 무렵까지 일하죠.”

### 간부의 호각 소리

리푸춘이 대중을 다루는 기구로서 곧잘 만든 것은 간부제였다. 간부들은 베이징의 정책을 모든 계층의 사회에서 수행하였으며 농민들을 인민공사에로 강제 투입시켰다. 꼭두새벽의 기침 시간부터 일과가 정해져서 농민들은 정렬하여 점호를 받고 붉은 깃발을 날리며 들로 행군한다.

간부가 호각을 한 번 불면 그들은 경쟁하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들인다. 나팔소리가 나면 그들은 연장을 놓고 장탄되지 않은 소총을 메고 밀집 훈련을 받는다. 다시 호각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즉 보잘것없는 작업장으로 달려가서 즈크신(질긴 천으로 만든 운동화=역자 주)과 무명 옷감을 만들거나 원시적인 용광로로 가서 품질 낮은 광석으로 선철을 만드는 것이다. 육지 저 너머로 2백만 개의 작은 용광로에서 타오르는 불길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모든 것을 단지 속에” 이것은 간부의 표어였다. 탄광이나 공장, 용광로를 위한 새로운 설비를 사기 위해서 인민공사는 그의 자금을 투자하였다. 외국의 손님들은 씨아틀이 나무상자와 낡은 판자로 만들어졌으며 방직기도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신장에서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강철이 떨어지자 대나무 통으로 대신 만들어졌다. 돼지가 6천 마리이며 1년에 30십만 파운드의 생선을 잡고 있는 허난의 한 인민공사에서는 노동자들이 겨우 호떡과 약간의 채썰은 양배추 그리고 우동뿐으로 연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산물을 모두 나라에 바치고 있었다.

### 씩어가는 물건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흉수와 한발음 극복하였다고 떠벌려왔었다. 그러나 작년에 중부지방에서는 비라고는 2백 일 동안 한 방울도 구경할 수 없었으며 북부지방에서는 황허가 어떻게 말라붙었던지 자동차가 그 밑바닥을 지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만주의 안산과 무단에서는 넘쳐흐르는 강물이 탄광과 제철소를 삼켜버렸다. 이러한 일기 불순은 리푸춘이나 중국의 다른 지도자들이 흔히 구실로 삼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중국의 재난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만과 홍콩 그리고 본토의 광둥성은 그 일기가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홍콩의 수확이 8%, 대만의 수확이 13% 저하한데 비하여 광둥의 농업 생산고는 13%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공산주의자들

의 과오에 있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독단적으로 경작지의 1할을 묵혀두고는 그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나머지에도 촘촘히 심고 깊게 갈라고 명령하였다.

중공에서는 누구나 2개 반대 운동, 즉 낭비 반대 및 보수주의 반대 운동에 가입하였으며 4해충, 즉 제비·쥐·파리·모기의 박멸에 나서고 있다. 촘촘히 심은 밭에서는 전염병이 퍼진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깊이 심은 벼에서는 이삭이 어떻게나 길게 자라는지 보통의 바람에도 쓰러졌다. 중공을 다녀온 일본의 한 사회주의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내가 여행을 하는 동안 눈에 화학 비료를 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중공의 농업 수준은 일본에 비해 50년 뒤떨어지고 있다.”

죽도록 일을 하고나서도 농민들은 그들이 집에서 만든 선철이 너무 물러서 농구를 만들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농촌인민공사에서 나오는 주괴(鑄塊)는 너무 적어서 현대식 압연 공장에서는 이용될 수 없다. 원료 부족으로 새로 건립된 많은 공장들이 쓰러지거나 휴업 상태에 있었다. 철도망은 힘에 딸려서 정돈 상태에 빠졌고 썩어가는 물건들이 역마다 쌓여있다. 거기다가 피로와 냉담이 겹쳤다. 중공에 대하여 동정적인 방문객이었다는 영국의 작가 페릭스 그린은 소련이 세워 준 트럭 공장을 시찰하려고 연전(年前)에 창춘에 갔었는데 그는 공장 건물 사이에 녹슨 예비품들이 굴러다니고 연쇄 기계는 1분에 단 3피트밖에 움직이지 않으며 직공들은 할일없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 일반적으로 정력과 정밀성이 부족한 것이었다. 랴오닝성에 있는 31개의 공장들에 대한 작년도 당 조사에 의하면 4만 톤의 생산품이 파기된 것이 드러났다. 무단에서는 설계의 부단한 변경으로 7천 개나 되는 전기 모터가 쓰레기더미에 쌓이게 되었다.

### 짚다발이라는 별명

이 재난의 시기를 통하여 리푸춘은 중공의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는 책임을 맡았다. 마오쩌둥의 극단적인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임무를 에누리 없이 수행하였다. 그의 이러한 충성과 특권은 그가 갖고 있는 배경의 덕택이다. 그는 마오쩌둥의 소싯적 친구이며 대서천(大西遷)의 고참 막료이고 또 마오쩌둥과 같이 후난성 출신인 것이다. 후난성의 성격에 대해서 마오쩌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중국이 독일이라면 후난성은 프로이센일 것이다.”

이푸춘의 프로이센인적 생애는(그는 1900년에 출생하였다) 중국의 위험기 시대를 거쳐 온 것이었다. 즉 만주제국 당시의 봉건적 혼란으로부터 현재의 공산주의 하에서의 위험한 위기 망각 시대에 걸쳐온 것이다. 중화민국이 건립될 당시에 리푸춘은 열한 살 난 어린 학생으로서 후난성의 창사에 있는 그의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즐기고 있었다. 리푸춘이 그보다 8년 선배인 마오쩌둥을 처음 만난 것도 어느 축구 시합에서 었었다. 마오쩌둥은 그 때 이미 좌익 연구 단체의 회장이었는데 리푸춘도 곧 거기에 가입하게 되었다. 1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는 2천 명의 중국 지식 청년들을 파리 근처에 있는 노동 연구 단체에 초청하였는데 마오쩌둥 클럽의 회원들은 집단으로 거기에 지원하였다. 마오쩌둥

자신도 그 동지들과 함께 가기로 되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가서 마음을 달리 먹어 고국에 머물면서 좀 더 배우기로 결심하였다.

1919년에 도블(渡佛)한 리푸춘은 공업 도시 리옹의 시장이었으며 후에 프랑스 수상이었던 고 에두아르 에리오 일파에 가입하였다. 그는 파리에서 65마일 떨어져 있는 몽파르네대학에 다니면서 하루에 4시간 공부하고 4시간 밖에 나가 일하였다. 그는 어떻게나 미숙하였던지 그의 친구들이 그를 짚다발이라고 불렀다. 그는 일을 유별나게 싫어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썩 잘 해내지도 못하였다. 몽파르네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잠시 르노 슈나이더-크로이소 공장에서 일하였다.

## 당원 부부

무직의 덕택으로 리푸춘은 파리의 카페나 침침한 다락방에서 덩샤오핑(鄧小平), 저우언라이, 천이(陳毅)와 같은 인물들(이들은 현재 각각 당 서기장, 수상 및 외상)과 더불어 혁명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다. 그는 또한 후난성 태생의 정력적이고 의지가 굳은 차이창이라는 처녀와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다. 둘은 곧 공산당에 가입하고 결혼하였다. 1924년에 모스크바를 들린 다음 그들은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당의 명령에 의해 둘은 서로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야만 했다. 즉 차이창은 방직공장의 노동자들을 선동하려고 상하이로 갔으며 리푸춘은 장제스의 황푸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 교수가 되기 위해 광둥으로 갔었던 것이다. 이 황푸군관학교는 마오쩌둥이 잠시 선전부장으로 있던 적이 있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유혈의 메별(袂別)을 한 뒤에 리푸춘 부부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대서천(大西遷)에 합세하였다. 이에서 마오쩌둥은 9만 명의 공산당원을 장시로부터 옌안에 이끌었던 것이다. 그들이 4개월 후에 옌안에 이르렀을 때 남은 사람은 겨우 2만5천에 불과하였다. 차이창은 그때 입은 여독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1936년에 리푸춘 부부와 식사를 나눈 적이 있는 에드거 스노 기자는 그의 일기에다 차이창은 아직도 그의 파리 시절을 추억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훌륭한 파리 요리를 대접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오늘날 리푸춘과 차이창은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유일한 부부 위원이다.

1949년까지 리푸춘은 독단적인 노동 조직가인 진윤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중공이 본토를 점령하자 그는 중공업상이 되었으며 이 오시프 스탈린과 30년 동맹 조약을 교섭하기 위해서 1950년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1953년에 그는 소련이 중공의 제1차 5개년 계획에 원조할 것을 동의하는 한 협정에 조인(調印)하였다. 이러한 공훈으로 그는 국가 기획원의 원장으로 승진되었다.

## 벽돌을 던져 보석을……

인민공사제를 실시하기 직전, 리푸춘은 중공의 경제가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농업 문제에는 전심전력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하였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그의 동료 경제 전문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 익명을 요구하는 모인(某人)은 불길하게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리들은 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간성을 상실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공업의 발전이 없다면 인간성은 어차피 상실될 것이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정책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업을 위한 것이었으며 긴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전가들이 경제 담당자의 뒤를 이어받았다. 만일 철과 강철이 없다면 중국은 “마치 뼈가 없고 살덩어리만 있는 뚱뚱한 사람과 같은 것”이라고 그들은 외친다. 농촌은 비료가 필요하였던가? 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떠벌렸다. “나는 모든 사람과 동물의 똥속을 작은 비료 공장으로 생각한다.”

리푸춘은 한풀 죽었다. “나는 아마추어다. 내 견해는 보석을 얻기 위해 던진 벽돌밖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대약진 운동의 첫해에는 마오쩌둥이 그의 도박을 다시 한 번 이기는 것 같이 보였다. 베이징 정부는 놀랄만한 생산 지수를 전 세계에 공표하였으며 공장이나 농촌에서 도달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음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몇 달 동안에 리푸춘과 그의 경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가공할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통계 숫자는 과장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혀 가공적인 것이었다. 요구하는 숫자만을 제시하였음이 드러났던 것이다.

## 희생될 양은 어디있나?

원래 3억7천5백만 톤이라는 엄청난 양곡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정부는 겨우 2억5천만 톤의 수확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서방 전문가들은 이 숫자도 인정하지 않고 대약진 운동이 전개되기 전체인 1957년에 비해 2천5백만 톤이 증가된 2억1천만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이다. 면화 총생산고는 3분의 1이 감소되었다. 그들이 자랑하는 1천백만 톤의 강철 중에서 오직 8백만 톤만이 공업에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작년 여름의 양곡 생산고는 부쩍 저하되었기 때문에 중공은 이를 밝히기를 거절하였지만 중공의 측근 소식통까지도 겨우 2억5천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공 이전의 최대 수확고에서 실질상 감소된 것이다.

리푸춘은 다음과 같은 어색한 설명을 늘어놓는다. 즉 국민 경제는 그 불균형의 상태에서 균형의 상태로, 그리고 다시 불균형의 상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격동하는 순간에서도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분히 자본주의의 경기순환론과 비슷하게 들린다.

중공의 경제적 불균형 상태가 악화 일로를 걷게 되자 그 무역 사절단은 오스트레일리아·프랑스·캐나다 등지를 돌아다니며 3억6천2백4십만 불(弗) 어치의 양곡을 구입하였다. 중공의 수출 무역은 적체 화물의 제조 불능으로 마비되었다. 해외의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금은괴를 런던에 보내었기 때문에 베이징의 국고는 텅 비었다. 국내에서는 속죄양(옛날 유대에서 속죄일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워서 황야에 내버린 염소=역자 주)을 찾아야 될 판이었다.

마오쩌둥은 강력한 공산당 당 수직(首職)을 아직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 원수직에서 내려앉았으며 공적 석상에서 이미 사라졌다. 이러한 은퇴는 마오쩌둥이 인민공사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리푸춘은 이렇게 갈파하였다. “중공업을 발전시키려다보니 농업을 경시하기는 하였지만 또한 인력·금전 및 물자의 낭비도 없지 않았다. 계획이 비능률적이었던 것이다.”

### 하나의 전환

그리하여 또 하나의 굉장한 계획이 추진되었으니 이번은 농업 진흥을 위한 것이었다. 한때 농부들이 공장으로 끌려갔듯이 이번에는 노동자들이 농촌으로 끌려왔다. 장시성에서만 하더라도 4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농촌으로 갈 것을 명령받았다. 산시성에서는 댐 공사나 공장으로부터 4십만 이상이 감원되어 농장으로 갔다. 3년이나 뒤늦게 이제 와서야 공산당은 농업에 도움이 되는 공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화물 자동차를 제조하던 베이징의 한 공장은 트랙터 수리공장으로 변하였다. 간쑤성에 있는 공작 기계 제조업자는 기계 장치를 바꾸어 농구를 전적으로 만들 것에 동의하였다.

지독하게 엄격하였던 인민공사제도는 현저하게 완화되었다. 노동은 1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부부들에게는 자기네들 방이 따로 허용되었고 맛있는 공동 식당은 문을 닫았다. 인민공사의 회원들은 주택, 자동차, 의복, 담요, 이불, 라디오, 시계 및 은행 예금과 같은 개인 소유물은 가져도 괜찮도록 허용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에의 복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형적이면서 모호한 설명을 한다. “큰 집단 안에서의 적은 자유이것이 변증법 상의 합이다.”

과거 한때에 인민공사의 엄격한 감독관이었던 간부들은 이제 독단적으로 생활 목표를 책정하건 기계적으로 농작물 평수를 조정하고 기술 방법을 강제로 소개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더욱 모욕적인 일로서 간부들은 어질고 나이 많은 농부들에게서 교도를 받도록 지시되었다.

### 군대 농장

중공군 내의 동요로 말미암아 온건한 새 방침이 급히 요청되었을지 모른다. 농민 출신 하사관들은 그들의 가족이 인민공사에서 입는 고통에 대하여 분격하였다. 중공군 장교들은 자기네 부하를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에 통분하였다. 1959년 육군의 항의로 평덕화이(彭德懷)가 국방상에서 물러나고 한층 융통성 있는 린묘오(林彪) 원사가 그 자리에 올랐다. 그는 매년 1개월씩 장교들로 하여금 일반 사병의 복장을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훈련하고 일하며 놀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강령책을 강구하였다. 비록 장성에게일지라도 이것을 실시토록 하였던 것이니 이는 분명히 장교 특권 계급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던 것 같다.

중공군은 풍부한 식량을 취할 수 있게 농장에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먹을 돼지나 야채·곡식을 키우고 있다. 군대에 입대하면 일상적인 필수품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왜냐하면 홍콩의 한 피난민이 말한대로 군대는 그래도 고기를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 약간의 소득

이제까지 중공을 단합시켜 온 것은 공산당 간부·군대 및 성실하고 노련한 지도력이다. 이러한 큰 못(釘)들이 헐거워지기 시작한다면 전 구조가 무너지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당장에 왜하나 반란의 희망을 걸 수 있을 것인가?

거의 확실한 대답은 부정이다. 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서방측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환상일 것이다. 중국이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이라도 그것이 중국 전체를 휩쓸 수가 없다. 식량이 어디에서나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 부유하게 지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장은 그 운영이 엉망이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피로한 가운데서도 숙련공 사이에는 서서히 능력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공사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밝은 면을 발견하였다. 중공의 한 관리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것은(인민공사=역자 주) 생산이 아니고 교육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기술 작용에 대하여 두려워하였었는데 이제 기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기술은 그 신비성을 잃은 것이다. 자기네들이 파낸 강철을 부어서 실제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국민들은 그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에서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이 진보를 가져왔다. 이것은 어느 정권하에서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확실히 12년간 집권하는 동안 중공은 중국 사회에서 급히 요청되는 몇 가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위생에 대한 기초 지식이 보급되고 질병 예방이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유아 사망은 대폭 감소되었다. 여자들은 남편과 시모의 철권적(鐵拳的)인 지배 및 조흔, 축첩(蓄妾)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이 어떻게 간에 그것은 억압과 간난을 통해 베이징 정부가 짊어진 대가를 상쇄하기는 어렵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극을 서로 나누고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오늘날 하나도 없다. 서방측 전문가들은 중공의 인구가 식량 공급보다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베이징 정부는 대약진 운동을 시작하기까지는 이에 동의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후로는 산야 제한을 통하여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중공의 통치자에게는 우글우글하는 식구가 비록 굶주리더라도 군사력 및 생산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농업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앞으로 25년 동안에 만사가 완수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디에 살 것인가? 중국은 역시 협소한 경토(耕土)의 여지밖에 없을 것인데 그때의 인구는 10억이나 될 것이다.”

### 죽기도 힘들어

얼마 전 강선이 만주 평야로부터 중국의 남해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겨울은 성장하는 계절의 종말을 가져온다. 겨울에는 들이나 정원에서 식량을 훔칠 수도 없고 산으로 돌아다니며 먹는 잎이나 뿌리를 캐어낼 수도 없다. 겨울에는 또한 따스한 옷과 훈훈한 불기를 장만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 이후 네 번째로 겨울을 맞이하면서도 중공은 거의 식량 부족과 마찬가지로 의류나 연료의 공급이 부족되고 있다.

추위가 뻗속으로 달려드는 이른 아침부터 직공들은 옥외 난로에서 굽는 빵 몇 조각을 사려고 뒷골목에 늘어선다. 때로는 사람이 절반도 먹기 전에 노점의 식량이 떨어진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유 시장에 가는데 거기서는 농부들이 달걀 하나에 30센트 받으며 땅콩은 1파운드에 2불(弗), 닭고기는

모 스 크 바 권 력 주 변

1파운드에 3불(弗) 받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면화 재배가 실패되어 방직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도로 청소부로 채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죽기조차도 어렵게 되었다. 광둥성의 어느 지방에서는 인민공사에서 매달 관 한 개를 내어 주는데 제일 먼저 죽어서 신청하는 사람에게 준다. 어느 가족은 나무를 이끼고 끊어모아 세모난 관을 만들 수 있는데도 관을 못 탄 나머지 시체는 이를 마분지에 싸서 매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긴장을 다루는 기술**

이러한 가운데서 베이징의 신문이나 방송은 중공이 소위 제국주의자의 군사 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반동적인 첩자로 시달리고 비겁한 각종 음모 하에 놓여있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떠들어 댄다. 긴장 상태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온순한 국민을 실망으로 이끄는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정부는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긴장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 “중국 국민은 첫째로는 가난하고 둘째로 비어있다. 이것이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좋은 일이다. 백지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롭고 훌륭한 말을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때 마오쩌둥은 설명하였다. 처음부터 그의 새롭고 훌륭한 말이란 다음의 두 가지 주제로 연역(演譯)되었다.

(1) 중공의 위대성, (2)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서방측의 질투에 찬 기원. 마오쩌둥은 고의로 빈곤에다 공포를 가중시켰고 기근에다 증오를 첨가시켰다.

국민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행진·노래·구호·악대들이 끊임없이 동원되고 있다. 놀이나 서적·회합·강연회에서는 늙은 중국이 현재 젊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다안라 시대(서기 618~ 906년)의 한 시는 다음과 같다.

가라앉은 배를 지나

1천의 돛단배가 나아가고

병든 도토리나무 너머로

싱싱한 푸른 나무들이 서 있네.

중공의 선전가들은 설명하기를 “부패한 서방은 가라앉은 배나 병든 도토리 나무를 닮았으나 중공은 앞장서서 나아가는 1천 척의 돛단배나 파란 깃이 돋는 1만 그루의 나무와 같이 번창하고 희망에 차 있다.”고 한다.

더욱 적절한 구절은 역시 당조의 시인 이백(李白)의 시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홍콩의 한 피난민은 말한다.

세상은 여인숙과 같고

지난해들은 먼지알과 같도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불평을 하지만

만일 미래를 예측한다면

그 불평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인(韓眞) 번역〉

나는 인간을 좀 더 사색하게 만들어 그들을 심화하고 윤리적으로 향상하게 하려 한다. 진실로 이 소원을 지니고 나는 이 세계에 서서 일하고 있는 몸이다.  
-A.슈바이처의 「나의 생활과 사상」에서-



미코얀



스스로프



몰로토프



세피로프



주코프

- 1. 철저한 추방 인사
- 2. 흐루쇼프 왕국의 대신들
- 3. 역사 개조와 망명 부활

**1. 철저한 추방 인사**

제22차 소련 공산당 대회 완료 직후인 10월 31일, 당 최고 간부의 개선이 행해졌다.

◇22차 대량 추방

이에 의하면 제22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11명 중에서 몰로토프, 우오로시로프, 카가노비치, 말렌코프, 불가닌, 사부로프, 배루비힌, 키리첸코 등 8명과 그 후 최고 간부가 된 아리스토프, 이구나토프, 주코프, 후루체오, 벨라예프, 므흐니스프 등 6명, 모두 14명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제20차 당 대회 이래 그대로 잔존하는 간부는 흐루쇼프, 미코얀, 스스로프의 3명뿐이다.

1937, 8년의 대숙청은 문자 그대로 스탈린 시대에 있어서의 광기적인 추방이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같은 추방은 없었다. 제17차 당 대회의 직후인 1934년 2월 11일에 선출된 최고 간부 10명 중 제18차 당 대회 직후인 1939년 3월 23일의 개선에서 속선(續選)된 간부는 6명이나 되었다.

제22차 당 대회에서 탈락된 14명 중에서 몰로토프,





불가닌



카가노비치



그로미코



멘시코프



주코프

우오로시프, 카가노비치, 말렌코프, 불가닌, 사부로프, 배우 비힌 등 7명은 흐루쇼프 노선의 반대파로서 추방된 것이며 흐루쇼프 독재 확립에 따르는 당연한 희생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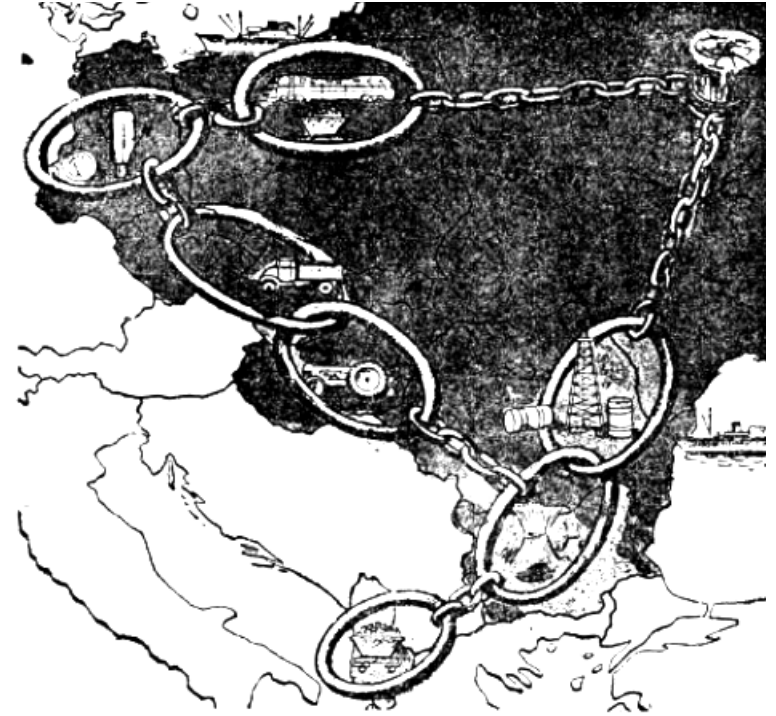
그런데 키리첸코, 아리스토프, 주코프, 이구나토프, 후루체와, 벨라예프, 므흐지노프 등 7명은 몰로토프 이하의 흐루쇼프 반대파의 투쟁에 있어서 급선봉 노릇을 한 공로자이다. 이 가운데에서 주코프는 반대파 추방 후 군부를 배경으로 삼고 흐루쇼프와 대항하다가 실각했지만은 나머지 6명은 순연한 흐루쇼프파이며 흐루쇼프에 대항하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

◇왜 추방 신세가 되나?

그렇다면 그들은 어쩌서 이번에 추방되는 신세가 되었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공산통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다. 흐루쇼프 후계 자격, 즉 넘버 투 맨 지위 쟁탈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그것은 미코얀이나 스스로프의 싸움이라 하겠는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격차가 아직 넘버 투 맨을 에워싸고 싸움을 벌릴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지도부를 소장화(小壯化)하기 위한 경질이라고 보는 편도 리(理)에 닿지 못하다. 그것은 노후 도태가 있겠는데 44세의 폴리안스키가 들어앉았다고는 하겠으나 73세의 슈베르니크, 80세의 구우시넨이 그대로 잔류하고 있는가 하면 한창 일꾼이요, 흐루쇼프를 지지하는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않을 수 없다.

알고 보면 그들이 탈락한 것은 전혀 다른 이유에서이다. 그것은 과거에 어떠한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사(容赦)없이 제거한다는 현실주의자 흐루쇼프의 드라이 인사의 결과인 것이다.



◇추방자들의 이력서

키리첸코와 벨라예프의 실각은 소련에 있어서의 2대 곡창이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에서 그들의 지도가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모처럼의 전공(前功)도 용사(容赦) 없이 무시당한 것이다.

아리스토프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는 당 중위(中委) 의장 제1대리로서 의장 흐루쇼프를 보좌하고 당 조직 지도의 전 책임을 어깨에 지고 있었다.

식육 생산으로 미국을 능가하고 미국에 앞서라는 슬로건은 7개년 계획의 목표의 하나이었는데 1955년 라잔주는 연전에 비해 육류의 국가 납입액이 3배로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흐루쇼프는 기뻐했다. 동년 12월 25일의 당 중위 총회에서 인구 1인당의 육류 생산이 미국을 능가할 자신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라잔주 당 위원회 제1서기 라리오노프를 지방당 지도자의 귀감이라고 격찬하여 사회주의 근로 영웅의 칭호를 주면서 흐루쇼프는 라리오노프에게 다가들어 껴안고 키스를 하는 소동을 일으켜 덕택으로

아리스토프도 노동 용사의 상패를 수여받고 면목약여(面目躍如)한바 있었는데 그 후 라잔주 생산 보고는 더욱 숫자가 늘어났다.

#### ◇라잔주의 식육 소동

헌데 알고본 즉 라잔주는 타지방에서 구입한 식육을 자기가 생산한 것으로 보고하는가 하면 유우(乳牛)까지 잡아서 육류 생산의 숫자를 증가시켰던 것이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궁지에 빠진 라리오노프는 익년(翌年), 즉 60년 9월 22일 돌연 사망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알고 보면 이 같은 부정은 소련 내에서 허다한 것으로 그 후 타지방에서도 계속 적발되어 아리스토프는 문책되고 동년 12월 13일 해임되어 61년 1월 5일 폴란드 주재대사로 좌천되고 만 것이다.

이구나토프는 57년 6월, 흐루쇼프가 몰로토프 일파와 대립했을 때 시엘도로프주 당 위원회 제1서기의 지위에 있었다. 그는 중앙 위원들에 앞질러 간부회의 회장에 취임하여 몰로토프 등에 대하여 반격을 가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이 공적으로 당 중위 서기로 발탁되어 중앙에 발판을 잡게 되었으나 서기국에는 고참 서기로서 당무에 정통한 스스로프와 젊은 수완가 코즈로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구나토프는 떠오를 길이 없었다. 그 후 소련 최고 회의 간부 회의장으로 진출되었으나 별로 이름을 떨칠 수도 없었기에 7개월 만에 해임, 연방 수상 대리의 자리를 얻었으나 여기에도 연방 수상 제1대리 미코얀이며 크시긴 등이 버티고 있어 존재가 희미하게 되고 61년 2월 25일부터는 조달 국가 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겸임도 알고 보면 로봇적 존재이다. 조달 사무 관계의 장관으로 10년 가까이 근속해 온 코루니에츠가 제1대리로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반대파 추방의 투쟁 공적으로 얻은 당 최고 간부의 지위도 주어진 직책 성과를 제1위로 하는 현실주의자 흐루쇼프의 밑에서는 건디어 날 수가 없는 터이다.

#### ◇홍일점의 홍일동

후루체와는 소련 최고 간부의 홍일점이다. 이 여자는 반대파 추방 투쟁에서는 구나토프에 못지않은 공적자이다. 당시 모스크바 시당(市黨) 위원회 제1서기였던 그 여자는 간부회에서 4대7로 고전을 겪는 흐루쇼프를 지원하기 위해서 흐루쇼프계의 중앙 위원을 비상 소집하여 하부 지벌의 힘으로 간부회의 4대7을 전복시켰던 것이다. 이 공으로 후루체와는 당 최고 간부의 홍일점으로 기세를 떨치게 되었으나 실제 면에 있어서는 이구나토프와 마찬가지로 작가 쇼로프의 표현을 빌리면 용자(容姿) 수려한 장식적 존재에 불과했었다.

흐루쇼프는 이 홍일점을 좀 더 실효적으로 이용할 생각으로 1960년 5월 4일, 연방 문화상으로 진출시켰다. 스탈린 시대에 모스크바시 문화 선전부장으로 10년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경험을 토대로 “7개년 계획 수행 국민 총동원 체제에 문화계를 증응시키라”는 당 요망에 공을 세워달라는 뜻이다. 그는 과연 이 같은 흐루쇼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는가?

금차 당 대회에서 쇼로프를 비롯한 여러 연설 중에서 밝혀진 것처럼 그 여자에 대한 채점은 낙제였다. 따라서 그 여자가

당 최고 간부의 지위에서 물러나온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므흐지노프는 한때 세피로프와 더불어 소련 외교의 특이한 존재로서 당시의 외상 몰로토프로 하여금 개점 휴업의 표찰을 걸게 한 장본인이다. 우즈베크 출신의 동양인인 그는 대아시아·아프리카 공작을 맡고 있었다. 특히 나세르에 대한 공작은 이집트가 수에즈 문제로 서방측과 대립되어 있을 시기였던 만큼 상당한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공적도 카이로대학에서 행한 그의 강연이 혁명 선동 연설로 탈선했기 때문에 나세르는 깜짝 놀라 그를 경계하게 되었다. 이 나세르의 경계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등용한 것이 같은 우즈베크 출신의 라시토프다.

라시토프는 금차(今次) 당 대회에서 당 중위 간부 회원 후보로 승진하였다. 이것은 곧 므흐지노프의 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긴박한 동서 양 진영 대립 정세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7개년 계획을 단행하려는 흐루쇼프는 그의 드라이 인사로서 신 진용(新陳容)을 갖춘 셈이다. 여기에 그 포석을 분석해보자.

## 2. 흐루쇼프 왕국의 대신들

### ◇당적(黨籍) 박탈의 20만!

흐루쇼프의 추방 인사는 당 최고 간부급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당 전체 조직을 진감(震撼)시켰다.

직책 불수행의 명목으로 당으로서의 최고 처분은 당적 박탈인데 이 처분을 받은 자가 최근 6년 동안에 20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 숫자는 금번 제22차 당 대회에서 흐루쇼프 스스로가 보고하여 밝혀졌다. 이와 같은 희생은 물론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이번의 개선에서 등장된 인물 중에서도 장차 희생자가 나올 것은 뻔한 노릇이겠으나 현재로서는 흐루쇼프가 마련한 신 진용의 포석하기에 연령순으로 서열을 지어보면 다음과 같다.

구우시넨(1881년생)	코시긴(1904년생)
세베루니크(1881년생)	부레주네프(1906년생)
흐루쇼프(1894년생)	코즈로프(1908년생)
미코얀(1895년생)	우오로노프(1910년생)
스스로프(1902년생)	폴리안스키(1917년생)
포도고루누이(1903년생)	

80세의 구우시넨과 44세의 폴리안스키는 36세의 간격이 있고 1932년 2월 10일에 최고 간부에 열석한 미코얀과 1961년 10월 31일에 등용된 우오로노프와는 26년의 차이가 있다.

### ◇후종·스종의 혼성판

이들은 모두가 현재는 흐루쇼프에 충성을 맹서하고 있지만은 각자의 대후르쇼프 관계는 각인각양이다.

흐루쇼프를 제외한 10명 중 미코얀은 물론 코시긴, 스스로프, 세베루니크, 구우시넨, 부레주네프 등 6명은 스탈린 밑에서 최고 간부로 등용되었었고 흐루쇼프가 실권을 잡자 곧 전향한 파들이나 코즈로프 이하 포도고루누이, 폴리안스키

우오로노프 등 4명은 순전한 흐루쇼프파다.

#### ◇전향파들의 이력서

구우시넨은 80세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원래가 핀란드로부터의 망명자인 만큼 소련에 있어서 정권을 잡아보자는 야망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진다. 그러서는 다년간 코민테른 집행 위원으로서 활약한 체험을 살려서 현재 진행 중의 대핀란드 공작에 전념하게 될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다.

세베루니코프 74세의 노령이며 이미 우오로노프에 앞서 소련 원수의 지위를 무난히 수행해 내었고 말하자면 공도 세우고 이름도 세운 존재이며 금후의 당 통제 위원회 의장으로서 여생을 대과(大過)없이 지내기에 노골(老骨)에 매질하는 정도로 보아야 한다.

앞으로의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두 노골에 비하면 동일한 전향파라 할지라도 미코얀, 스스로프, 코시긴 및 부레주네프의 경우는 다르다.

#### ◇불사신의 미코얀

미코얀은 최고 간부로서 1937, 8년의 대숙청을 무난히 헤엄쳐 나와 금일까지 그 지위를 보존해 온 유일한 존재이며 연령도 그보다 4년 뒤에 최고 간부가 된 흐루쇼프보다도 1년 젊다. 그는 패기만만한 기질이며 불사조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15년 입당 이래 바꾸를 중심으로 활약했고 10월 혁명 후 동 지방 볼셰비키 정권의 간부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자 1918년 멘셰비키의 반혁명 운동에 호응하여 영국 합대가 바꾸에 입항했기 때문에 볼셰비키 간부는 일제히 체포되어 카스피해의 대안, 현재의 크라스노뱃스크주의 사막에서 기관총의 난사로 전멸되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은 미코얀 단 한 명이라고 한다.

미코얀이 최초로 최고 간부가 되었을 때의 최고 간부 10명과 그들 10명의 오늘 처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스탈린과 카리닌은 병사하였고 체바리와 콘쇼루는 총살되었고 오루조니키테는 자살하였고 안드레프는 농업 지도의 실패도 인퇴하였고 우오로노프, 몰로토프, 카가노비치의 3명은 흐루쇼프에 의해서 추방되었고 미코얀 혼자만이 그날의 그 지위를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다.

과란만장의 황파(荒波)를 헤쳐 온 그는 스탈린과로부터 전향해 왔다고는 하나 스스로프, 코시긴 등처럼 흐루쇼프의 앞에서 위축하는 태도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언동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선단적(先端的)이라 한다. 제22차 당 대회에서 알바니아 공격에 기쁨을 부은 것도 미코얀이다.

현재의 최고 간부 중에서 이처럼 대담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는 미코얀뿐이다. 물론 흐루쇼프가 견제하는 오늘날 넘버 투 맨은 순(純)흐루쇼프파의 선단에서는 코즈로프라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코즈로프가 넘버 원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미코얀의 불사신적 존재를 망각할 수는 없다.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소련의 정권에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유대 아르메니아인이며 수신(瘦身)·단구(短軀)에 기적적인 불사신적 신밀성을 간직하고 있는 아나스타스 미코얀의 존재는 크게 주목의 대상이 아니 될 수 없다.

### 3. 역사 개조와 망령 부활

#### ◇꺼져버린 혁명 원동들의 역사

미코얀은 소련의 역사를 새로 꾸미기를 요구하고 그러나 그 방향은 전의 독재자가 자기에 편리하고 유리하도록 꾸민 것을 이번은 그 후의 독재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를 꾸미지 않도록 주장했다.

1959년에 발행된 「소연방 공산당사」는 미코얀의 이 같은 요구에 의해서 3년 후에 발간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역사는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추었는가? 스탈린 시대의 소련 공산당사를 읽은 사람이라면 이번의 이 책을 읽고 누구라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레닌과 더불어 10월 혁명의 원동이었던 트로키는 물론 부하린, 루이코프, 지노비예프, 톱스키 등의 혁명에 바친 공적은 스탈린 시대의 그것이나 다름없이 말할된 그대로이다. 스탈린 시대와 동일하게 그들의 반혁명분자로서 매국노이며 살인귀이고 인간의 나부랭이로만 취급되어 있는 것은 어찌된 셈인가?

이것은 단순히 역사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의 유해까지 파헤침으로써 레닌의 신성성을 지키려는 그들이 스스로 레닌을 욕보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장 좋은 증거라 할 수 있는즉 반혁명분자이며 매국노로 인간 나부랭이들을 소련 정권의 최고 지위에 등용한 레닌은 보다 더한 반혁명분자요, 매국노요, 인간 나부랭이이기 때문이다.

#### ◇모래알을 바위로 만드는 역사

최근 「소연방 조국 전사(戰史)」 제3권이 발행되었다. 이 책의 서문은 소련군 소장 파블렌코 모(某)라는 자가 쓴 것인데 내용인 즉 지금까지의 개인의 역할을 과대평가한 과오를 지적하고 이 점을 시정하며 전선 후방의 전 국민의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스탈린 또는 어떤 특정한 전선 사령관(이는 아마도 슈코프 원사를 지적한 것이리라)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격하하는 동시에 흐루쇼프의 역할을 드러나게 명시하고 있다.

이의 한 예를 들면 독군(獨軍)의 배후 교란에 공이 있었던 25만의 빨치산의 활동을 지도한 흐루쇼프의 역할은 물론 독·소전의 결판을 가져온 스탈린그라드 작전은 1942년 10월 16일 동(同) 지구(地區) 사령관 에래민코와 동 전선 군사 위원 흐루쇼프가 입안해서 대본영에 보냈다는 것, 독군을 패퇴 일로로 몰아넣은 제2의 크루그스 작전은 익(翌) 43년 4월 21일, 우오로네지 전선 사령관 와츠친과 동 전선 군사 회의원 흐루쇼프가 입안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에 있어서 1개인의 역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시대와 민중의 동태에 중점을 둔다는 그들의 역사는 어느 한 개인의 역할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한 개인의 역할은 부당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

스탈린은 그들이 아무리 미워하여도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 전선, 전 후방의 총지휘자요, 최고 지도자인데 반하여 흐루쇼프는 십수 개 구로 나누어진 그 하나의 그것도 사령관도 아닌 군사 위원회 의원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 양자의 역할이란 바위와 모래알의 비교일 것이고 만일 스탈린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흐루쇼프 따위는 그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 ◇스탈린 죄상에 가래질하는 역사

흐루쇼프가 스탈린과 다른 점은 반대파를 추방하는 수단에 있어서 테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테러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지 어떤지는 명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표면상 남용하지는 않고 있다. 또 하나 특기할 점은 스탈린이 그 반대파를 추방하는데 사용하였던 여러 가지 흉악한 내막을 극일부에 지나지는 않으나 적발하였다는 것이다.

제22차 당 대회 후 적색 나폴레옹이라고 일컬어진 원사 토하치에프스키를 비롯해서 적군(赤軍) 장성 8명과 연방 수상 대리 겸 소련 통제 위원회 의장 코쇼투, 연방 수상 대리 추바리, 우크라이나 당 중위 서기 쏫츠이체프, 연방 농무상 에이헤 등 스탈린 측근의 사람들과 극동군 사령관 부루벨, 참모총장 원사 예고오로프 등이 무실의 죄명으로 처형되었음이 밝혀지고 그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무실의 죄로 살형된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던 것이다.

#### ◇망령 부활 40명의 역사

제22차 대회에 등단한 여러 사람들의 연설에 의하면 레닌 내각에서 소련 최초의 법무상이었던 로모프, 스탈린의 의형제 스와니체를 비롯해서 20여 명이 무실의 죄과에 의해서 살육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명예가 회복된 망령은 합계 40명 가량이 되었다.

저 대숙청에서 실각한 그대로 외부에서는 처형되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불명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던 당 및 정부의 요원들은 천 명이 훨씬 넘었으니 40명 정도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반대파 추방을 위한 역사

그런데 그 일부의 망령들이 명예 회복된 이유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도적인 입장에서 행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몰로토프, 우오로시로프, 카가노비치, 말렌코프 등의 범규 유린, 권력 악용의 실례로서 이용된 결과이며 때문에 암흑면의 전모를 폭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기에 범위를 최소한으로 국한시켜 자신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일부만을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

이 같은 배려는 흐루쇼프 그 자신이 이미 그 당시 당의 요위(要位)에 있어서 그 숙청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었다는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해서 일층 결정적이며 부정할 길이 없게 된다.

흐루쇼프는 1938년 2월 10일까지 모스크바주 및 모스크바시 당 위원 제1서기로서 모스크바주 집행 위원회 의장 휘라토프 이하 주 및 시의 주요 간부를 비롯해서 당시 모스크바에 살고 있던 소련 법학의 권위 바시키니스, 작가 키루손, 비리야크, 아피노게노프 등 다수의 사람들을 반혁명분자로서 적발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수상 분다랜꼬를 비롯해서 다수의 인사들을 인민의 적이라 하여 적발, 추방한 사실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사람들이

당 집회에서 흐루쇼프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실각되었음은 다수의 신문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지만은 그 후 그들이 겪은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된 바는 없다.

#### ◇육친까지 가형하는 역사

죽이고 난 뒤에 명예 회복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인민의 적으로 총살되고 난 뒤에도 그 육친들은 총살까지는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형기를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며 형기가 만료되고 출옥해서도 유형수(流刑囚)로서 몇몇한 생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망령들의 명예 회복은 곧 이들 유족들에게도 청천백일(靑天白日)의 명예가 회복되어 몇몇한 신분이 되는 것이니 망령의 명예 회복은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소련 노조 및 국제 노조 지도자였던 톱스키는 우익 반대파로 적발되어 1936년 8월에 자살하였다. 그런데 그의 아들 세르게이 톱스키는 당시 17세였으나 10년간의 형을 받고 그의 모친은 5년형을 받았다. 그들은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유형수로서 모자는 칸크스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형기가 만료되었는데 유형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노릇이나 소련에서는 모스크바 기타 도회지 근방의 생활이 불허되며 시베리아 또는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만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유형수에 관한 이와 같은 사실의 입증은 흐루쇼프 자신이 금반(金般) 대회 석상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반혁명분자로서 총살된바 있는 키예프 군관구 사령관 야키루 상급 대장의 아들이 찾아와서 그의 부친에 관한 질문과 자신이 아직도 유형수 생활을 하더라는 것을 자상하게 얘기하더라고 흐루쇼프는 연단에서 말했다.

#### ◇고참 여노(女老) 당원의 역사

여기에 라즈루키나라는 노부인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 여자는 1902년에 입당한 고참 당원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주 당 위원회의 요직에 있었을 때 대숙청이 있어 체포되어 그 후 20년 가까이 유형수 생활을 해오다가 금반 당 대회에서 스탈린 테러 정치 희생자의 산 증거로서 망령들을 대신해서 당시의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그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1937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주 당 위원회 제1서기 지다노프가 주당(州黨) 위원회의 간부를 소집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주 당 위원회 제2서기 슈도프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카닷키이가 모스크바에서 체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이 발표를 듣고 내 귀를 의심하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나는 지다노프에게 ‘슈도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카닷키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잘 알고 있는 터이요, 그는 모든 반대파와 투쟁해 온 충실한 당원입니다. 이 같은 그가 체포된다는 것은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니 무슨 착오가 있을지도 모르니 다시 잘 조사해보아 주시오.’라고 말했는데 지다노프는 나를 쏘아보며 ‘라즈루키나! 그런 말은 삼가게. 그렇지 않으면 당신 신상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네!’

## 후진지역에 있어서의 소·중공의 알력 (하)

도널드.S.자코리아

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나도 체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콧등! 하는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고참 당원인 내가 무슨 이유로서 이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당시는 모두가 서로 밀고하여 믿을 사람들은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옥을 보이곤 했습니다. 나는 당내에서 어떠한 무서운 음모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으나 스탈린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나는 형무소 내에서도 그리고 유형지에서서도 스탈린을 나쁘게 말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대하여 싸웠습니다.

나는 내가 무실의 죄과에 의해서 형을 받고 있다는 탄원서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것을 모으면 한 권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제22차 대회에서 스탈린의 범죄가 적발되고 나의 명예가 간신히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스탈린의 죄과를 알게 된 이상 그가 이전에는 공적을 세웠다고는 하지만은 레닌과 나란히 물어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때 흐루쇼프가 “올은 말이다”라고 외치자 장내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일어났다.)

내가 곤란을 느낄 때는 언제나 ‘어떻게 하오리까?’하고 레닌에게 묻습니다. 실은 어제든 나는 레닌과 얘기했습니다. 레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의 앞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당에 커다란 해를 미친 스탈린과 함께 있다는 것은 심히 불쾌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이때 장내에 우뢰와 같은 계속적 박수)

### ◇우상을 만드는 공산주의 신 역사

이상과 같이 그 여자의 얘기는 암흑 속에 있었던 스탈린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었다. 그러나 그 얘기의 끝장은 마치 도깨비에 홀린 사람과도 같이 무슨 말을 지껄이고 있는지 분간이 어려운 대목이 되었다. 무신론자로 자처하는 공산주의자도 세상의 고난에 시달리고 보니 이처럼 망령에 사로잡히고 우상을 배격하는 공산주의자가 스스로 우상을 구하고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민족을 부인하면 “슬라브 민족이여!”하고 외친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배격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여자가 구하는 레닌 우상에 만장의 박수를 보냈는가 하면 그 여자의 무언(巫言)에 따라 스탈린의 유해를 파헤침으로써 레닌이라는 우상의 신성화를 일층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실행한 것이다.

이로써 소련은 다신교에서 일신교가 되었다. 흐루쇼프를 스탈린과 대치하여 살아있는 우상을 만듦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신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격언

△신은 치(寸)로써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는다. -영국 이언(俚諺)-  
(신은 사람의 키가 작고 큰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그 사람의 가치의 척도로 삼는다는 뜻.)  
God defends the right-신은 정의의 사람들을 가호한다.  
△각자의 운명은 그 사람 자신 장중(掌中)에 있다. -시드니 스미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운명의 건축가이다. -살루스트-



흐루쇼프



마오쩌둥

### 서방개입에 대한 조치

중공은 식민 지역에 있어서의 국부적인 무력 투쟁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지역에서의 서방측의 무력적 개입에 대해서도 무력으로서 응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의 견해로는 소련의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감히 세계 대전을 개전하지 못하게 된 서방측은 국부적인 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이며 특히 식민 지역에서 이러한 국부적 전쟁을 서방측이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소련은 중공과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소련은 그들의 강대한 군사력 때문에 서방측이 감히 국부적인 전쟁도 감행치 못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국부적 전쟁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1960년 말의 코뮤니스트지(제13권)에도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혁명의 진전에 있어서 적어도 세계적 반응에 의한 공개적 방해는 방지한다는 것은 가능한 사실인 것이다.”

모스크바 회담은 분명하게 이러한 문제를 회피했으며 성명에서는 서방측이 국부적 전쟁의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중공의

견해와 그러한 국부적 전쟁의 서방측에 의한 도발은 저지되었다는 소련의 견해가 함께 포함되었다.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비추어보아 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하는 국부적 전쟁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국부적 전쟁의 온상을 성공적으로 격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명 내용에 포함된 소·중공의 견해의 상이는 1958년 7월에 있었던 이라크의 군사 혁명을 통하여 카셈이 집권한데 뒤이어 1958년 여름에 미국 및 영국의 군대가 레바논 및 요르단에 파견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미·영의 군사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호루쇼프는 카셈의 혁명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또는 긴박한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당해서 후퇴를 할 것이냐 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호루쇼프는 일찍이 리처드 로웰설 씨가 지적한바와 같이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UN에서 긴급 정상 회담을 제안했던 것이다.

1958년 7월 15일에서 23일까지에 발표된 소련의 공식 성명들은 소위 서방측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결정적인 국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소련에게는 무력 개입을 할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소련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음이 분명했다.

이와는 반대로 중공은 1958년 7월 15일부터 23일까지에 걸친 긴박한 시기 및 1958년 말을 통해서 그들이 호루쇼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갖는다는 것과 서방측 개입에 대한 무력적인 결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시했다. 1958년 7월 21일~ 22일 중공의 인민일보 설은 정상 회담을 요구하는 호루쇼프의 제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둘째 번 논설에서는 서방이 아무런 반격에 당면함이 없이 UN 현장을 희롱한다고 언급하고 공산측은 무기와 소위 의용군을 투입하여 이라크 혁명 정부를 유지하고 레바논으로부터 미국인을 축출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언급했다.

1958년 7월 21일에 있었던 호루쇼프의 급작스런 베이징 방문은 중동의 위기와 관계가 있음이 명백한 것이다. 호루쇼프가 모스크바로 돌아간 뒤 닷새도 채 못 되어서 중공의 인민일보의 논설은 미·영의 무력 개입에 대한 소련 지도자의 미지근한 조치를 두 번이나 비난했다. 예를 들면 8월 8일의 인민일보 논설에는 다음의 글이 게재되었다.

“일부 마음 약한 평화론자들은 엉뚱하게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적을 자극시켜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 어떤 자들은 제국주의자 및 식민주의자의 침략에 대해 무력적인 대항을 하지 않음으로써만 평화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무턱대고 말한다.”

이런 중공지의 논설들은 모·후 회담 직후인 8월 5~ 6일 사이의 프라우다지에 게재된 논설과 대조적이다. 소련의 공산당 기관지는 소련의 전력을 강조했다. 전쟁의 모험 없이 이라크에 있어서의 서방측 개입을 저지했다는 것과 가까운 장래에 레바논 및 요르단으로부터 미·영의 군대를 철퇴시킨다는 소련의 견해를 제시했다.

## 민족주의적 부르주아의 역할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의 또 하나의 논쟁점은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신생 독립 국가의 민족주의적 부르주아 지도 계급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반대로 이상 더 이용할 수 있는 가치를 상실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소위 민족주의적 부르주아 지도 계급과의 결탁을 통한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해 소련은 중공보다 훨씬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중공은 그러한 결탁이 제국주의가 부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959년 8월과 9월의 「세계 마르크스주의자 평론지(World Marxist Review)」에는 민족주의적 부르주아 및 해방 운동에 관한 장문의 의견 교환이 게재되었다. 동지(同誌)에는 소련 공산당이 기고한 두 개의 글을 포함하여 76개 공산당으로부터의 글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중공의 견해를 대변하는 글은 게재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점차 심각해져가는 이 문제에 대한 소·중공의 견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소련의 정통적인 대변인인 레빈슨은 소위 민족주의적 부르주아와의 결탁을 통해서 앞으로도 공산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부르주아 민족주의자에게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존하는 제도의 구조 안에서도 반제국주의 및 반봉건적인 운동을 계속하여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딜레마의 최종적인 결과는 해(該) 지역의 공산주의 활동의 강약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서간의 평화적인 경쟁의 귀추에 따라서도 좌우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들 지역의 신생 민족 국가들은 소련이 경제적으로 서방측을 능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공산 블록에 기울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진주의자들에 대한 중공의 가장 강력한 비난은 중공 독립 제10주년 기념일로서 호루쇼프가 베이징을 방문하는 날인 1959년 10월 1일에 행해졌다. 중국 공산당(CPC)의 한 사람인 왕차상은 「홍기(紅旗)의 기념 특집호에 몇 나라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자의 지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글을 썼으며 언제 이들 국가들이 제국주의 진영으로 기울어질지 모르며 영구히 제국주의 굴레를 벗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들 국가(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은 특정한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이들은 반제국주의 전선 또는 반봉건적인 노선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은 역시 부르주아 계급에 틀림없는 것이다. 부르주아 계급이 정권을 장악하는 한 그들은 결정적인 혁명적 노선을 취하지는 못하는 것이며 다만 갈대와 같은 모호한 노선만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효과적으로 사회주의화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민족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혁명의 과업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미 쟁취한바 있는 독립도 결코 안전하지 못한 것이다. ……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자들은 갑자기 제국주의나 봉건주의

와 동일한 관료적 자본주의화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결국 제국주의 지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1960년 12월의 모스크바 선언에서도 민족주의적 부르주아의 명확한 진보적 또는 반동적 성격을 규정치 못했다. 그러나 동 선언은 민족주의적 투쟁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부르주아가 그 역할을 계속 담당하며 이것의 실행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의한다.”고 애매하게 언급함으로써 소·중공의 상이한 의견을 양립시킬 것을 기도했다.

### 이라크의 경우

민족주의적 부르주아에 관한 소·중공의 견해 차이는 1959년의 이라크의 사태 발전에 대한 두 나라의 상이한 반응으로써 확실히 노정(露呈)되었다. 모술에서 있었던 3월의 봉기의 결과로 이라크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급작스럽게 강화되자 그들은 카셈의 후원을 확신하고 적어도 카셈이 그들을 강압치 않을 것이라 믿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정권 참여와 정당 활동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카셈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메이데이 성명을 통해 언급했으며 카셈은 동 성명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입각 요구를 거부했고 이라크가 민주정치 제도의 건설 도상(途上)에 있으므로 정당 활동의 부활은 시기상조라고 선언했다.

카셈과 공산주의자들 간의 초기의 투쟁은 이라크 공산당을 두 파로 분열시키는 결과가 되었으며 호전적인 파는 정부에 대해서 보다 강한 압력을 가할 것을 주장했고 온건파는 공산당의 조직과 훈련이 강화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을 주장했다. 1959년 초의 동유럽의 여러 공산당지들은 이라크 공산당의 이러한 분열을 보도했으며 호전파보다도 온건파의 주장을 게재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온건파가 소련의 지지를 받았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7월 8일과 9일에 이라크의 공산당 정치부는 정세를 검토하고 나서 호전적인 선언을 하였으며 이것은 호전파가 우세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공은 이러한 호전적인 선언을 즉각적으로 방송 보도했으며 한편 소련은 이러한 선언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이라크 정부의 외교 및 국내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여 표시했다.

이라크의 사태는 커억크에서 발생한 7월의 봉기를 계기로 종말을 보게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봉기를 선동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여하튼 공산주의자들은 동 봉기에 가담했으며 무참한 패배를 당하였다. 봉기는 즉시로 진압되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한 인민 항쟁군(Popular Resistance Force)은 무장 해체를 당한 후 해산되었다. 7월 말에 공산당 지도층에서는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지나친 점에 대한 장문의 사과 성명을 발표했으며 압력을 가하는 전술을 포기할 것과 카셈에게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공산당의 움직임은 그 근본 원인이 혁명적인 전술이 별 효과가 없음을 깨달았다는 점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소련의 압력에 의한 것임도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8월 17일의 소련의 프라우다지는 동 이라크 공산당의 사과 성명을 보도했음에 반하여 중공의 신문들은 이를 보도치 않았다.

중공이 실패로 돌아간 이라크 공산당 호전파에 의한 혁명 기도를 소련의 의사에 반하여 선동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소련은 1960년 여름의 중공과의 비밀 혹은 공개 회담 석상에서 1959년의 이라크 공산당의 행동을 “사회주의화를 위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곳에 있어서의 시기상조의 주장”의 예로서 공공연하게 인용했다. 소련은 또한 “이라크에게 있어서의 실패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제에 당면하고 있는 동양과 라틴아메리카의 공산당에게도 교훈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지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소련 원조에 대한 압력

현금(現金)의 소련 세계 전략의 주된 골자는 신생 독립 국가 및 기타의 지역에 대한 경제 및 재정적인 원조를 보다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서방의 경제권으로부터 이들 국가들을 격리시키고 정치적으로 중립주의적인 경향으로 유도하며 종내(終乃)는 소위 사회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알렉 노브 씨가 지적한바와 같이 소련의 지도자들은 비공산주의적인 신생 독립 국가들이 결국은 좌경(左傾)하여 공산권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즉 소련의 지도자들은 “후진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서방측을 능가하는 부강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자본주의자들의 시장을 임의대로 해제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공은 이러한 소련의 신생 후진 국가들에 대한 원조 내지는 원조의 규모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중공의 견해는 세 가지의 뚜렷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공은 현존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광범위한 원조가 소위 사회주의적 혁명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또한 중공은 그들이 소련의 원조 활동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후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소련과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중공을 포함한 공산권 내의 후진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원조가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압력은 연전에 야기된 몇 가지 사태를 통하여 표면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저한 사태는 다름 아니라 소련의 제1부수상 미코얀의 1960년 4월의 이라크 방문 시에 야기된 것이었다. 미코얀의 기자 회견 석상에서 한 중공의 기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개발 문제에 대한 소련의 정책은 어떠한 것이며 또 이러한 소련의 정책과 동 문제에 대한 서방측의 정책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코얀은 이러한 중공 기자의 질문을 하나의 도전으로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본인은 자국의 경제 건설을 하고 있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제국에 대한 소련의 원조 정책을 CPR(중화인민공화국) 기자에게 확인하는 바입니다. 소련은 이들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제국을 공업국의 원료 공급지나 시장 혹은 자본 투자 지역으로 간파하지 않습니다.”

소련은 재차 1960년 6월에 「소련의 원조 및 이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소련의 원조 정책을 변호하는 장문의 글을 「국제문제」지에 게재했다. 이 글은 서방적인 것이라고 비평되었으나 동 필자가 이 글을 집필하며 반서방적인 비판을 염두에 두었음이 분명한 것이었으며 서방에서 일적이 없었던 것으로서 전 식민지에 대한 소련의 원조가 이들 지역에 있어서의 혁명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논의에 대한 비평을 함에 고심한 것이었다. 또한 동 필자는 후진 국가들에 있어서의 투쟁이 단순한 주로 후진 제국 내에 있어서의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이어서는 안 되며 국제적인 식민주의에 대한 전 피지배 국가의 투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계급 투쟁의 강화에 앞서 반식민주의적인 민족주의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따라서 소련은 “전 식민지 제국에 대한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해(該) 국내의 특정 계급에게 한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전체를 피원조 단위로 한 원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련 당국은 중공의 주장으로 믿어지는 이론인 소련의 원조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운동에 국한해서 제공되어야한다는 것을 부인했다.

### 지역적 공산당 내부의 투쟁

후진 지역에 있어서의 소·중공의 알력의 가장 특기할만한 국면은 다름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 공산당 내의 친소파와 친중공파 간의 권력 다툼인 것이다. 사실상 아시아에는 “부르주아적인 민족주의와의 제휴를 계속하자.”는 우파와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와의 제휴를 끊어버리자.”는 좌파로 오래전부터 분열된 공산당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결정적인 발언권을 유지하는 한 비교적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일부 공산당들의 좌파가 현재와 같이 격렬하게 분리되고 있는 이념적인 근거는 중공인 것이다. 이러한 당 내부의 분열은 현재와 같이 소련과 중공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다투고 전략에 대해서 상이한 견해를 견지하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된 공산당 내부의 분파가 만약 타파(他派)에 대한 지배를 기도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소·중공의 알력을 격화시킬 뿐인 것이다. 인도 공산당 내부의 분열은 특히 현저했으며 서방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이다 B.T.라나디브가 영도하는 친중공적인 좌파는 그의 세력을 주로 서방 뱅갈안드라 및 펀잡에 집중했으며 아조이 고쉬 및 S.A.단 그가 영도하는 친소적인 우파는 당의 평당원 간에 미미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세 번째의 E.M.S 남부디리파드가 영도하는 한 파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공산당 내부의 심각한 분열은 1960년 5월에 고쉬가 남부디리파드에게 유리하게끔 당 지도층에서 물러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라나디브파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도 공산당을 공개적으로 반네루 및 반국민회의파 투쟁으로 영도하려 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실제적으로는 정권을 탈취하는

즉효적인 시도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보다 많은 파업과 직접 행동적인 전술을 수반하는 것이다. 인도 공산당의 좌파는 민주주의적인 선거 제도를 통하여 공산당이 지방 정권을 장악했었고 또 동 선거 제도를 통하여 잡았던 정권을 상실한 게 탈라에 있어서의 인도 공산당의 실패를 비난하며 의회 제도를 통하여 공산당이 집권한다는 흐루쇼프의 이론을 배격한다. 그들은 또한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지극히 친중공적이다. 민을만한 인도의 관측통에 의하면 라나디브는 중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공의 이론을 인도 공산당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파에서는 의회 제도를 통하여 집권한다는 1959년에 선언된 아미짜의 이론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동 우파에서는 국민의회파의 점증하고 있는 국내적인 보수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네루의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지도하고 우파적인 전술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공산당(KPI)에 있어서는 분열이 선언되지도 않았고 공개적인 것은 아니지만 친소적인 우파와 친중공적인 우파 간의 알력의 경향은 공산당의 고위층 지도자들의 발언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지배적인 정책은 즉 동 공산당의 서기장인 D.N.아이디트의 주장인 것이다. 소련의 주장에 일치하는 동 서기장 D.N.아이디트의 인내 전략은 1960년 5월의 인도네시아 공산당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논설(1960년 5월 24일~ 25일 부 하리안 라즈카트지)에서 명백히 선언되었으며 소련의 프라우다지도 이를 전면 게재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정치부원 중의 한 사람인 서디스만은 동 지상(紙上)을 통해서 “소위 제국주의자들은 평화를 단순히 전쟁과 전쟁 간의 휴식으로 인정한다.”는 비난을 했으며 “진정한 평화는 소위 투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쟁 및 혁명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자들을 비난함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이 계획하는 3차 세계 대전은 더욱 많은 인류가 사회주의화하도록 할 따름”이라는 1958년의 마오쩌둥의 성명을 인용하여 결론을 지었다. 친중공적인 견해는 또한 사람의 공산당 정치부원인 조토에 의하여서도 표명되었다.

### 쿠바, 콩고 및 아프리카

소·중공의 알력은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에까지도 파급되고 있다. 쿠바 공산당에 있어서도 혁명을 진행하는 속도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분열의 징조가 엿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현 소·중공 간의 알력의 주요 골자인 것이다. 1960년 8월에 하바나에서 개최된 공산당 대회에서 공산당 지도자인 브라스 로키는 쿠바 혁명의 사회주의적 지상 목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반제국주의 및 반Latifundist 목표를 강조했다. 그러나 아니발에카렌테는 동 대회 석상의 연설에서 혁명의 차기 단계를 상당히 강조했다. 쿠바의 혁명은 진행됨에 따라서 1958년 여름의 이라크의 경우처럼 시기 문제에 관한



소·중공의 알력과 같은 내분이 쿠바 공산당 내부에서도 야기될 것이다.

콩고에 있어서는 근간의 중공의 성명은 콩고에 UN군을 파견하는 UN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지지한 소련의 태도를 비난했다. 동 결의안이 UN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안 소련의 선전은 UN이 동 결의안을 지연시키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비난했음에 반하여 중공은 전혀 상반되는 정책을 취했으며 UN이 미국의 조종에 의하여 콩고에 무력 개입한다고 비난했다. 1960년 11월 말의 중공 신문의 논설들은 콩고 사태의 귀추를 언급하면서 “4개월 전만 하여도 UN이 콩고인을 구출할 수 있다고 믿던 순진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중공은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소련과의 경쟁에서도 필사적이다.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 및 사상적인 면에 걸친 중공의 침투 규모를 살펴보면 대단한 것이다. 서방 관측통에서는 1959년에만도 중공을 방문한 800을 넘는 외국 방문단 중 270이 아프리카인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숫자는 1960년에 더욱 증가되었음이 확실한 것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대한 중공의 방송은 소련의 그것보다 훨씬 활발하다. 1960년 4월에 코나크리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연합 회담에 참석한 중공의 대표단은 규모가 가장 크고 활발했으며 소련 대표단을 제압했다.

중공은 특히 아프리카의 급진적인 지도자들을 접촉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60년 5월에 영국 식민지 케냐의 호전적인 오담보 오켈로를 중공이 초대했다. 오켈로는 그의 호전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케냐에 훨씬 중요한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공개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호전적인 아프리카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중공의 공공연한 선동으로 말미암아 중공은 보수적인 아프리카 정부 및 지도자들을 포섭하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중공의 이러한 정책은 감정적인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공산주의자의 중국적인 집권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듯하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공의 선전은 소위 제국주의에 대한 아프리카인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으며 해방 투쟁을 위한 지침으로써 중공의 예를 지적하고 있다. 중공은 아프리카의 여러 주요 지역들에 자금, 선전 자료 및 게릴라전 교범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공의 공작은 영령(英領) 카메룬에서 입증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중공은 알제리 반란군에게 4 내지 5,500만 달러의 자금을 공급했으며 FLN군의 훈련을 돕기 위한 교관도 파견하고 있다고 한다.

소련 및 중공의 대표 간에는 이미 아프리카 전략에 관한 직접적인 마찰이 있었다. 1960년 4월의 코나크리 회의에서는 소련 및 중공의 대표들이 경제 결의안의 용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중공은 냉전이 종식될 경우 경제 개발이 보다 신속하게 촉진될 것이라는 내용의 소련안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그러한 안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인들 간에 제국주의자들이 경제 개발, 군비 축소 및 평화를 신봉한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 회의의 인도 대표단원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중공의 태도는 전원을 놀라게 했으며 특히 소련 대표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 전망: 평화이나? 분열이나?

후진 지역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소·중공 관계를 전망하려면 우선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현 단계에서 중공은 소련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둘째, 중공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성공했으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인가?

권력면을 살펴볼 것 같으면 필자의 견해로는 중공은 세계 공산주의를 지배함에 있어서 소련과 맞서려할 것이고 특히 후진 지역의 혁명에 있어서는 소련을 제압하려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중공은 그들이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 운동을 총지휘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소련을 앞서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있어서는 만약 소련이 중공을 동등한 반려자로서만 대우해준다면 당분간 중공은 그것으로서 만족할 것이다. 소련이 중공을 동등한 반려자로서 대우한다면 즉 소련 지도자들이 서방과의 냉전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중공과 협의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호프쇼프가 1959년에 한바와 같이 워싱턴에 가기 전에 베이징을 사전 방문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소련 및 세계적인 공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공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참작함을 의미하며 특히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간의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소련의 조치-예를 들면 알제리의 FLN 승인 등을 볼 것 같으면 소련이 중공의 압력에 굴복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이 중공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다소 좌파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사실이 아시아·아프리카 혁명의 주도권을 완전히 중공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즉 그들이 각기 꿈꾸고 있는 장래의 동방의 공산 제국(帝國)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중공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며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현재 소련이 희망을 걸고 있는 미국의 신정부와의 일체의 흥정을 포기하여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유로서는 중공의 압력에의 굴복은 현재 소련 지도층에서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적 전쟁의 모험을 받아들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말한 이유들을 살펴볼 때 그 중에서도 마지막 두 가지가 특히 소련의 정책에 중공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를 짓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나 콩고 등지에 있어서도 소련은 공산주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할 것이나 열전 상태에 들어가면 뒤로 물러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서는 1960년의 정상 회담이 실패하기는 했으나 소련은 여전히 정상 회담을 통하여 그들이 득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식민 지역 및 후진 지역에 있어서의 그들의 전략을 소련의 외교 노선에 맞추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공은 식민 지역 및 후진 지역에서 자기들의 독자적 전략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아시아·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들의 혁명 수행이 부당한 소련의 외교 정책 및 부유해져가는 소련 사회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설득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 지역 및 후진 지역에 있어서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소·중공의 알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견해로는 소·중공의 알력의 결과는 어떠한 실제 문제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욱 우세하느냐 하는 점이 아니라 그들의 알력 지역에 공산주의 운동의 영도권을 어느 쪽이 장악하느냐 하는 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도 및 기타의 공산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와 같은 친소 및 친중공파 간의 권력 쟁탈전을 확대, 격화시킬 것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중공이 소련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듯하다. 소련이 11월 12일 회의에서 중공에 속한 이유도 아시아·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다수 공산주의자들이 그들 지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집권을 소련의 경제력이 서방의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까지 기다리자는 점진주의적인 소련의 주장보다는 공산주의 즉각적인 집권을 약속하는 중공의 호전적인 혁명 전략에 더욱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소련이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동 문제를 둘러싼 소·중공의 알력에 있어서 소련을 지지한 것은 유럽의 공산당들뿐이었다. 식민 지역 및 후진 지역의 공산당들은 중공에게 안내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소련이 결정적인 영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들이 중공을 추종한다면 앞으로 중공의 실력이 보다 강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흐루쇼프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만약 그가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식민 지역 및 후진 지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활동의 주도권을 중공에게 넘겨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 한편 만약 그가 호전적인 중공의 혁명 전략 쪽으로 그의 정책을 전환한다면 그가 현재 자기의 전 명예를 걸어놓고 있는 평화적 방법을 통한 공산주의적 세계 정복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소·중공의 알력을 전망한다면 이미 중공의 부수상인 천 이가 말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자-레닌주의자의 중추부는 소련 및 중공의 둘로 전개될 것이다. 즉 공산주의의 본산은 둘로 갈라져서 모스크바는 서방을 지배하고 베이징은 동방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단계가 성숙하기 까지 얼마만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권력의 분리가 과연 우호적이고 사상적으로 통일된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간 및 장차의 사태 발전 여하(如何)에 달린 것이다.

〈장대원(張大元) 역〉

영웅에 대한 관심의 주재료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은 어떠한 사태의 사회 조직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leadership을 결(缺)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leadership의 장악이 공개적인 것이 되는가 또는 은밀한 것이 되는가는 사회에 따라서 저마다 다르지만은 지도자는 책임, 결정 및 행동의 핵심으로서 존재하는 법이다.  
-시드니 후-



**베트남의 어둡고 폐쇄 (하)**

공양 집필  
아담브롬프  
미클라드 라치코비치

**꺾어진 꽃**

공산주의 세계에 흔히 있듯이 그들의 이념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자 기왕에 대두된 바 있는 폴리센트리즘(역자 주 : 지배권분산주의)은 1967년 11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산당 지도자 회담에서 격렬한 반대에 봉착했다. 동 회담에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대표들은 12개 공산당의 공산 선언에 서명할 것을 거부했으나 한편 폴란드의 고무우키는 동 선언에 동조했다. 이러한 유고슬라비아·폴란드 간의 자주화 주장에 대한 중공의 반대로 인한 것이다. 모스크바 선언에서는 소련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제국(諸國)에 적용되는 기본 법칙을 열거하였으며 수정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사조라고 비난하는 등 티토가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이 마오쩌둥의 압력에 의하여 포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모스크바 및 베이징을 제외한 다른 어느 국가에도 공산주의 지배권이 분산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사태가 이렇게 돌변하게 중공에 속고 소련에 무시당했음을 느낀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들은 격노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고는 이미 상처받은 자존심을 안고 1957년 11월의 모스크바 선언과 1956년 6월의 모스크바 선언이 모순됨을 비난하는 것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티토가 흐루쇼프와 상처되는 입장에 재차 위치하게 되었으나 고무우키는 달랐다. 더욱이 고무우키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과 타 공산당 간의 중간노선을 취하려고 했으며 유고슬라비아 공산당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연결을 유지하게 한 공산주의 평화 선언도 고무우키가 제안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고무우키는 코민테른의 재건을 확연하게 거부했으며 인민민주주의 국가 간의 동등한 위치에 의한 결속을 계속적으로 강조했고 대유고슬라비아 관계에 있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다. 고무우키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던 것이다. “오늘날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협조에 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시기가 조만간 닥쳐올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무우키의 희망은 곧 깨어지고 말았다.

1958년 3월에 제7차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대회를 위한 계획 초안을 둘러싸고 소련-유고슬라비아 간의 새로운 논쟁이 불붙었다. 소련이 동 대회에 참석할 것을 취소함으로써 고무우키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고무우키는 폴란드 공산당의 대표를 동 대회에 파견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유고슬라비아와 동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폴란드 대표의 참석을 취소함으로써 소련 측에 가담하든가 둘 중의 한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자칭 정직한 중매인 역할을 계속하려고 기도했다. 1958년 4월 초에는 폴란드 공산당의 유력한 정치부원인 오샤브와 모라우스키를 벨그라드에 파견하여 계획 초안으로부터 소련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항을 삭제하도록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자들을 설득시키려 했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이 실패하자 고무우키는 소련의 뒤를 따라서 동 대회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고무우키는 벨그라드 주재 폴란드 대사를 동 대회의 옵서버로 임명했으며 타국 공산당의 대표들이 항의하면서 동 대회를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고무우키는 보다 뚜렷하게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대회가 있는 후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신문들이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비난을 일제히 퍼부었을 때 폴란드 신문들은 비교적 침묵을 지켰으나 그러나 명백하게 소련에 동조했다. 온건한 어조로 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철저하게 제7차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대회를 비난하는 장문의 기사가 1958년 5월 14일 「트리브나 루두」지에 게재되었다. 동 기사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입장에 관한 리뷰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동 대회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언급했으며 유고슬라비아의 주장이 계급 의식을 망각하고 미 제국주의의 역할을 무시하며 전 사회주의 세력의 국제적인 결속의

근본적인 정신과 상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련이나 중공의 신문 논조와는 달리 「트리브나 루두」지는 1948년의 코민포름에 관한 논쟁의 책임이 유고슬라비아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긍정했으며 유고슬라비아 공산당과 타국 공산당들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차이가 극복될 것을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6주 후의 그단스크에서의 연설에서 고무우키 자신이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에 대한 비난을 반복했다. 고무우키는 유고슬라비아의 부당한 수정주의적 논리가 유고슬라비아를 타사회주의자들로부터 고립시켰으며 사회주의 국가군의 연합 세력 및 국제적인 노동자 운동을 해쳤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고무우키는 재차 화해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유고슬라비아가 오늘날의 그들의 행동이 유해하다는 것을 조만간 느끼게 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

### 결렬의 격화

폴란드-유고슬라비아 관계는 1958년의 여름을 통해서 가일층 악화되었다. 동 기간에 유고슬라비아는 코민포름의 초창기에 방불하는 독설적인 소·중공의 비난 공격을 받고 있었다. 한편 고무우키는 자신이 공산 블록 내에서 점차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고무우키가 그단스크에서 행한 연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소련 블록의 정책에 합치하도록 유고슬라비아에게 정책 수정을 충고한 것이 거부되자 격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태에서 고무우키는 독단으로 소련과 직접 친교를 맺고자 했으며 이러한 의도로서 1958년 10월 및 11월의 모스크바 방문 기간을 연장했던 것이다.

고무우키는 급번 모스크바 방문 시의 태도는 1년 전의 그의 베오그라드 방문 시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며 이러한 상위한 태도는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 중앙 광장에서 11월 11일에 흐루쇼프와 고무우키가 행한 연설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이번에는 고무우키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부당한 수정주의적 노선을 정면으로 공격했으며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그러한 정책을 폴란드 공산당은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모스크바의 청중에게 폴란드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적인 인디내셔널리즘의 정신에 입각해서 유고슬라비아와 친교를 맺고자 한 것이며 “사태가 오늘날처럼 된 데 대한 전적인 책임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에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무우키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이 다시 한 번 우호적인 공산주의 진영의 일원이 될 것을 바란다고 말하고 이번에는 유고슬라비아가 친교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고무우키의 비난 공격에 격분했다. 11월 14일의 「보르나」지에는 소련 블록이 티토 진영에 대한 적대 행위를 계속할지라도 폴란드의 지도자들만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희망을 공적으로 포기하는 신랄하고 긴 기사가 게재되었다. 고무우키의 연설에 대한 반박에서 유고슬라비아는 동국(同國)의 공산당에 관한 고무우키의 발언 중 우호적이었던 1957년의 연설로부터 차례로 인용하여 항상 소련에 뒤따라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점차로 취해왔음을 지적했다. 고무우카에 대한 반박 기사에는 고무우카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에 대한 폴란드 공산당의 비난을 사회주의 블록에 있어서의 최초의 것인양 기만하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벨그라드에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계획 초안을 검토한 바 있는 폴란드 공산당의 두 명의 정치부원들도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견해를 수정주의적인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동지는 말했다. 또한 「보르바」지는 폴란드 공산당이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대회에 공식 대표를 참석시키라는 유고슬라비아의 초청을 1958년 3월 28일에 수락하고는 소련 공산당이 동 대회에의 참석을 거부하고 나서 2주일되는 4월 18일에 동 대회에 참석할 것을 취소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러한 11월의 논쟁을 통해서 폴란드·유고슬라비아 간의 친선 관계는 미처 결실해 보지도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이 친선 관계를 맺기 위한 바탕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데올로기(티토리즘은 국제적인데 반해 고무우카리즘은 순전히 국내적임) 및 권력(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은 강함에 반해 폴란드 공산당은 약함)의 양면을 살펴볼 때 두 나라는 상위한 조건 하에 놓여 있으며 또한 그들 상호 관계가 그들의 연합은 1956년의 동유럽을 뒤흔든 강력한 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여하튼 그들의 연합은 동유럽에 있어서의 소련의 지도력의 잠정적인 약화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소련의 지배력이 재차 강화되기에 이르자 폴란드-유고슬라비아 간의 친선도 결말을 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새로운 한계

호루쇼프는 고무우카의 모스크바 방문 시의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의 소련 블록과 유고슬라비아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두 가지 국면을 천명했다. 첫째, 호루쇼프는 “유고슬라비아와의 우호 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문화 및 상업적 교류를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를 일체 단절한 스탈린의 정책을 부인했으며 둘째로는 “이데올로기적 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투쟁해왔으며 앞으로도 마르크시즘-레닌리즘에 대한 어떠한 방해에 대하여서도 계속하여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 연설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이 그들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사회주의 진영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유고슬라비아와의 친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했다. 호루쇼프의 주장의 세 번째 점은 일찍이 1958년 7월 11일의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역자 주 : 동독 공산당)의 당 대회에서 행한 그의 다음과 같은 연설을 통해서 천명되었던 것이다. “공산주의 노선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는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자들의 실제적 역할을 과대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즉 병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스탈린의 태도처럼 광적인 분노로써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고슬라비아의 전환을 냉담한 태도로써 경멸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 점에 따라서 동유럽 제국 및 폴란드의 대유고슬라비아 관계의 범위가 뚜렷해졌다. 그렇게 됨으로써 유고슬라비아와

소련 블록 국가 간의 접촉은 뮌헨에 있는 자유 유럽 방송국의 연대적인 조사에 의하면 1959년 1월 1일부터 1960년 5월 15일까지의 총 212회가 모두 국가 대 국가 간에 관한 것이었다. 동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동 기간을 통해서 유고슬라비아와 가장 많은 횟수의 접촉을 한 나라가 역시 폴란드이며 유고슬라비아와의 교역에 있어서도 전 공산진영 국가 중 소련에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폴란드 주재 유고슬라비아 외교 사절이 일정한 감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폴란드·유고슬라비아의 관계가 비교적으로 평온했다. 폴란드는 중공이나 알바니아처럼 궤변을 농하지는 않았으나 1959년 12월에 유고슬라비아의 무관에 대한 후대를 중지했다.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두 나라 간의 사절이 계속하여 왕래했다. 그러나 규모는 1957년부터 1958년까지에 비해 상당히 적어졌다. 바르샤바에 유고슬라비아 공보원을 설치하는 것은 폴란드 정부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에 대한 비난이 폴란드에 있어서는 중공이나 알바니아에 있어서처럼 심한 것은 아니었으나 폴란드 공산당은 여전히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에 대한 확고한 이념적 투쟁의 원칙을 고수했다. 고무우카는 1959년 3월의 폴란드 공산당 대회에서의 연설에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에 대한 소련의 비난을 되풀이했으며 유고슬라비아와 소련 블록 간의 장애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해 그전보다 비관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이러한 고무우카의 비난에 대한 응답으로써 3월 17일의 「보르바」지에는 고무우카의 대유고슬라비아의 태도가 우유부단하고 기본 원칙이 없음을 개탄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동 기사는 특히 “반유고슬라비아 투쟁에 있어서 고무우카가 나중에서야 동조한 새로운 요소가 타인에 의하여 도입되었다.”는 말로써 끝을 맺었다.

폴란드는 호루쇼프의 대유고슬라비아 정책의 세 번째 점도 냉철하게 검토했다. 세 번째 점이 폴란드의 구미에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공산주의 진영 전체에 걸쳐 강제된 것으로서 티토의 불만을 자극한 것이었다. 1959년 후반기 및 1960년에 있어서의 소련 대외 정책에 대한 티토 자신의 옹호로 인하여 소련 및 위성국들의 대유고슬라비아 공격이 완화되었으며 이 점에 있어서도 사실상 대유고슬라비아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소련이었고 나머지 위성국들은 이를 추종하였을 뿐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1960년 9월에 UN 총회에 참석했던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동태를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다. 호루쇼프와 몇 번이나 회담하면서도 티토는 고무우카를 무시했으며 고무우카도 이에 응수했다. 또다시 고무우카가 공산 블록의 대유고슬라비아 정책 노선에서 조금도 이탈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나 티토의 적극적인 공존 점을 위한 노력이 동유럽 블록을 향해서가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의 비공산 국가들에 향하여 경주되었다.

### 전망

중앙유럽 및 동유럽의 사태는 폴란드·유고슬라비아 간의 친선 회복의 기회를 점점 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1958년 이후의 정치적인 조류는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더욱 멀리 떼어놓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3국면의 정책으로써 그들의 적극적 공존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왔다. 즉 소련의 거의 모든 대외 정책을 지지하고 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서방과의 친선 관계를 유지하며 또 아시아·아프리카와의 유대를 공고히 했던 것이다. 국내적으로 유고슬라비아는 특히 사회·경제적인 분야에 걸친 실험을 통해서 다른 공산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국면을 이룩했다.

동 기간에 폴란드는 유고슬라비아와 정반대의 방향을 걸었다. 국내의 정책에 걸친 특수한 폴란드 노선의 주장이 상당히 시들었으며 1958년 폴란드-소련 친교 후 폴란드의 대외 정책은 완전히 소련 블록의 노선에 일치되었다. 폴란드가 서방과의 접촉에 있어서 어느 공산 국가보다도 가장 자유스럽고 광범위하게 접촉하기는 하나 모든 중요한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소련에 동조한다. 또한 국내 정치면에 있어서도 현저한 변화가 있었으니 폴란드의 개인의 자유가 어느 공산 국가보다도 많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1956~ 1957년의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폴란드의 요구에 합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적 경제 건설을 위한 경제적 실험은 정돈 상태에 빠졌으며 폴란드는 점차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진영의 나라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 앞서 말한 것 외에도 장래의 폴란드-유고슬라비아의 관계를 전망함에 있어서 동유럽의 사태가 몇 가지 더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1956년 말에 있었던 극적인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가장 활발한 반공 세력이 낙담했으며 특히 서방측이 실질적인 원조를 그에게 제공하지 못한 데에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들이 가까운 장래에 또다시 붕괴할 것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다. 둘째로는 1957년 및 1958년에 막연하기는 하나 희망적으로 제안되었던 “중공 및 동유럽에 일종의 중립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점차적인 변혁을 도모할 것”이라는 계획이 사라져버린 점이다. 결렬의 개념은 쌍방에 의해서 완전히 굳어졌으며 동 지역에 있어서의 중요 문제인 독일의 통일은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련은 분명히 동유럽에 있어서의 헤게모니를 영구적으로 장악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 인민 민주주의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지배는 정규적인 다변적 회담 및 소련과 각국을 연결하는 상호 접촉을 통해서 상당히 굳어졌으며 코민테른을 재결성하여 소련의 지배를 더욱 확고하게 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제 관계도 더욱 강화되었다.

새로운 소련 지배력의 대두로 말미암아 동유럽에 대한 티토주의의 영향력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쇠퇴했다. 1956년 말의 헝가리 혁명에 대한 티토의 애매한 태도, 최근의 소련과의 논쟁에 있어서의 티토의 수세적 위치 및 흐루쇼프의 유고슬라비아를 무시하는 전략 등으로 말미암아 공산진영 및 비공산 지역에 있어서의 티토 세력의 쇠퇴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였던 것이다. 사실상 티토주의가 동유럽에 있어서의 논쟁의 초점 역할을 하던 시기는 이미 끝난 듯 하며 동 지역에서 앞으로

새로운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 특히 비교적으로 떨어져있고 어떤 면에서는 유고슬라비아보다 진보한 폴란드가 유고슬라비아에서 정치적 이념을 구할 것 같지는 않다.

더욱이 중공 및 동유럽에서 새로운 사태가 앞으로 발생할 경우에도 티토가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 노릇을 할 것이라는 점은 지극히 난망인 것이다. 티토는 지금 70에 가까우며 여전히 건강하고 민첩하게 보이지만 티토의 후계자 문제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지도자 간에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티토가 정계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유고슬라비아의 국내의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정도는 동·서방 양 진영의 압력 하에서 티토의 후계자가 대외 및 대내 정책에 어느 정도의 당내 통일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점에 좌우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폴란드의 대외 정책은 후계자 문제로 인해 변화할 것 같지 않다. 그것은 비단 고무우카의 나이가 티토보다 적고 비록 몸이 약하기는 하지만 고무우카가 현재의 위치에 계속하여 머무를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폴란드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국제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폴란드의 대외 정책이 가까운 장래에 변화할 가능성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이 점은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있는 많은 공산주의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인 것이다. 누가 폴란드의 집권자가 되든지 간에 그의 정책은 폴란드 정계의 지배적인 견해에 좌우될 것이며 그것은 즉 전략적으로 소련의 가장 중요한 국경 지역을 사이에 두고 폴란드가 접해 있다는 폴란드의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두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상 위하다는 점과 소·중공의 태도 전환이 1957~ 1960년의 폴란드-유고슬라비아의 친선을 위한 노력을 수포화시킨 두 가지의 기본적인 원인이며 이러한 원인들은 장래에도 그들 두 나라의 친선 회복을 저해할 것이다.

〈장대원(張大元) 역〉

☆피해자의 통치 과정에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통치자의 수중에 있는 교육·종교·경제·정치면의 제 권력의 집중을 감소시키고 피치자에 의한 권력 장악의 갱신과 회수를 가능케 하는 특정한 기구·제도·통제 기관 등을 고안해내는데 민주주의의 제 원칙은 시킬 수가 있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는 견해로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의 어떠한 것도 충분한 증거로써 그 정당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인간 사회의 미래는 기지(機軸)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법칙의 지식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미래를 인도할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과 무지으로써 영향을 받는 사회의 상당한 분야는 원래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판단을 내리고 행하는 결과로써 새로이 개입해 들어오는 다른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드니 훅—

## 인간 평등의 원리 (속)

김낙봉



### 평등 이념의 사회적 의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평등 즉 목적 가치의 평등이란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요청을 지니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권리 향유에 있어서 평등이라는 것이다. 권리는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서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권리는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도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권리는 오직 일반에게 수락된 가치 표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가치가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과 같이 권리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모든 100환짜리 지폐는 100환짜리 지폐로서 동일한 가치를 표시하며 어느 사람에게도 같은 매매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치의 평등성이란 권리의 평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적 가치의 평등이란 어떠한 권리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인 인격 완성의 도덕 생활을 실현하는 권리의 평등인 것이다. 미국 독립 선언서에서 말한 “생명·자유 및 행복의 추구를 포함한다.”는 불가양(不可讓)의 권리가 이것에 해당한다. 역사(如斯)한 개괄적인 권리가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특정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일까?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권리는 모두 국민 또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실정된다. 권리란 즉 법률상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인이 향유하는 특정적 권리의 종류 및 의미는 각기 그 나라의 사회적 경험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 또는 국민의 기관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민들이 각 개인의 인생 목적 추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온 기본적 권리를 지적할 수가 있다. 본 세미나에서도 다음 자유권에 관해서 이것을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 권리의 내용에 언급함이 없이 인간의 평등이란 적어도 각자의 도덕 생활 실현에 필요한 권리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만을 지적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어떠한 주장에서도 그것이 막역한 일반적 추상론인 한 실제 효과는 적은 것이다. 강력한 실천적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평등의 주장도 단순히 권리를 평등화하라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은 약하다. 그런 점에서 이 주장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다소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갖는 특정적인 주장으로 분해되어 온 것이다. 그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들면 법 앞의 평등, 정치적 평등 및 이것들에 부수(附隨)해서 주장된 기회 균등, 경제적 평등, 사회적 평등 같은 개념이 이것이다. 여기서는 이들의 여러 가지 주장의 내용은 보류하고 단지 각 주장이 공통적으로 갖는 실제적 의미만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권리의 평등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실제적 의의는 요컨대 인생 목적의 추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법률이나 제도상에서 가능한 한 동일한 출발선 상에 세우려는 것이다. 즉 각인에게 각자의 선천적 능력에 따라서 저마다의 인생 목적을 추구하는 평등의 자유(권리)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이것을 충분히 발휘하고 육성할 평등의 기회를 인정해서 이것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개념에 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법률이 동양(同樣)한 조건 및 환경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나 재산에 평등하게 작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즉 어떤 사람에게도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갑, 을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만약 갑이 을보다도 근면하고 유능하다면 법률은 갑에 대해서 타인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 한 그 능력(수단 가치)을 자유로 발휘해서 발휘하는 가치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서 이것을 보호한다. 그러나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은 갑이 을의 권리를 침해하고 혹은 갑에게 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갑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된다. 특권은 수단 가치라는 문제를 떠나서 갑을 본질적으로 을보다도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취급함으로써 목적 가치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다음에 정치적 평등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 개념은 요컨대 누구에게도 정치상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평등 원칙에 따라서 사람 됨됨이나 지위를 가리지 않고 각인에게 일률적으로 한 표의 투표권이나 평등한 피선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각인에게 평등한 세력이나 평등한 정치적 수완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것은 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력이기 때문이다. 각인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유능한 사람은 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가 존재하는 한 그만큼 많은 설득력을 발휘하여 몇 천의 표를 장악하는 것과 같은 세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각인에게 한 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각인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그와 같은 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해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인에게 평등한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각인의 능력이나

의지에 따라 각인으로 하여금 공직을 맡고자하면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도 권리의 평등이란 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단 가치의 불평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일률평등하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해방하는 민주정치가 이르는바 중우정치(衆愚政治)에 빠지지 않는 이유도 이상의 설명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다. 어떻게 정치적 평등의 원칙을 유지하던 간에 이성에 호소해서 사물을 결정하는 납득과 승낙과의 중우정치에 빠질 염려는 없다. 중우정치는 이성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다만 수의 힘으로써 폭력적으로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는 정치적 자유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 및 직업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 기회의 보다 공평한 분배에 관해서 특히 주장된 기회의 균등이란 개념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즉 아직 능력 테스트도 하지 않았는데 애초부터 을에게 핸디캡을 주어 갑을 유리한 특권적 지위에 앉힌다고 하면 이것은 갑의 수단 가치 이외의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은 즉 갑을 을보다도 고유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여 고유 가치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 가치의 평등을 뜻하는 기회 균등이란 각인을 동일 출발선상에 세워서 인생 목적을 추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교육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빈부의 구별 없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공비(公費)로써 교육 시설을 유지하고 그리고 특히 인격 완성기에 있는 청소년 시대에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기까지 전혀 공비로써 공통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게 하여 동일한 출발선상에 세워놓은 뒤 그 다음부터는 이미 발휘된 인격의 선천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능·무능을 가림이 없이 일률, 평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게 하는 것 같은 수단 가치의 불평등을 무시하는 불경제적인 악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수단 가치의 불평등은 용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평등이란 인생 목적 즉 인간적 도덕 생활의 추구에 있어서 본질적인 권리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리의 평등이란 어떤 사람에게도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을 행사할 기회를 해방하는 것을 뜻하며 수단 가치의 부인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인간의 가치 이념과 불가분으로 결합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다. 인간은 목적 가치의 평등이나 수단 가치의 불평등(개성)을 무시당할 때 어찌서 불만을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들의 정의관을 침범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의의 관념은 평등이나 권리의 관념과 같이 가치의 대등관(對等觀)에서 곱잡어낼 수가 있다. 우리들은 타(他)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가치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면 약탈이 된다. 그뿐 아니라 고가(高價)한 것에 어울리지 않게 낮은 대가를 지불한다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부정이나 착취를 당했다는 느낌을 준다. 정의의 관념은 이와같이 가치의 대등관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약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의 분배도 평등하게는 안될 것이다. 평등하지 않은 인간이 평등한 분배를 받을 때 이것이 분쟁이나 논란 공격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의 준칙은 인간의 수단 가치의 상위에 관해서 말하는 한 올바르다할 것이다. 불평등의 노동에 대한 평등의 보수나 선에게나 악에게나 평등한 포상은 확실히 사람의 정의관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수단 가치에 우선해서 제1의적 고려되어야 할 고유 가치에 있어서는 평등하다. 따라서 이 평등 가치에 상응하게 인간적 도덕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 권리의 평등한 향유야말로 정의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차별 대우 및 특권에 대하여 우리들은 부정과 불의를 아니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들의 정의관은 수단 가치에 의해서 목적 가치가 몰각되는 것도 또한 목적 가치만이 계상(計上)되어 수단 가치가 아주 몰각되는 것도 모두 만족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적 평등을 포함하는 기본적 자유권을 사회 제도상에 구현하는 것으로써 각 개인 간에 있어서 목적 가치의 평등 원칙과 아울러 기본적으로 정의와의 관계를 확립한다. 이 같은 기본적인 정의의 관계가 확립되어 있음으로 해서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 기구는 정의를 보다 충실케 하는 정의 실현의 기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가 각인에게 정치적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적 자유권을 확인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평등이 결코 각인의 수단 가치의 부인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각인 사이에 존재하는 수단적 가치의 상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결국 정치적 자유의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수의 의지가 사회적 경험이나 이익에 따라서 이것을 정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 평등의 효용

평등의 효용을 알자면 우리들은 우선 불평등의 폐(弊)를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불평등주의 또는 우월주의가 의미하는 착취나 특권 제도는 불리하게 차별되는 쪽의 불평, 불만이나 반항을 항상 자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어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 또는 강제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애정이 애정을 환기하는 것과 같이 강제는 폭력을 유발하고 투쟁을 야기하기 쉽다. 불평등주의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폭력주의·투쟁주의의 철학인 것이다.

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세계의 역사가 실증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미국의 독립 전쟁이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것일까.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그 어떠한 형태의 특권 제도에 대한 반항에 일어난 것이다. 단지 혁명과 같은 국내적·계급적인 투쟁뿐 아니라 국제 투쟁에 있어서도 대체로 어느 나라의 우월주의가 그 근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가까운 예로는 나치스 독일이나 군벌 일본의 독선주의가 제2차 세계 대전을 유발시킨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힘에 입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불평등을 만들 뿐 아니라 개인 간의 경우에도 불화, 알력, 이간의 원인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터이다.

불평등이 불화, 알력의 심리적 근원이며 따라서 불평등주의를 폭력 및 투쟁주의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평등주의는 사랑과 협력과 평화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누구라도 타로부터 평등 대우를 받아 자기의 인격이 존중되는 것에 행복과 만족을 느낄망정 불평이나 분격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무한가치관이라는 인간성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권력자와 굴종자(屈從者) 사이에도 물론 협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굴종자가 흔히 비협력의 경우에 있어서 징벌이 두려워서 협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권력과 공포와의 세계에서는 인간적인 기쁨이나 행복은 물론 참된 헌신적 협력이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강제적 노예 노동이 자유노동보다도 결국 언제나 비능률적인 소이(所以)는 여기에 있다.

평등 대우가 협력을 촉진하는 것과 같이 협력은 또한 평등 관념이나 평등 대우를 촉진한다. 순리로 말하면 참정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써 행사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것으로써 협력의 여부에 의해서 주거나 주지 않거나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국이 1918년에 부인 참정권을 인정하고 미국이 1920년에 성별에 의한 투표권의 차별을 금지한 직접 동기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두 나라의 부인들이 전쟁 완수에 크게 협력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평등과 협력과는 이와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리적으로 볼 때 불평등이 힘과 분열과 투쟁을 의미한다면 평등은 사랑과 단결과 협력을 의미한다.

불평등이나 평등이나 하는 문제는 이렇게 투쟁이나 협력이나의 문제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투쟁과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인가?

사랑과 평등과 협력이란 삼위일체적인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힘과 불평등과 투쟁과는 또한 삼위일체적인 것이다. 기독교의 윤리는 전자의 주의를 대표하고 니체의 그것은 후자의 주의를 대표한다. 투쟁이나 협력이나의 문제는 널리 기독교 윤리와 니체의 그것과 어느 쪽이 옳바른냐는 문제로도 된다. 우리들은 이미 기독교 윤리가 정당함을 알고 있다. 문제를 좁혀서 투쟁주의나 협력주의에 한정시켜 관찰하더라도 같은 결과 밖에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 윤리에서 발전된 민주주의는 기독교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협력주의 위에 성립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윤리적 이상으로써는 투쟁, 특히 폭력적 투쟁을 부정한다. 그렇지만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완화된 투쟁 형태인 경쟁까지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떠한 주도의 투쟁 또는 경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협력과 같이 인간성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람과 교제하며 사람을 알고 사람에게 알려지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에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사회적 또는 군집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인간은 자기의 최선을 다함과 더불어 타인보다 다소라도 우월하려고 하는 자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인간이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만족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뒤떨어지고 또는 지는 것에 언제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니 적어도 우월을 다투는 승부나 경쟁이나 투쟁이나 전쟁 따위는 이 지상에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정반대인 것이다. 우리에게 아무 관계도 없는 먼 옛날에 있었던 영웅 행위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이 인간 일반의 심리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간에게 잠재해 있는 우월이나 승리나 명예를 욕구하는 경쟁 심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물론 이 심리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투쟁이나 경쟁을 불건전하다고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타인의 같은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평등의 조건하에 각인이 가능한 한 자유일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환언하면 민주주의가 반사회적 또는 파괴적인 것이 아닌 공정한 경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경쟁이 인간의 활동력이나 노력을 자극하여 인간을 태만, 무위에서 구하며 인간 사회의 진보 향상에 유익한 유인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 같은 효과를 가지고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거나 증오를 고취하거나 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이라면 민주주의는 오히려 이것을 장려하는 것이다.

문제는 경쟁심을 무제한으로 방임하면 이기주의를 고취하는 결과가 되어 자칫하다가 수단을 가리지 않는 과도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그것은 도덕으로서 인위적으로 고취할 필요가 없는 인간성의 1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 격화의 결과는 약육강식이 되고 인간 상호 간에 시의(猜疑), 공포, 증오 같은 것을 부채질하게 된다. 경쟁은 말하자면 인체에 있어서 백혈구와도 같은 것이다. 적당하게 있지 않다면 인간을 게으르거나 무위하게 만드나 과도하게 되면 인류 사회를 쇠망으로 이끈다.

그런 점에서 협력은 그것을 자극하지 않고 방임하면 인간의 이기심이나 경쟁심 때문에 고사하기 쉽다. 그것은 도덕으로서 인간적으로 고취를 필요로 하는 인간성의 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협력은 그 목적만 그르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협력하더라도 인간 상호의 복지를 증진할망정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염려는 없다. 이 점에서 보더라도 협력을 고취하는 기독교주의는 윤리라고 말할 수 있으나 투쟁을 고취하는 니체주의는 모름지기 윤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한도 내의 경쟁이 인류의 진보나 복지 증진에 소용되며 그런 의미에서 가치를 갖는다 하더라도 진보의 수단으로써 어느 쪽이 보다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일까?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협력이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투쟁주의에 찬성하는 진화론에 기초를 둔 논의는 경쟁 또는 투쟁이 동물계 유일의 법칙이며 진보의 유일의 원인이라는 두 개의 가설 위에 성립되었다. 다윈의 적자생존설, 스펜서의 진보필연설, 니체의 초인설이 모두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 가설은 다 근거가 없는 독단인 것이 증명된다. 동물계에 있어서조차 협력은 생존 가치를 가지고 종의 진화의 매개를 이루어 온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꿀벌이나 개미의 사회는 협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고등 동물에 있어서



현저히 발달된 군거 본능은 그들의 생활에 협력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동물계까지도 경쟁은 유일의 법칙도 아니며 유일의 진화 원인도 아니다. 항차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인류 출현 이후 인류 사회의 진보 발달은 투쟁이 아니고 주로 협력의 소산이다. 적어도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상호 간에 협력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협력 정신의 확충도에 따라 그만큼 많은 선한 생활이 확보되어 왔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서로 모여서 협력하면 그만큼 새롭고도 높은 가치가 창조된다. 인간은 협력적 집단으로서 비로소 진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립의 도에 따라 진보는 뒤지고 완전한 고립의 세계에서 거의 진보의 자취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인류 역사가 이것을 실증하는 바이다. 가령 양심의 자유가 해방됨으로써 발흥한 근대 생산의 현저한 발달도 단 순히 기계의 발달 만에 의한 것은 아니다. 기계에 자극을 받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본 노동자 상호 간에 각기 달성된 보다 큰 협력의 성과임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

자연의 지배나 과학적 발견에 있어서 정치 제도나 사회제도의 발달에 있어서 나아가 예술이나 윤리적 발달에 있어서 문화적으로는 무에 가깝던 헐거(穴居) 생활에서 인류가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문명을 쌓아올릴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은 결단코 투쟁에서가 아니고 실로 인류 상호 간에 있어서 조직된 협력에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력을 가능케 한 것은 인간의 이성과 동정성이며 이들 심리적 요소가 인류 진보의 주요한 매개를 이룬 것이다. 고립은 진보의 장애가 된다. 그러나 투쟁은 고립 이상으로 진보를 저해하고 인간의 행복을 파괴한다. 투쟁이 격화될 때 고대 그리스 사회가 이것을 잘 입증하는 것과 같이 그 사회는 투쟁으로 해서 절멸과 쇠퇴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류의 진정한 진보는 인류 상호 간의 투쟁을 가급적 억제하고 투쟁 대신에 상호 부조나 상호 협력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인류의 이 협력 능력도 진화의 소산이다. 인류는 종으로서 어느 종의 하등 동물이 이룬 것처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어떤 새로운 생리적 기관도 진화시키지 않았다. 인류가 종으로서 진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동체적 생활 양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보의 매개로서 모릅지기 새로운 생리 기관을 발달시키는 이상의 생존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성과 동정성에 궁극의 기초를 두고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인류가 발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연대적·협력적 생활 양식의 원리이다. 민주주의의 세계에 있어서 투쟁이 시인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그러한 생활 양식을 옹호하여 그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함부로 증오만을 고취하는 투쟁주의는 참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미사일 10호에 계속〉

〈제2장〉

공산주의의 통치 구조



1.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소위 무계급 무착취의 이상향을 지상에 건설하였다고 호언하고 있는 소련 공산당, 그리고 세계 적화 혁명의 기지로서 전 세계 공산당의 표본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소련 공산당은 과연 얼마만한 당원을 그 휘하에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면 소련 공산당의 당원 수는 전 인구 2억의 약 4%에 불과한 8백만 정도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절대다수의 국민은 무엇인가? 이들은 물론 공산당원이 아니다.

그중 공산주의 이론과 습관을 주입하기 위하여 14세에서 26세에 이르는 약 1천 8백만의 청소년들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는 청년 공산 동맹의 맹원을 제외한다면 수백만의 다른 소비에트 시민들은 그들이 단순히 공산당 이외의 조직을 모른다는 이유에서 또 공산주의의 독단론에 하등의 의문도 제기할 수 없게끔 나면서부터 훈련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내지 공산당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앞서 말한 800만 공산당원이나 1,800만 청년 공산 동맹원은 모두 열렬한 공산분자들인가? 이것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들 가운데는 당원이 아니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가입했거나 또는 맹원이 아니면 장차 정계나 기타 유력한 공직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장애에 대한 기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직에 가입한 분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당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혁명 초기의 당원들이 노령으로 인하여 하나 둘씩 사라짐에 따라 더욱 커가고 있다. 따라서 새로 가입하는 당원들 가운데 이러한 기회주의자들과 출세주의자들이 늘고 있는 한 그 당원 수가 얼마이던 소련 국민의 절대다수는 비공산당원인 것이다.

2. 소련에 있어서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은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정치적 신념을 발표할 수 있는가?

소련 헌법은 공산주의 이외의 다른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공산주의 이외의 정치 이념을 논한다면 즉시 반혁명적, 또는 반국가적이라고 해서 고발될 것이다. 여기에는 상하가 없다. 비록 저명한 공산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해 제소된다면 1937년에서 38년 사이에 진행된 무자비한 피의 숙청에서 희생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판권을 받고 처형될 것이다.

현재의 소련 지도자들은 소위 비스탈린주의 운운하면서 당시의 숙청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1930년대에 처형되었던 몇몇 정치수를 석방 또는 복위시킴으로써 공산주의의 관대성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대성은 공산주의의 이념의 변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 투쟁 및 새로운 이념 체계의 정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련 내에 팽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향일성(向日性)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것일지도 모른다.

### 3.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말 노동자들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가?

아니다. 소련 국민에 대한 실제적 통치자는 비록 수는 적지만 전적으로 강력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회원 좀 더 자세히는 흐루쇼프와 그의 당이다. 당을 영도하는 방향이나 정책 결정은 이 집단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되는 당의 정책과 계획은 입법적·행정적 효과를 가지고 정부에 이송되어 관료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스탈린은 1926년에 이미 말하기를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는 그 자신의 힘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당의 지도하에서 당의 힘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어떠한 소비에트 노동자 회의나 대중 조직이라도 당으로부터의 지도 없이는 단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나 조직상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원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철칙이다. 이 원칙은 국가 간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각국의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의 그것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소련 공산당은 위성 국가들의 공산당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국가를 통치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의 관료적 지배 아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혹사되는 도구인 것이다.

### 4. 공산주의자들이 무계급사회 또는 일계급사회를 성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참말인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계급의 소멸 또는 무계급사회의 산출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에는 어디나 그들의 헌법이 하등의 상관도 하지 않고 있는 엄격한 계급 구분이 있다. 이러한 계급의 구분은 그가 하고 있는 노동의 형태, 봉사의 정도 및 관료주의적 계급제도와 군대에 있어서의 개인의 직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 공산 간부, 행정 관리, 예술가, 최고위 준장교 및 지배 계급층의 당원들은 관료제도와 군사회의 중간 계층과 완전히 분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장 지배인, 집단 농장의 우두머리, 특수 직업인(법률가, 의사, 교수, 과학자) 및 트러스트나 국가 기업체의 장은 보통 노동자나 농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 구분은 수입 정도, 교육 정도 그리고 기타의 특권의 소유 정도에 따라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니 무계급사회니 하는 허울 좋은 표어들은 이들 국민의 1할도 안 되는 특권층의 착취를 합리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 5.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가 행정은 어떠한가?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그 국가를 통치하는 진정한 권한은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당 중앙위원회는 이를 통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소련 헌법을 비롯한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헌법은 외견상 그럴듯한 통치 기구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36년의 소련 헌법은 최고 소비에트와 두 개의 입법원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공화국(민족회의)을 대표하는 것이다.

헌법은 비밀 투표에 의한 직접 선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자들은 실제로 단 하나 밖에 없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연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나마도 이 단 하나 밖에 없는 후보자에게 반대를 표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반대자는 후보자의 이름을 지우기 위하여 감사자의 눈앞에서 특정한 기표막까지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소련의 지도자들은 앞으로는 모든 투표자들이 하나보다 더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서 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 없는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권을 당이 장악하고 있는 한 입후보자의 수적 증가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렇게 해서 선출된 대의원의 집합체인 최고 소비에트란 것도 실제로는 단지 고무도장의 몸뚱이에 불과한 것이다. 기껏해서 5일 남짓 열리는 그의 회기 중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그 내부의 지배층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정책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며 만장일치의 지지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대의원들의 토론이 허락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나 이의는 용서되지 않는다.

최고 소비에트는 42명의 간부회원을 선거한다. 이 간부회는 최고 소비에트가 폐회 중 다음 회의까지에 법령 발표, 법률 해석, 최고 소비에트의 소집 및 해산,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간부회의 의장은 명목상 소련의 원수이다. 그러나 그의 직위는 내각 수상이나 공산당의 서기장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이다.

내각 회의는 소연방에 있어서의 최고의 행정 집행부이다. 그의 포고는 법률의 힘을 갖는다.

1940년까지 소련에는 12개의 연방 구성 공화국이 있었다. 이해에 소련은 그 때까지 독립국이던 발틱의 세 공화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을 분리된 연방 구성 공화국으로 강제로 소연방에 병합시켰다.

연방 구성 공화국들은 원칙적으로 소연방과 여러 방면에서 대단히 유사한 정부 기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부들은 비록 그들이 명목상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전(全) 연방 정부에 엄격히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1956년 6월 최고 소비에트에서는 카레로 휘니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산국을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내의 일개 자치공화국으로 편입시켰다. 이렇게 해서 소비에트 연방 구성 공화국은 15개 국으로 수효가 감소되었다.

소비에트 헌법에 대한 수정은 1944년에 있었는데 이것은 UN에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반러시아 공화국에게 국가적인 분장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각 연방 구성 공화국은 외국과 직접 교섭을 행할 권리를 가지며 그들과 제반 협정을 맺고 대표를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

“각 공화국은 독자적인 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전기(前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수단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사문(死文)이라는 것도 그 후의 역사가 증명한 바와 같다.

최고 소비에트에서 인준된 법률이나 최고 간부회와 내각에서 포고한 법령은 연방 공화국들에 송달되며 각 공화국은 그의 행정적 통로를 통해서 대지역 단위에서 소지역 단위에 이르기까지 이를 적용, 수행하는 것이다.

6.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정부 관리는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소련에 있어서 관리들과 다른 모든 일반 시민에 대한 주된 지배 기구는 공산당이다.

그의 우위성은 헌법 126조에 확인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 계급 기타 노동층 중에 가장 적극적 또 의식적인 인민은 사회주의 제도의 강화 발전을 위한 국가적 단체의 지도적 핵심이 되는 전 연방 공산당(불세비키)을 결성함.”

비록 헌법은 이렇게 노동 계급의 모든 지도적 핵심을 당이 공급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것은 최근까지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공장에서 대집단 농장에 이르기까지 당의 대표성은 어느 정도 확립되고 있다. 이들 당원들은 직접적으로 전면적인 계획과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는 당의 정에 집단을 구성한다.

둘째로 중요한 지배 기구는 내각 직속의 국가 안전 위원회(K.G.B)이다.

이것이 담당하는 분야는 대외 정보 활동 및 대외 첩보 활동 그리고 국내적인 비밀경찰의 감독 및 조사 활동을 담당한다. 국가 안전 위원회의 이러한 독특한 지위는 내무성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전 내무상이었던 타브렌티 베리아의 몰락 이후 소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당의 영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방대한 비밀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내무성에 위협을 느끼고 1954년 비밀경찰국을 새롭게 강력한 기관인 국가 안전 위원회에 옮겨버렸다. 일반 경찰 활동을 포함한 통상적인 임무는 아직 내무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연방 구성 공화국이나 중앙 정부를 막론하고

도시의 일확이나 제작소로부터 공공관서에 이르기까지 비밀경찰은 소연방 일원에 걸쳐 정보원으로 물샐틈없는 그물을 펴고 모든 종류의 조직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KGB에 체포된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경찰의 감시나 전단적인 체포는 지금은 좀 덜하다고 하지만 항상 전처럼 재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재무성과 국가 통제성은 소련의 재정 통제를 책임지고 있다. 후자는 국가 재산을 감시하고 국가 자금의 지출, 그리고 국가의 계획과 예정들의 이행 상태를 통제한다. 이러한 기구의 관공리들은 국가의 행정 기구를 통해 전국적으로 널리 있다.

7. 공산 비밀경찰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비밀경찰 외에 다른 경찰은?

비밀경찰에게 부여된 가장 큰 목적은 공산당과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있다.

1918년 이래 비밀경찰은 소비에트 조직에 있어서 점점 더 강력하게 되어 왔고 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비밀경찰은 그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그의 예민한 촉각을 소련 내의 모든 동리와 작업장에 뻗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군대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으로 독자적인 명령 계통을 가지고 군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비밀경찰의 우두머리는 이반 세로프인데 그는 1939년과 40년 사이에 동부 폴란드와 발틱 국가에서 100만 명 이상의 양민을 추방하는 일을 감독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이 비밀경찰 외에 소련에는 내무성 휘하에 일반 경찰을 가지고 있다. 이 일반 경찰은 일반 형법 규정의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특한 감옥과 방대한 강제 노동 수용소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 내무성은 군대와 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는 시민 경찰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소방서, 트랙터 집차장(集車場)과 같은 광범위한 보안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삼중의 공산 경찰 조직은 바로 그들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제도적 구명책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

8. 비밀경찰은 어떤 방법으로 범인을 잡아내고 또 만들어내고 있는가?

철두철미한 공갈과 협박에 의한 것이다. 범인의 체포는 최근까지도 밤에 이루어졌고 경찰의 심문도 밤에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체포는 단순히 피의자가 범인일 것이라는 추측이나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자는 피의자로부터 생고백을 짜내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다 쓴다. 또 공범자의 이름을 밝히려고 강요한다. 만약 피의자가 설득에 넘어가지 않으면 비밀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협박과 공갈 또 폭력을 불사한다.

이러한 취조나 심문은 때에 따라 수 주일 동안이나 계속되며 피의자는 수면 시간을 빼앗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언제나 피의자의 자백과 처형으로 끝나는 것이다.

소비에트의 지도층은 그들의 자유화 정책으로 인하여 좀 더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종래보다는 완화될 것이라고 하고있다.

그러나 강력한 비밀경찰 기구가 소련 인민 위에 존재하고 있는 한 이것도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한 것일 것이다.

### 9. 공산주의 국가는 그의 권력을 무한정하게 장악하고 있을 것인가?

공산당을 조종하는 정부가 군사력과 비밀경찰 및 모든 선전 수단 등을 강력하게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만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한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면서 그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 치하의 국민들이 그들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거나 자유세계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리고 그들의 양심의 맨 밑바닥에 있는 자유에의 갈망이 충분히 성장하게 된다면 조만간 공산주의 국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 10. 공산당과 비밀경찰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전체주의 국가의 지배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와 대립되는 세력의 성장이다. 이점에 있어서 현대의 가장 엄격하고 무자비한 전체주의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비밀경찰을 강화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통하여 경쟁적 세력의 대두를 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에 대한 충성이 비밀경찰에게 부여된 최초의이며 최후의 임무인 것이다. 비밀경찰은 누구나 당원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공산당의 중앙 위원회는 비밀경찰을 당 조직의 서기에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당은 또 비밀경찰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통제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라브렌티 베리아는 비밀경찰을 완전히 그의 휘하에 결집시킴으로써 당의 우위성에 도전하였던 것이다. 베리아가 반국가적이고 독재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처형당하였지만 그의 진정한 죄는 무엇보다 엄격하여야 할 당내 계급 제도의 권위를 흐리게 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데 있는 것이다.

### 11.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정부의 규제에 대하여 반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적어도 형식상 국민들은 정부의 부당한 규제에 대하여 반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은 하나도 없다. 만일 누가 그에 대하여 반항을 했다고 하면 그는 자아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공산당은 때때로 이런 자아비판을 그 국민과 하급 관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즉 그들은 자아비판이란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불평과 욕구 불만의 배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배 계층에 향하는 비판의 화살을 소모해도 아깝지 않은 국민이나 하급 관리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 12. 공산주의 국가에도 선거가 있는가?

물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거의 내용에 있다.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구 선거, 직장 선거 등 수많은 대소 선거는 그 중별 여부를 막론하고 그 투표가 투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투표율은 항상 96~99%를 상회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항상 공산당 정부의 승리를 장식하는 것이 된다.

결국 공산 치하의 선거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나 정부의 정책을 일반 대중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치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고찰된 선전 활동의 일부로써 시행되는 것이다.

### 13. 일반적으로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공산주의는 이론과 같이 실천되고 있는가?

공산주의자들은 선전하기를 공산주의는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소련 국민은 적어도 한 세대 동안 공산주의 체제 이외의 정치를 모르고 자라왔고 또 그들은 공산주의 체제 이외의 모든 정치 형태를 저주하고 타도할 것을 배워왔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억압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것은 매년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 피난하여 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명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1953년 6월 27일에 야기된 베를린의 소비에트 구역의 인민 봉기와 그에 따라 일어난 전(全) 동부 독일과 동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반소, 반공, 반제국의 과업 및 폭동 사건이 있다.

또한 1956년 6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폴란드의 포즈난에서 일어난 봉기도 특기할 만한 것이다.

빵과 자유를 달라고 외치며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이 노동자들의 폭동은 무장 폭동으로 발전하여 자유의 투사들은 노도(怒濤)처럼 밀려가 공산당 본부, 시청 및 중요한 감옥 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인민 봉기는 소련이 조종하는 폴란드군 2개 기갑사단에 의하여 진압되고 말았다. 반란이 진압됨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

또한 1956년 10월 23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발발된 무장 반란은 그 강도와 사상자 수에 있어서 단연 전기(前期) 동부 베를린이나 포즈난 폭동을 능가하는 대규모적인 것이었다.

젊은 반항자들의 시위로부터 시작된 헝가리 혁명은 10월 22일 3개의 대학에서 모여든 수천 대학생들이 정부에 대하여 비굴한 소련 굴종에 종지부를 찍을 것과 서유럽적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함으로써 절정에 도달하였다.

2일 후 이들 대학생들은 도시를 마비시키고 이미 폭도 상태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합류하였다. 이에 당황한 신(新) 수상은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소련군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이때 이 폭동은 분명히 절대다수의 헝가리 인민의 반공적 감정을 나타내는 명확한 성격을 노정하고 있었다.

10월 31일 소련 정부는 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로부터 그의 점령군을 철수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있었다. 소련의 성명서는 공산주의 국가 간의 위대한 공영권(共榮圈) 운운하면서도 상호 간의 완전한 평등과 국내 문제의 불간섭을 떠벌리면서 이러한 전제들은 상호 간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인 형제적 협조와 원조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3일 후 모스크바는 소비에트 30년

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 표리부동한 배반을 감행하였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소련군은 헝가리로 밀려들어와 국민적 봉기를 야만적으로 진압한 것이다. 헝가리 국민은 총파업에 호소하면서 완강하게 저항을 계속하였다. 여자들도 자기의 아들과 남편을 도살한 데 대한 항의 시위를 전개하였다.

한편 UN 총회는 11월 21일 헝가리에서 소련군이 즉시 철수할 것과 헝가리에 서 읍서버를 급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UN은 소련과 헝가리 정권에게 헝가리 시민의 추방을 중지하고 이미 추방된 사람들을 귀환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UN이 헝가리에 대하여 함마숄드 씨를 단장으로 하는 읍서버들의 입국을 수락하라는 또 하나의 결의안에 대한 무조건 거절로 표시되었다. 더구나 12월 9일에는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결의를 강화하였다.

〈이동현(李東賢) 역술〉



고아의 아버지 헤스대령이 1월 20일 내한하였다. 사진은 코리아 하우스에서 소파(小波)상을 받은 후 어린이들과 즐기는 헤스대령

☆편집후기



「코메트」는 이번 49호를 내고서 사실상 당분간 부득이 휴간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코메트」에 게재되던 내용의 일부를 증면된 「미사일」에 종합 편집하게 되었다. (재(載))

× ×

언제부터인가 지표를 두 개의 세계로 나누는 습관이 생겼다. 자유세계니 공산세계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

공산권을 하나의 세계로 대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나 일단 만들어진 말 공산세계는 저대로 자기류의 생명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집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는 이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지피지기의 묘(妙)를 부각시켜보려는 적은 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

또한 특집 「22차 소련 공산당 대회」는 소련의 새로운 백일몽을 파헤치는 메스의 소임을 것이고, 특집 「후진 지역의 움직임」은 타산지석의 고언(古諺)을 입증하는 노고를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문(文))

× ×

☆49세를 1기(期)로 「코메트」용이 일단 은퇴한다. 젊은 보라매들과 더불어 산전수전을 겪어가며 반백을 지내온 그이기에 한층 서운한 마음이 간절하다. 아직 정년도 멀었으니 다시 팔을 걷고 나서서 옛정을 이어갈 날이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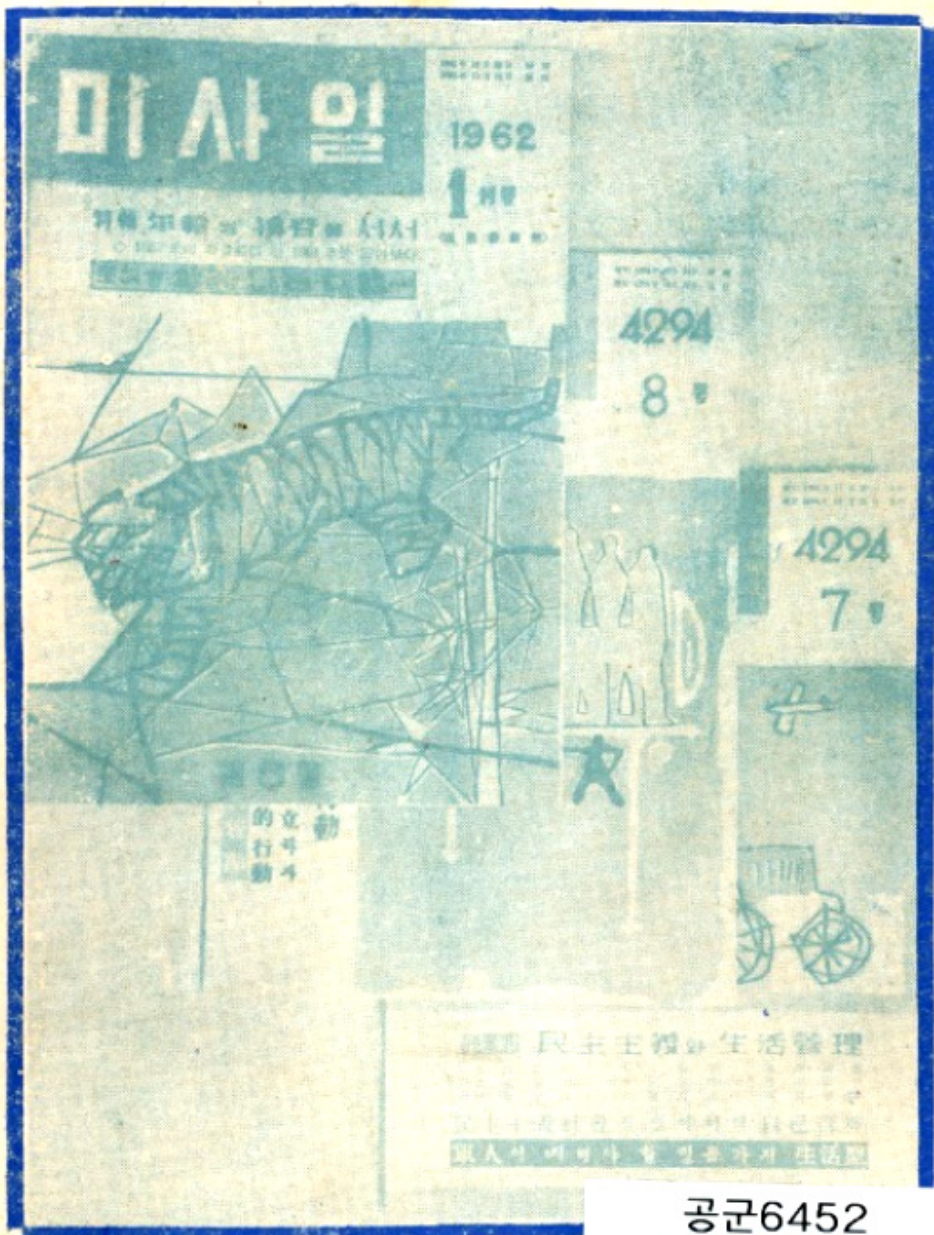
(현(顯))

지난 12월 14일 공군 장교 부인회에서는 시민 회관에서 공군 무의탁 사병에 대한 가족 결연 및 위안 행사를 베풀었다.



코메트 第49號

一九六二年十二月 三十一日發行



공군6452  
94.2.1/김문학

THE COMET

김문학

# 코메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